

太白文化

第十七輯



太白文化院

文藝中興宣言

우리는 民族中興의 歴史的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한 겨레의 運命을 決定짓는 根源的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意力이다. 藝術이 創造力を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を 찾았을 때 나라는 興한다. 新羅統一의 偉大한 업적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産을 開發하고 民族的 正統性を 이어 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맹목적인 복고경향을 경계하고 분별없는 모방행위를 배척하며 천박한 頹廢풍조를 一掃하여 우리 藝術을 확 고한 傳統속에서 꽃 피우고 우리 文化를 튼튼한 主體性에 뿌리박게 한다.

우리는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榮光된 겨레의 來日을 위하여 價値 意識과 史觀을 바로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의 自主性を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文化의 전당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身の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世界에 부각 되도록 힘쓰며, 文化의 활발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文化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들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 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정성을 다해 文藝中興을 이룩할 것을 宣言한다.

1973년 10월 20일

문화유산헌장

문화 유산은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여 있는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문화의 자산이다.

유형의 문화재와 함께 무형의문화재는 모두 민족 문화의 정수이며 그 기반이다. 더욱이 우리의 문화유산은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재난을 견디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는 일은 곧 나라 사랑의 근본이 되며 겨레사랑의 바탕이 된다.

따라서 온 국민은 유적과 그 주위 환경이 파괴·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 유산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는 원 상태로 돌이킬 수 없으므로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 준 그대로 우리도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 줄 것을 다짐하면서 문화 유산 헌장을 제정한다.

1. 문화 유산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2. 문화 유산은 주위 환경과 함께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3. 문화 유산은 그 가치를 재화로 따질 수 없는 것이므로 결코 파괴 도굴되거나 불법으로 거래되어서는 안 된다.
4. 문화 유산 보존의 중요성은 가정·학교·사회 교육을 통해 널리 일깨워져야 한다.
5. 모든 국민은 자랑스러운 문화 유산을 바탕으로 찬란한 민족 문화를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2003년 태백문화원 화보



제6대 김강산 태백문화원장 취임식



2003년 제1기 태백문화학교 수료식



해외문화교류 중국여행(태백문화원 이사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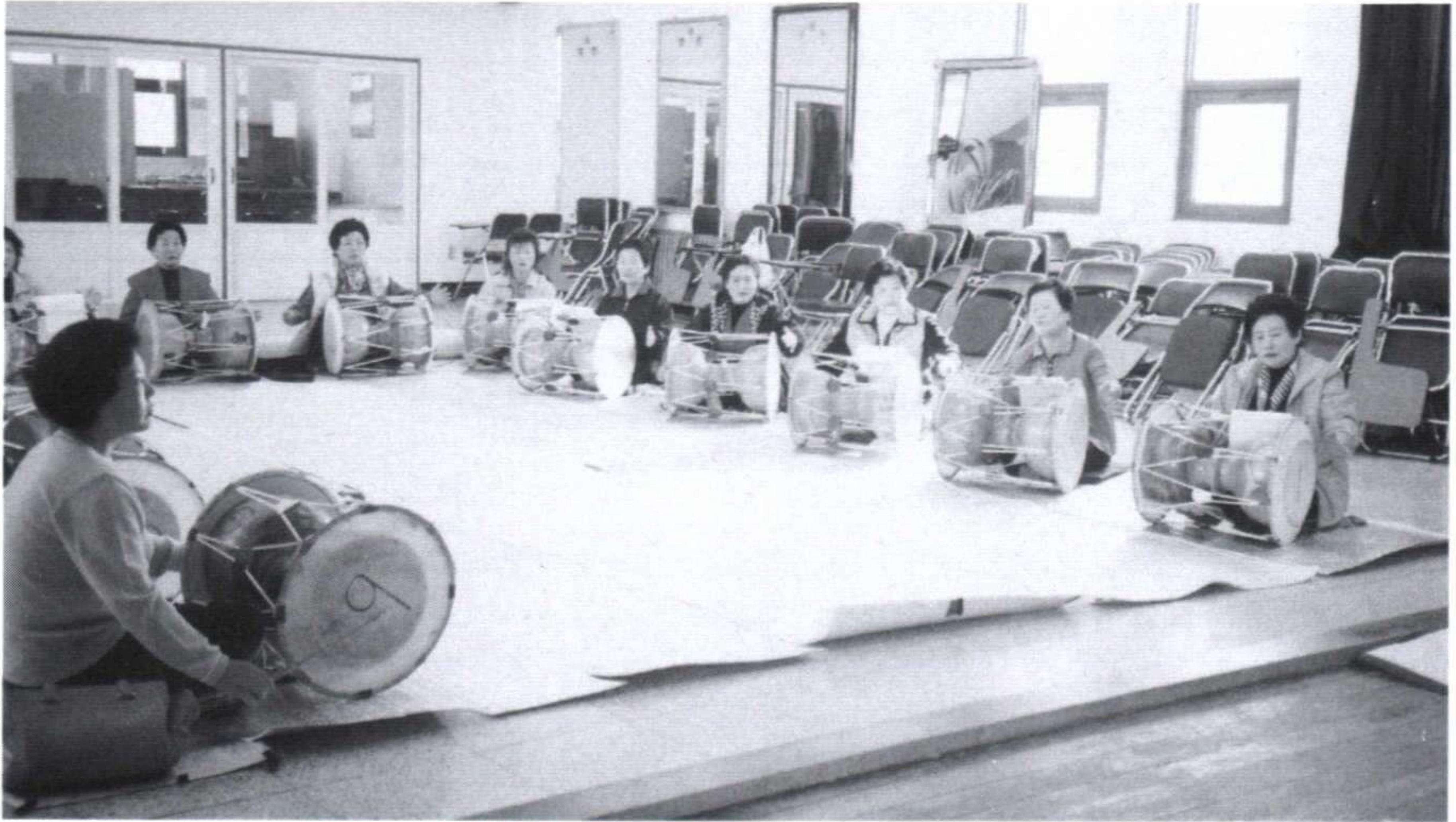
태백문화학교 수료생 작품전시회



문화유적지 순례 (여주 도자기엑스포)



18회 태백시 남·녀 백일장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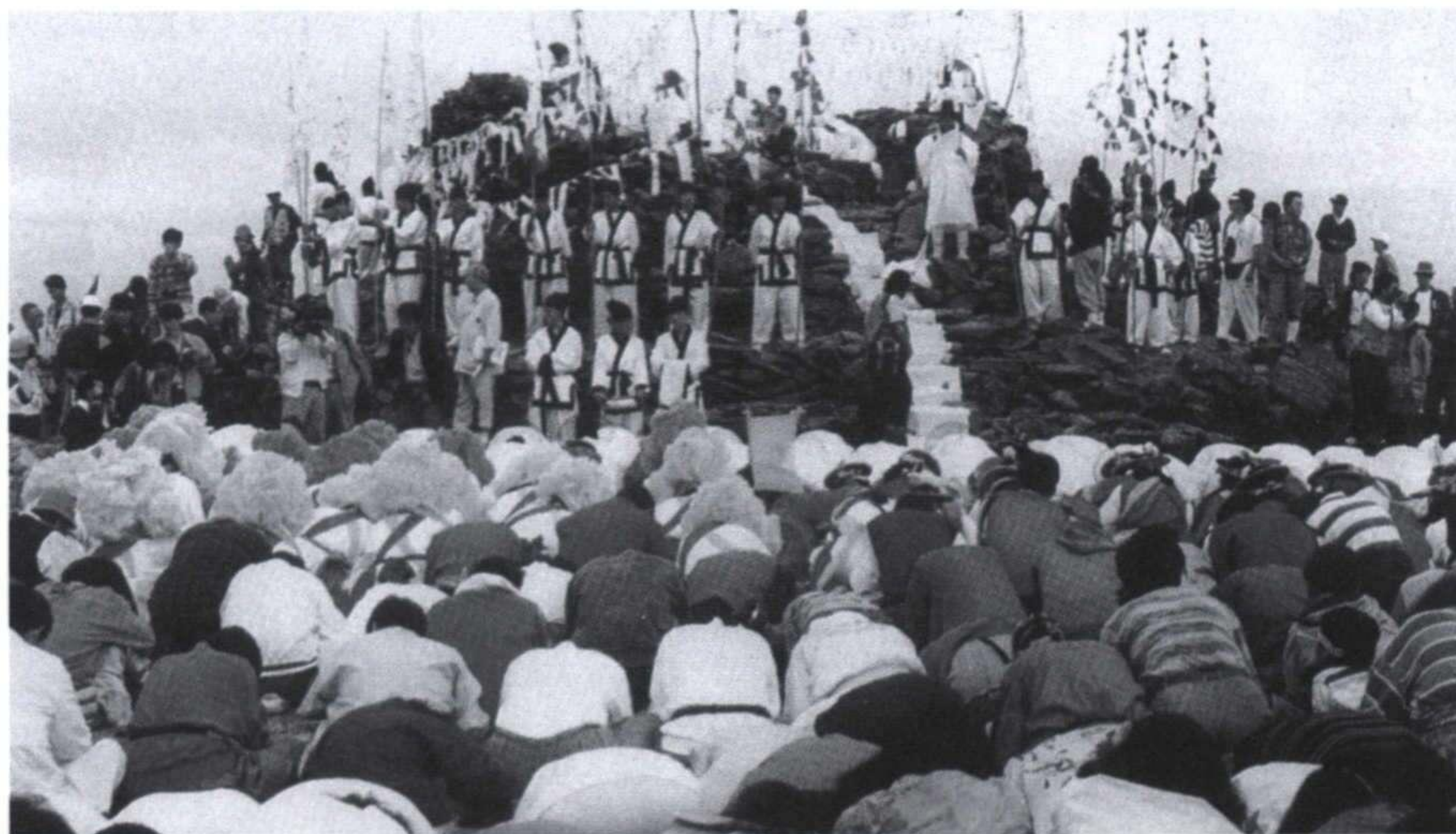
국악교실 수업광경



풀피리(초급)연주회



낙동강 발원지



천제 봉행



제11회 전통향토음식 솜씨자랑대회



한강대제 광경

태백문화원 17집

차 례

◆ 문예중흥선언	1
◆ 문화유산헌장	3
◆ 2003년 문화원화보	4
◆ 차 례	10
◆ 발간사	김강산 / 14
◆ 재미년 향토문화소식	김경진 / 19
◆ 화전농경사	김강산 / 37
◆ 관광 태백으로가는 방안 모색	송은영 / 71
◆ 태백의 미래	박인수 / 81
◆ 폐광지역주민의 희망	
• 강원남부주민(주) 소개	안정규 / 94
◆ 새로운 농업의 도전 유리온실	방병국 / 103
◆ 물의 도시 태백	장성일 / 110
◆ 신년고언	이장섭 / 119
◆ 중국역사 기행을 다녀와서	
• 서안 · 장가계 역사기행	장화윤 / 126
◆ 이제는 말한다	
• 검룡소의 발견	김강산 / 146

표지사진 : 연풍정

◆ 제18회 태백시 남·녀백일장	167
-------------------------	-----

△중등부

「시」 추 억 ॥ 김현지
 남원땅 ॥ 윤수지
 유월은 ॥ 김보연
 비 상 ॥ 전아름
 편견의 그네 ॥ 양윤영

△고등부

「시」 내마음신고 ॥ 홍현주
 신이주신희망 ॥ 김은혜
 붉은색 그네 ॥ 양지현
 그 네 ॥ 신근영
 내마음의 희망 ॥ 우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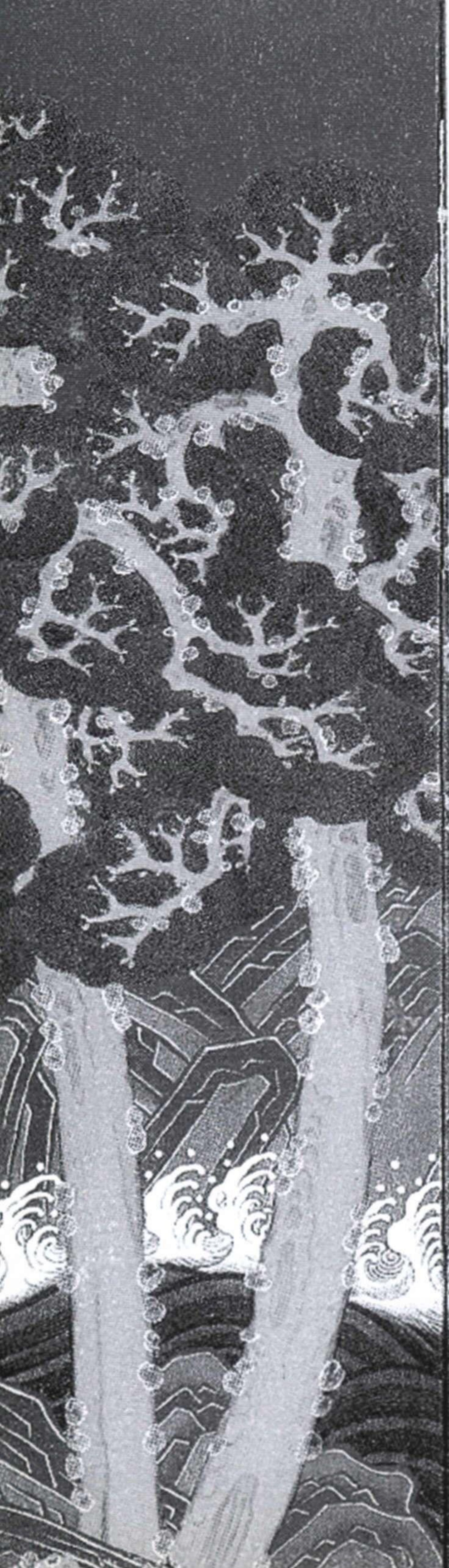
「시조」 아프리카.. ॥ 임은경
 그 네 ॥ 김유희
 향수그네 ॥ 박진영
 우물안이슬픈.. ॥ 강석희
 추 천 사 ॥ 이지연

「시조」 내꿈담은그네 ॥ 최미선
 춘화향기 ॥ 최용
 그 네 ॥ 이영신
 동아줄 끊어지.. ॥ 김나리
 수업중의몸부림 ॥ 윤관용

「산문」 사라져가는정 ॥ 이수연	「산문」 사랑을 이어주... ॥ 신지혜
우리집의 희망 ॥ 이지연	추 억 ॥ 장혜선
그네를 타면엄마.. ॥ 김유희	담쟁이 ॥ 강성희
우리가족의희망 ॥ 임은빈	하늘위로날아올.. ॥ 오민환
도 약 ॥ 최윤빈	언덕을 넘어서 ॥ 천명란

◆ 태백문화원 연혁	224
------------------	-----

◆ 태백문화원 임원 및 회원명단	226
-------------------------	-----



태백문화

제17집

태백문화원



발간사

문화시민이 문화도시를 만든다

고원관광휴양체육도시로 가겠다는 길고도 거대한 표어를 내건 태백시, 일부 체육시설을 제외한 다른 그 어떠한 내용도 진척되어 가는 바는 별로 없다. 그리고 시간도 그리 넉넉한 편도 아니다.

한시법인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그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관광휴양체육도시는 가능한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12·12 권기로 정부와 합의된 사항으로 매년 몇 백 억씩 받는 돈을 진정 관광개발을 위해 쓰지는 않고 도로라던가 사회 간접시설에 투자하고 있다.

도시가 발전하려면 도로망 시설이 좋아야한다는 것은 초등학생 정도면 인식하는 일이다. 도로개설, 물론 해야한다. 그러나 선후가 바뀌었다. 급하지도 않는 도로개설에 수백 억씩 쏟아 붓고 관광자원개발과 휴양시설 투자를 등한히 한다면 촉박한 여건에 시달리는 태백시의 장래가 걱정된다.

도로가 좋아야 투자자가 몰려온다는 것인데, 그것은 대도시에서 태백으로 오는 38국도 같은 외곽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그것은 국가가 해야 한다.

우리 태백시는 그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지역의 관광개발과 휴양시설 체육시설에 투자하여 어떻든지 고용효과를 늘려 한사람이라도 붙잡아야지 사람도 별로 다니지 않는 도로에 거액을 쏟아 부으며 선후를 가리지 못한다면 사람 다 떠나고 나서 뭘 어찌겠다는 것인가?

이것은 단적으로 개발과 투자해야 할 대상을 찾지 못해 손쉬운 도로공사나 한다는 여론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태백시는 몇몇 기득권자들이 움직이는 그런 동네가 아니다. 모두가 뜻을



김 강 산
(태백문화원장)

모우고 서로를 인정하고 화합할 때 좋은 생각과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태백의 미래는 밝아질 수 있는 것이다.

權力은 十年, 教育은 百年, 文化는 千年이란 말이 있다.

文化활동은 오늘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천년을 내다보는 미래 지향적인
안목이 있어야 하겠다.

태백시를 문화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시민들도 文化市民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깨달아 그것을 다듬고 가꾸고 지켜나가는 일들에 최
선을 다할 때 비로소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가치 있는 우리것들이 구슬처럼 사
방에 널려 있으나 그 가치를 모르고 주워 닦지 않고 방치하며 꿰지 않는다
면 그것은 돌맹이와 다를 것이 무에 있겠는가?

옥과 돌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과 그것을 구별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문
화를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차이와 같고 그 고장의 미래를 밝히느냐 암울하
게 하느냐와 같은 것이다.

튼튼한 우리문화를 저변에 깔고 관광도시로 가야지 손쉬운 모방문화와
저급한 자극적 문화의 무분별 도입은 결국 지역의 정체성을 잃게 하고 정
신적으로 멍들게 할 뿐만 아니라 과연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도 괜찮은 도
시라 하겠는가

2003년도 

계미년(癸未年) 향토문화소식



계미년(癸未年)향토문화소식

김 경 진
태백문화원 간사

■ 제10회 태백산 눈축제

한겨울 은빛 설경속에 펼쳐진 제10회 태백산 눈축제가 1월 18일~1월 26일까지 9일간 태백산 도립공원을 비롯하여 각 행사장에서 열렸다.

KBS홀에서 열린 전야제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 눈축제는 등반 대회를 비롯, 태백산 눈조각경연대회, 광차눈미끄럼틀타기 등 13가지의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으며 19일 오궁썰매타기대회와 24일~26일 로또배전 국개썰매대회 25,26일 설상축구대회등 관광객의 흥미를 돋구기도 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등 이번 축제는 분위기와 묘미를 물씬 풍겨내는 축제로 이어졌다.

■ 탄광촌 어린이 마술공연

전국진폐재해협회(회장 정훈용)는 1월 29일 진폐복지회관에서 탄광촌 어린이 초청마술 공연과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펼쳤다.

마술공연 신년맞이 매직콘서트로 시작한 행사는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와 불우이웃에게 쌀과 연탄을 지원해 주었다.

■ 장학서적 35권 발간

태백교육청이 3월 19일 지역 내 초·중학교 연구 담당교사 75명이 지난 1년 동안 집필한 장학서적 35권을 발간했다.

서적별로 100~300부씩 발간된 장학서적은 ‘태백에서 화랑이 자라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힘이 자랍니다’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자기언어로 표현합니다’ 등 학생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심어주고 올바른 생각과 표현법을 익히는데 지름길을 열어줄 책들을 펴냈다.

■ “태백이야기전” 전시회 개최

태백시 이야기를 화폭에 담은 전시회가 4월 1일~5월 20일까지 태백석탄 박물관내 관람동선에서 “태백이야기전” 전시회가 개최 되었다.

태백석탄박물관이 주최하고 태백미술작가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태백을 배경으로 한 작품 수채화, 양화, 서예, 조각작품 등 40여점을 선보였으며 지역예술 문화발전을 도모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 철암 어린이 도서관 개관

철암 어린이 도서관 개관식이 4월 4일 철암동 현지에서 주민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건평 20평 규모로 개관된 철암 어린이 도서관은 도서 5,000여 권을 갖췄으며 40여명을 동시 수용 할 수 있어서 앞으로 꿈나무들이 미래의 꿈을 가꾸어 나갈 터전이 되었으면 한다.

■ 2003학년도 제1기 태백문화학교 입학식

2003년도 제1기 태백문화학교 입학식이 4월 7일 오전 10시 태백문화원 강당에서 수강생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태백문화학교 수강과목으로는 국악교실, 한문교실, 도자기교실, 주부노래교실, 스포츠댄스교실, 종이접기교실, 가야금교실, 테디테어교실 등 총 9개 강좌로 3개월 과정이다.

■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

농아인협회 태백시지회 사랑의 수화 교실이 지난 9월부터 사랑의 수화교실을 운영해 이번 4월 14일 제3기 4개월 과정에 들어갔다.

초급반·중급반 등 2개 반에 걸쳐 2시간씩 지회 사무실에서 열렸으며 태백소방서와 황지여중 등 기관 단체에도 사랑의 수화 교실을出張 개설, 장애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안내해 주고 있다.

■ '6代' 문화원장 취임

태백문화원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김강산씨가 5월1일 제6대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전 문화원 사무국장으로 태백문화원에 20년 근무한 김강산 원장은 남다른 애향심과 정열로 소신을 가지고 향토문화에 애착심을 가져 문화의 많은 활동을 벌여왔으니 모두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 할 것으로 본다.

■ 제13회 청소년 건전가요 경연대회 개최

제13회 청소년 건전가요 경연대회가 5월 23일 오후 1시 30분 KBS 태

백방송국 공개홀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번 경연대회는 태백시 관내·중고 고교생 17개팀이 참가하여 유감 없이 노래실력을 발휘했으며 시장, 시의장, 교육장, 한국자유총연맹태백지부 등 다수의 내빈과 2천여명 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축하공연으로 풀피리연주회(태백문화원장김강산), 휘파람노래(귀순가수 김영복)등이 불러져 이색적인 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 낙동강 발원제

제1회 낙동강 발원제가 6월4일 오전10시 황지(黃池)에서 열렸다.

낙동강 발원지인 황지에서 태백문화원이 주최하고 한국예총태백지부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시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용신제를 올렸다.

이날 행사로 물동이이고달리기, 물빨리길어올리기, 물지게지고달리기, 각설이타령대회 등이 열렸다.

처음 시작하는 대회인 만큼 조금은 서툰면도 있었으나 삼척MBC 방송국에서 촬영하는 내내 함박 웃음과 즐거움으로 한껏 돋보이는 대회가 되었으며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던 행사였다.

■ 제18회 남·녀 백일장대회 열려

태백문화원이 주최한 제18회 남·녀 백일장 대회가 6월 5일 태백산 도립공원 광장에서 열렸다. 시 관내 중·고등학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는 색다른 시제(휴대폰,희망,그네)였으며 시·시조·산문 부문으로 나누어 중·고등부에게 각각 시상했다.

▲ 중등부

시부문 장원 김현지 차하 윤수지 김보연 차상 전아름 양윤영

시조부문 장원 임은경 차상 김유희 박진영 차하 강석희 이지연

산문부문 장원 이수연 차상 이지연 김유희 차하 임은빈 최윤빈

▲ 고등부

시부분 장원 홍현주 차하 김은혜 양지현 차상 신근영 우지은

시조부분 장원 최미선 차상 최 용 이영신 차하 김나리 윤관용

산문부문 장원 신지혜 차상 장혜선 강성희 차하 오민환 전명란

■ 태백산 철쭉제 개최

6월이면 태백산 정상에는 화사한 철쭉이 주목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며 천제단 일대와 장군봉, 부쇠봉 일대에 이르기까지 화려한 분홍빛으로 물드는 제18회 태백산 철쭉제가 6월 5일~ 8일까지 4일간 태백산 도립공원 일대에서 개막되어 철쭉과 고생대 화석, 카지노 시연, 팔도사투리경연대회 등 25개 부문으로 어우러진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첫날인 5일은 전국 물 사진 전시회와 향토음식장터, 카지노 시연, 각테일 쇼 등을 개막으로, 6일은 철쭉음악회,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모듬북, 사물놀이 등 공연 되었으며 7일 모든 사람들에게 사투리의 익숙함과 옛정이 발휘된 팔도사투리 경연대회가 펼쳐져 조봉익(카지노경영학과)학생이 대상의 영광을 누리기도 했으며 8일을 끝으로 태백산 등반대회, 향토음식 솜씨자랑대회, 관광객 장기자랑, 캠프토제닉을 끝으로 즐거움과 낭만을 한껏 맛볼 수 있었던 철쭉제는 다채로운 행사로 막이 내렸다.

■ 제11회 전통향토음식솜씨자랑대회

태백문화원이 주관하고 태백산철쭉제위원회 후원하는 제11회 전통향토음식솜씨자랑대회가 6월 8일 오전10시 태백산 도립공원 당골 광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각 25개조팀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경연을 펼쳤으며 이번 대회는 독특하게 강원관광대학 학생들이 많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관광대학학생 이수주 학생이 영광의 상을 받기도 했다.

- ▲ 「으뜸상」 이수주 ▲ 「버금상」 박철성 나현경
- ▲ 「솜씨상」 이필녀 황순옥 박훈남
- ▲ 「장려상」 주길자 이태순 장옥순
- ▲ 「노력상」 김태완 신영자 유화순 권길자 박순자
- ▲ 「별미상」 장석녀 심금랑 김옥성 김노미 김윤자
- ▲ 「진미상」 김병숙 김순갑 박희성 노정희 김은정 이선화

■ 태백 여성 영화 축제 열리다

태백 여성 영화 축제가 7월 3일부터 4일(2일간) 태백시청 대회실에서 열렸다.

‘황홀경’ ‘백일몽’ ‘할머니의 노래’ 등 여성의 정체성과 가족애를 주제로한 14편이 상영되었다. 이번 영화제는 영화별 제작 감독을 초청 여성 영화의 의미와 제작 동기 등을 전해듣는 한편, 영화제 관람 후엔 감상문을 공모하여 최우수, 우수, 장려 등 3편을 시상하기도 했다.

■ 제1기 문화학교 수료식

2003년도 제1기 문화학교 수료식이 7월7일 오전10시경 문화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3개월 과정으로 국악교실, 테디베어교실, 도자기교실, 스포츠댄스교실, 주부노래교실, 한문교실, 칠보공예교실, 종이접기교실 총8과목 강좌를 실시한 문화학교는 200여명이 수료를 마쳤다.

■ 풀피리(초금)연주회

풀피리(초금)연주가인 김강산 태백문화원 원장은 7월24일 오후 2시 태백문화원 강당에서 풀피리 연주회를 열었다.

스파르필립을 비롯한 여러 가지 풀잎과 꽃잎으로 정선아리랑, 밀양 아리랑 등 민요, 가요, 가곡 동요 총20여 곡을 연주해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날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풀피리 연주만이 아닌 찬조 출연한 가야금연주와 단소소리도 풀피리연주 만큼이나 큰 박수와 멋을 느끼게 해주는 시간도 되었다.

■ 스포츠카 경주대회

포물러 스포츠카들의 무한 속도 축제인 AFOS코리아 자동차 경주대회가 7월22일~24일 국내 최대 규모 모터 스포츠 경기장인 태백준용서킷에서 열렸다.

태백의 모터스포츠 프로모션 사인 KFOS(주)가 유치한 이번 대회엔 포물러 17대, 포르세 까레라 15대, 투어링카 17대 등 동남아 7개국의 모터스포츠카 49대가 출전,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 태백문화예술과 개관

태백문화예술회관이 7월 25일 완공되었다.

건축 연면적 1,600여평 규모와 대공연장 796석, 전시동 야외 무대 등으로 문화예술회관이 갖춰졌으며, 개관 축하 행사로 지신밟기, 풍물놀이, 사진전시회, 철암예술축제 등 9개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 태백산 쿨 시네마 페스티벌 개최

해발 920M 태백산자락에서 한여름 더위를 피하고 대자연을 스크린 삼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영화를 감상하는 대형 스크린 쿨 시네마 페스티벌이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COOL이벤트와 여름축제 영화가 개최되었다.

개막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사물놀이, 아카펠라, 여성5인조25그룹, 최강의 힙합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으며 살인의 추억, 니모를 찾아서, 폰부스, 매트릭스2, 동갑내기과외하기, 자니잉글리쉬, 엑스맨2, 미녀삼총사, 주온, 헐크 등이 상영되었다.

여름의 시원함을 한껏 맛볼 수 있었던 이번 영화는 외지관광객과 태백시민이 어우러진 멋진 추억의 볼거리도 빠져들어 호응도 매우 높았다.

■ 제7회 한강대제 열린다.

한강의 발원지로 국토의 뿌리땅인 태백의 의미를 되살리고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먹으며, 물의 중요성을 체험하게된 이번 한강대제가 8월 3일 오전11시 한강의 발원지인 창죽동 검룡소에서 태백문화원이 주최하고 한국상록회황지지회의 주관으로 열렸다.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용신제를 시작으로 펼쳐진 이번 행사는 물 많이 먹기, 물빨리먹기, 숨오래참기 대회로 진행되었으며 모든 관광객들에게 비빔밥을 대접하여 호응을 얻기도 했다.

■ 2003년 제2기 문화학교 운영

태백문화학교(학교장 김강산)에서는 제2기 수강생을 모집하여 9월초부터~12월초까지 3개월 과정의 교육에 들어갔다.

국악교실, 칼라믹스교실, 도자기교실, 한문교실, 스포츠댄스교실, 테디베어교실, 칠보공예교실, 주부노래교실 외에도 이번 학기엔 처음 실시하는 중국어교실, 토들어동작놀이교실도 선보였으며 총11과목의 강좌를 3개월 코스로 운영했다.

■ 용연동굴 야간개장

용연동굴은 해발 920m로 국내 최고 고지대로써 기온이 섭씨10°도 가량으로 서늘 한데다가 석순과 종유석등 석회석 2차 생성물이 즐비, 피서철 인기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는 용연동굴은 여름을 맞이하여 오후 6시까지 개장하던 시간을 7월15일~8월25일까지 시간을 조정해 10시로 변경했다.

■ 제2회 태백산기 전국 중·고 핸드볼 대회

7월18일 제2회 태백산기 전국 중·고 핸드볼대회가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각 지역의 중·고 핸드볼팀이 참가 열띤 경기를 치른 결과 여고부에 인천여고를 37대 25로 황지정보산업고가 우승을 차지, 남중부에서는 창원중앙중을 28대 21로 따돌려 태백중이 정상에 오르는 영광을 누렸다.

■ 태백시 관광홈페이지 새단장

태백시관광홈페이지가(<http://www.seecom.es.com>)새롭게 새 단장을 했다.

새롭게 홈페이지가 개선되면서 여행안내 문의란, 불편사항 신고란 등 관광객들을 위한 의사소통 페이지 개설 관광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으며 한글 외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관광사이트도 별도 개설, 시각 장애인과 어린이를 위한 사이트로 운영되고있다.

■ 함백산 드라이브 인기

해발 1,572m인 함백산은 울들어 서학골 입구에서부터~함백산 고지대 훈련장도로까지의 노퍽을 5m 가량으로 확장함에 따라 피서 관광객들이 대거 몰려와 함백산 드라이브코스가 피서객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한여름에도 서늘하게 느껴지는 산바람을 즐기며 야생화 촬영을 하는 등 이색피서를 즐기기도 하며 낭만을 느끼고 있어 버금가는 관광명소로 부상 되길 기대해 본다.

■ U대회 성화 입성

8월21일 대구에서 열리는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밝혀 줄 성화가 18일 태백시에 입성했다. 주자로 나선 강원랜드에 근무하는 임채진 씨가 시내를 돌았다.

■ 사랑의 송편만들기

9월6일 태백적십자봉사회 · 작은손회 · 한국어린이 육영회 태백지회 · 태백

지역봉사단체회원등 장애인 독거노인을 위한 불우이웃 50세대를 위한 송편이 전달됐다.

갓가지 속을 듬뿍 넣어 독거노인들의 입맛에 쏙 들도록 했으며 만들어진 송편은 사랑의 손길이 독거노인, 불우이웃에게 더할 나위 없이 사랑이 미치는 정이 기도 했다.

이날 송편을 빚은 회원들은 송편 빚기 운동을 정례화 시키기로 했다.

■ 태백진폐위령각 준공식 및 위령제

진폐로 광원들의 영령을 추모키 위해 건립된 진폐위령각 준공식 및 위령제가 9월 25일 태백시 창죽동 산업전사 위령탑 옆 현지에서 열렸다. 이날 준공식과 위령제에는 국회의원, 시장, 기관단체장, 진폐재해자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희생정신을 기렸다.

■ 강원관광대 학장 취임

10월2일 오전11시 대학본관 3층 미디어실에서 교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대 학장(동선호)취임식을 가졌다.

■ 태백산 천제(天祭) 올리다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민속문화를 계승발전 시키고자 하는 향토 축제이자 시민축제인 단기 4336년 10월 3일(개천절)천제가 오전11시 태백산 정상 천제단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천제가 봉행 되었다.

태백산천제위원회(위원장 김강산)주최하고 태백라이온스클럽이 주관한 범민족적인 제사로서 해마다 올려지고 있다.

이날 태백산 정상에는 뜻있는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영신굿 강신 진설

참신 주유 현작 고천 송신 소지순으로 의식이 행하여 졌으며, 종교와 상관 없이 누구나 참가가능 하다는 태백산 천제는 한민족은 하나임을 고하는 제사인만큼 전국적인 행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 제2회 배달바둑 한마당 축제

강원일보사와 한국기원이 공동주최하고, 태백시와 강원도 바둑협회 등이 후원하는 제2회 배달바둑 한마당 축제가 10월 3일~4일(2일간)태백산 정상(천제단)과 당공광장에서 국내 프로와 아마기사들인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대회엔 10대 소년기사로부터 60대 애기가등 100여명이 출전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최고수들이 대거출전한 가운데 하성봉(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7단이 대회 정상에 오르면서 대회다운 면모를 자랑하기도 했다.

■ 순직산업전사 위령제

‘2003년 순직산업전사위령제’가 10월4일 태백시 황지동 산업전사 위령탑에서 순직광원유족 및 주민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산재근로자 사랑의 음악회

제12회 산재근로자 사랑의 음악회가 10월16일 오후4시 태백문화예술회관에서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 본부 주최로 열렸다.

이날 음악회엔 초청가수 김혜연, 최석준 등 연예인들이 대거 무대에 올라 산재근로자들을 위한 한마당 잔치를 벌이기도 했다.

■ 제7회 농업인의 날 기념 농업인 경진대회

10월22일 오전11시 제7회 태백시 농업인 경진대회가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지역농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대회 참가자들은 배구와 줄다리기, 음식솜씨자랑대회 등을 통해 친목을 다지기도 했으며, 또한 농업발전 유공농민과 단체등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 강원관광대학 제8회 카지노 동아리 시연회

강원관광대학 제8회 카지노 동아리 시연회가 10월23일부터 25일까지 대학 관광관 3층 카지노 실습실에서 열렸다.

이번시연회는 대학 카지노 동아리 회원46명 카지노학과 재학생 80명이 공동주관 환상의 카지노 세계를 방문객들에게 안내했으며 바카라, 빅휠, 블랙잭, 다이사이, 룰렛등 완벽하게 소화해 널만큼이나 즐겁고 흥미로운 시간이였다.

■ 문화유적지 탐방

태백문화원에서 주관하는 문화유적지 순례는 회원들의 참여로 10월 24일 오전 8시 문화원을 출발하여 여주 도자기 엑스포를 비롯한 청풍명월문화재단지 등 유적지를 순례했다. 이번 문화유적지순례는 120여명의 문화학교 학교생과 시민의 참여로 이어졌다.

■ 태백관광명소 사진전시 LPD 조명 이용효과 높여

사진애호가인 유인국씨가 2년여간의 연구 끝에 개발해낸 강원도 관광기념품 147호인 LPD(탠드형 조명 액자)와 태백 지역관광자원을 결합, 작품

화시킨 '태백숨겨진 아름다움을 찾아서' 사진전이 11월 1일~25일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 연못에서 열렸다.

이번 사진전은 오후6시~밤 12시까지 야간시간대에 열렸으며,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와 민족의 영산으로 꼽히는 태백산 등 지역의 관광명소들이 LPD의 은은한 조명을 통해 부각되고 있다.

■ 태백 화약공장 기공식

(주)고려벨화약의 태백시 통동 예랑골 화약공장 건설 공사기공식이 11월 17일 오후 2시 공사현장에서 열렸다.

이날 기공식에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회사관계자와 지역주민 등이 참석, 개토식과 불꽃놀이 등 자축행사를 겸하기도 했다.

■ 태백문화학교 제2기 수료식

제2기 태백문화학교 수료식이 12월 1일 문화원 강당에서 열렸다.

국악교실을 비롯한 중국어교실, 칠보공예교실, 농악교실, 한문교실, 테디베어교실, 토들러동작교실, 스포츠댄스교실, 주부노래교실, 도자기교실, 칼라믹스교실등 총 11개 강좌를 실시한 이번 수료식은 200여명이 수료했다.

중국어교실, 토들러어린이동작교실은 새로 개설한 강좌인 만큼이나 좋은 반응과 호응을 얻었던 강좌이기도 하다.

■ 문화학교 수료생 작품전시회

태백문화학교 수료생들의 작품전시회가 12월2일 오전10시 문화원 강당에서 12월5일까지 전시됐다.

이번 전시회에는 칠보공예 50점, 도자기 40점, 테디베어 50점, 칼라믹스 50점 등 200여점이 전시되었으며 이색적인 중국어회화 전시회도 같이 작품을 열어, 작품을 감상하는내내 쉽고도 한눈에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으며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 태백 KBS개국 19주년 기념

KBS태백방송국 개국 19주년 기념식이 12월11일 오전11시 황지동 방송국내 공개홀에서 방송국 관계자와 시청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KBS 태백방송국 기념식 행사 이어 태백문화예술회관에서 축하기념으로 국악관현악단 초청연주회를 벌여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 태백셈프리악단 위문연주회

태백지역 음악애호가 14명이 경음악 연주단인 셈프리 악단이 지난해 2000년 제1회 정기연주회, 2001년 제2회 태백중앙병원 방문한 가운데 올해는 12월 27일 육군 8087부대에 위문공연과 진규폐 환자를 위한 연주회를 펼쳤다.

셈프리악단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기도 하다.

■ 한밤문학 제11호 발간

태백문인협회가 태백을 노래한 '태백문학 제11호'를 출간했다.

이책에는 석탄의 도시 태백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으나 석탄을 통해 태백시와 태백인이 이뤄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작품들이 실렸다.

한밤문학 제11호엔 시인장국치 '월광'초대시를 비롯 회원들의 작품이 실

렸으며, 태백문화원협회장(정연수)이 쓴 논문 '부조화한 현실과의 갈등극복
양상'등을 함께 싣고있다.

■ 태백문화원 홈페이지 구축

태백문화원 홈페이지(<http://www.태백문화원.com>)를 새롭게 새단장
했다.

태백문화의 정체성과 역사와 미래를 알고 배우면서 쉽게 해석해 놓은 우
리고향태백, 태백의 어제와 오늘, 호식장, 백경문 등 다양내용들로 구성되
어있으며 방문객을 위한 관광자원, 자유게시판 문화행사일정 등으로 한발
더 나가는 홈페이지를 만들어냈다.

문화원 논문단

- 화전농경사 김강산 / 37
- 관광태백으로가는방안모색 송은영 / 71
- 태백의 미래 박인수 / 81
- 폐광지역주민의 희망
 - 강원남부주민(주) 소개 안정규 / 94
- 새로운 농업의 도전 유리온실 방병국 /103
- 물의 도시 태백 장성일 / 110
- 신년고언 이장섭 / 119
- 중국역사 기행을 다녀와서
 - 서안·장가계 역사기행 장화윤 /126
- 이제는 말한다
 - 검룡소의 발견 김강산 /146



화전농경사(火田農耕史)



김 강 산
태백문화원장

1. 화전(火田)의 역사(歷史)

화전(火田)농사는 산야(山野)에 불을 지르고 그곳을 파 일구어 아무런 거름을 사용하지 않고 불에 탄 나무나 풀의 재와 기존의 땅심만으로 농사를 짓는 것으로 지력(地力)이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 또 불을 질러 개간(開墾)하며 농사를 짓는 이동식(移動式) 착취농법(擄取農法)이다. 대개 해발 400m~1500m 사이의 산지(山地) 비탈면에 밭을 일구게 되는데 좀 좋은 곳은 경사가 10~20도 정도이나 조건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거의 30~40도 되는 곳에서 밭을 일구기도 한다.

화전(火田)은 가장 원시적인 농법으로 인류가 수렵사회에서 농경사회로 바뀔 때 화전으로 시작하였을 것이다. 처음 자연적으로 산이나 들에 불이

났을 때 그곳에는 부드러운 산채 등이 돌아났을 것이고 그것을 채취하여 먹으면서 불이 난 산야에는 새로운 먹거리가 생겨나는 이치를 깨달았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일부러 불을 지르고 그곳에 곡물의 씨앗을 심어 수확하여 먹었으며 지력이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또 화전을 하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법이 처음에는 다 화전(火田)이었고 농사라고 하면 으레히 화전(火田)이었던 것이며, 사람들이 한곳에 정착하면서 처음 한번만 화전(火田)이고 그 다음부터는 지력보강을 위해 땅에 거름을 하며 정착농경이 되면서 화전(火田)은 별개의 농법으로 생각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래서 인지 기록상으로 조선조 세종실록에 비로소 화전(火田)이란 용어가 나오고 그전에는 화전(火田)이란 용어가 사서(史書)에 없는 것으로 봐서 조선조 이전에는 화전(火田)농사와 일반농사의 확실한 구분이 없었던 것 같다.

삼국시대(三國時代)나 고려조(高麗朝)에서는 화전(火田)이 기본이었기에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단지 산(山)이나 들(野)이나를 따져 산에는 산전(山田)이라 하고 들에는 평전(平田)이라 하는 구분이 있었던 것 같다. 지금도 살아있는 화전민(火田民)들에게 물어보면 화전(火田)을 산전(山田)으로 부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서(史書)에 산전(山田)이란 말이 나오기는 고려시대에 비로소 등장하는데 고려사(高麗史)의 문종(文宗) 8년 3월 조에 보면

“무릇 전품(田品)은 불역지(不易地)로써 상(上)을 삼고 일역지(一易地)로써 중(中)을 삼고 재역지(再易地)로써 하(下)를 삼는데 그 불역산전(不易山田) 1결(一結)로써 평전(平田) 1결(一結)에 준(准)하고 일역전(一易田)

2결(二結)로써 평전(平田) 1결(一結)에 준(准)하며 재역전(再易田) 3결(三結)로써 평전(平田) 1결(一結)에 준(准)하게 하였다.”¹⁾
라고 하였다.

그때만 해도 땅심 좋은 산전(山田)은 평전(平田)과 다름없이 수확할 수 있었기에 그런 산전(山田)을 불역산전(不易山田)이라 하고 평지에 있는 평전(平田)과 같은 조세(租稅)를 부과하였던 것이다. 옛날에는 사람이 들판 보다는 산등성이에 많이 살았다. 들판과 같이 낮은 곳은 습하여 농사가 잘 되지 않고 산등성이나 산 중턱 같은 곳이라야 햇볕이 잘 들고 배수가 잘되며 농사가 잘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화전(火田)이니 산전(山田)이니 하는 구분이 없고 의례적으로 농사는 산에서 짓고 불을 질러 밭을 만드는 것은 너무도 당연했던 것이다.

농토에 세금을 부과하던 조세(租稅)에 관한 기록은 삼국시대에 이미 나오는데 백제(百濟) 다루왕(多婁王) 3년(서기 30년) 조에 보면 말갈과의 싸움에서 이긴 흘우에게 말 10필과 조(租) 500섬을 상으로 준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기록상 처음 나오는 전조(田租)이다. 조(租)라는 것이 단순히 곡식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나라에서 농민에게 거두는 세금 곧 전조(田租)를 뜻하는 것이다. 공(功)이 있는 사람에게는 조세(租稅)로 거둔 곡식(租)을 주기도 하지만 그 조세를 거두는 지역을 식읍(食邑)으로 주기도 한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보면 백제 다루왕(多婁王) 6년(서기33년)에 처음

1) 文宗八年三月判凡田品不易之地爲上一易之地爲中再易之地爲下其不易山田一結准平田一結一易田二結准平田一結再易田三結准平田一結

논을 만들게 한 기록이 보이는데

“6년 봄 정월에 맏아들 기루를 태자로 삼고 크게 사면하였다. 2월에 나라 남쪽의 고을에(州郡) 영을 내려 처음으로 논(稻田)을 만들게 하였다”²⁾

라고 하였으니 백제에는 그 전에는 벼농사가 없었거나 본격적으로 벼가 재배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조(租)를 주었다면 그것은 밭곡식이었을 것이고 주식은 쌀이 아닌 일반 잡곡, 특히 좁쌀(租粟)이 주식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뒤 백제의 고이왕(古尔王) 15년(서기248년) 조에 보면

“봄과 여름에 가물었다. 겨울에 백성들이 굶주렸으므로 창고를 열어 진휼하고 또 1년간 조(租)와 조(調)를 면제해 주었다.”³⁾

라고 했고, 신라에서도 나물이사금(奈勿尼師今)조에 보면

“재위 42년(서기397년) 가을 7월에 북쪽변방 하슬라(강릉)에 가뭄과 누리의 재해가 있어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렸다. 죄수를 살피서 사면하고 1년의 조(租)와 조(調)를 면제해주었다.”⁴⁾

는 기록이 나온다.

여기에서 조(租)와 조(調)를 면제 해 준 것의 조(租)는 일년간 농사를

2) 六年春正月立元子己婁爲太子大赦二月下令國南州郡始作稻田

3) 十五年春夏旱冬民饑發倉賑恤又復一年租調

4) 四十二年秋七月北邊何瑟羅旱蝗年荒民飢曲赦囚徒復一年租調

지어 10분의 1을 나라에 바치는 현물의 곡식을 뜻한다. 이때 걸곡식을 바치는데 걸곡식을 바쳐야 보관이 오래가고 먹을 때 비로소 도정(搗精)하여 쓰는 것이다. 조(調)는 각 호(戶)마다 부과하는 일정한 량의 베(布)를 바치는 것을 뜻하는데, 조조(租調)는 먹거리와 입을 거리를 나라에서 거두는 세금인 것이다.

삼국초기 이전에는 주로 화전(火田)또는 산전(山田)에 의지하여 밭작물이 주종을 이루다가 삼국초기에 남쪽으로부터 벼농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동안 평야지대는 황무지나 습지로 버려져 있었던 것을 논(畓)이라는 새로운 농토로 바뀌면서 농사에 일대변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논농사의 시작은 남방인(南方人)의 일부 이주가 있었거나 남방(南方)으로 부터 벼농사 법을 도입하였거나 일 것이다. 사실 화전은 북방민족의 농사법이다. 남방에서 수입된 벼농사의 권장 때문에 상대적으로 화전(火田)이나 산전(山田)은 줄어들면서 산과 구릉(丘陵)에는 맹수와 숲이 얼크러져 차츰 사람이 적게 살게되고 산에서 살던 사람들은 들로 내려 살게 된다.

물(水)과 불(火)은 서로 상극(相剋)이다. 수전(水田:畓)은 물로써 농사를 지으니 불(火)이 필요 없고 산야(山野)를 태울 일이 없어진다. 그리고 수전(水田:畓)을 일군 사람들은 차츰 정착농경(定着農耕)으로 변하면서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 고정(固定)하게 되고 주식(主食)을 차츰 잡곡에서 쌀로 바뀌면서 그들은 특권층이 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화전(火田)을 하는 사람들은 고정된 농토가 없으니 이 산 저 산으로 옮겨 다니면서 불질을 해야하고 거친 잡곡을 먹으며 험한 자연환경과 싸워야하는 이중고(二重苦)를 겪으면서 소외된 하급계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통일신라(統一新羅)이후에는 낮은 평야지대의 습한 땅은 거의 논으로 변

하였고 산간 계곡에도 물이 흐르는 곳이면 논을 만들었으나 중부 이북지방의 높은 곳에는 그래도 산전(山田)이 많았다.

고려시대에는 토지개혁을 위하여 개간지에 면세조치를 취함으로써 내 땅 없는 백성들은 너나 없이 화전(火田)을 일구게 되니 화전민(火田民)들이 많이 생겨났다. 몇 백년간 묵어 있던 산에 나무를 베고 불을 질러 밭을 일구니 땅심이 좋아 평지의 밭 보다 수확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고 급기야 나라에서 불역산전(不易山田)은 평전(平田)과 같은 세금을 물렸던 것이다.

화전(火田)이란 용어가 사서(史書)에 처음 나오는 것은 조선조(朝鮮朝) 세종 때 인데, 그것도 화전농사(火田農事) 때문이 아니라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화전(火田)을 금해야 한다는 것이니 세종1년 7월28일 유정현이란 사람이 상소를 올려 말하길

“병선은 국가의 중한 그릇이라 배 만드는 재목은 소나무가 아니면 쓰는데 적합지 아니하고 소나무는 또 수십 년 큰 것이 아니면 쓸 수가 없는데, 근래 각도에서 여러 해 동안 배를 만든 까닭에 쓰기에 적합한 소나무는 거의 다 없어졌으므로 소나무를 베는 것을 금하는 것이 이미 법령에 정해 있으나, 무뢰한 무리가 혹은 사냥으로 혹은 화전(火田)으로 말미암아 불을 놓아 연소하여 말라죽게 하며, 혹은 산전(山田)을 개간하거나, 혹은 집을 짓거나 해서, 때없이 나무를 베어 큰 재목이 날로 없어져 가게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로써 조선조 왕조실록에 처음으로 화전(火田)이란 말이 언급되며 그

화전(火田) 때문에 소나무가 많이 훼손되어 화전을 금하게 하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부터의 기록에는 화전(火田)에 대해 과중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생기는 민폐(民弊)와 화전(火田) 경작으로 일어나는 재해(災害)를 줄이기 위해 화전의 금지를 주장하는 의견으로 나뉘는데, 화전(火田)을 못하게 하자니 조세(租稅)가 걱정이고 그냥 두자니 산야가 황폐해지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다. 그래도 산이 많은 강원도와 함경도 등에 화전(火田)이 심했는데, 세종12년 8월에 원주판목사 전흥(田興)과 판관 이수량, 춘천부사 이안경, 회양부사, 간성군수, 평해군사, 평창군사 등이 상소하기를

“땅의 비옥함과 척박함이 각기 다르고, 묵히기도 하고 개간하기도 하는 등 산 위에 화전(火田)의 경작이 몹시 많으므로 그 전대로 손실에 따라 조세(租稅)를 거두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라고 한 것을 보면 화전민(火田民)도 많았지만 화전(火田)에서 거둬들이는 세금도 상당하였던 것이다.

나라가 평안하여 태평시대가 되면 화전민(火田民)은 줄어들지만 시대가 어지러우면 화전민도 늘어났다. 그러나 조선시대 중기로 접어들면서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농토는 한정되어 있고 거기에다 양반과 관리의 횡포와 과중한 조세에 견디다 못한 백성들은 무주공산(無主空山)의 산 속으로 들어가 화전(火田)을 일구게 되는데 산이 많은 강원도나 함경도 말고 경기도 일원에서도 화전(火田)을 일군 기록이 있다.

조선 성종 5년 10월에 전생서 주부(典牲暑主簿) 변철산(卞哲山)이 아뢰기를

“사시(四時)의 사냥은 예(禮)로써 마땅히 거행해야 할 것이고 강무(講武) 할 장소도 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이 양주(楊州) 묘적산(妙積山)의 안팎을 둘러보니, 토지(土地)가 척박(瘠薄)하여 산 밑의 백성들이 능히 생산을 하지 못하고, 봄이면 화전(火田)을 하여 먹고, 겨울이면 땔나무를 해다 팔아서, 먹고 입을 거리를 오직 이 산만 의지하고 사는데, 강무장(講武場)을 설치하고부터는 백성들이 밭갈고 땔나무를 벨수 없도록 금하여 먹고 입을 근원을 끊었으니, 이는 백성으로 더불어 함께 한다는 뜻이 아니기도 하고, 더구나 초목이 무성하여 도적과 모진 짐승의 의지할 곳이 되어 크게 백성에게 해(害)가 되기도 합니다. 청컨대 금령(禁令)을 완화하여 백성의 생업에 자본이 되게 하소서”

라고 하니, 임금이 병조에 명하여 의논케 하고 그 결과를 아뢰라고 하였다. 그러니 서울이 있는 경기도 양주에서도 화전(火田)을 할 정도니 그때는 화전(火田)이 가히 전국적이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나라에서는 화전에 세금을 물리게 되는데 화전이라는 것이 몇 년 농사를 지으면 지력(地力)이 약화되어 또 몇 년간 땅을 묵혀야 되는데 땅을 묵혀도 예년과 같이 세금을 물리니 그 폐단이 심하였다.

급기야 성종 7년 10월에는 호조(戶曹)에서 강원도 순찰사(江原道巡察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임금에게 아뢰기를

“본도(本道)에는 산전(山田)은 많고 평전(平田)은 적습니다. 비록 산 위나 산중턱의 밭이라 하더라도 지세(地勢)가 심하게 가파르지 않고 토질(土質)이 비옥(肥沃)하여 여러 해를 갈아먹는 것은 속안(續案)에 타량(打量)

하여 시행하고 그 나머지 해마다 바뀌가며 경작하는 화전(火田)은 속 안에 기록하지 말고 가을마다 조사하여 경작에 따라 조세를 매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른 기록 있다.

그러니 윤작하는 화전에 계속 세금을 받을 수 없으니 때에 따라 화전을 할 때만 수시로 세금을 부과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지방 관리들이 화전에 임의로 세금을 징수하여 착복하는 사례가 많았으니 한편으로 화전을 엄금 하였지만 모른 척 방조 하기도 하였다. 화전(火田)을 몰래하면 화전죄(火田罪)라 하는데 성종10년에는 충청도 병사를 하던 김서형(金瑞衡)이 화전죄(火田罪)을 지어 파면되기도 했다.

화전으로 인해 산림이 황폐하여 지며 그에 따른 부작용이 심해지자 화전을 금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게 된다. 성종 23년에는 우부승지(右副承旨) 조위(曹偉)가 아뢰기를,

“이른 봄에는 바람이 어지럽게 불고 풀잎이 말라 있으므로, 산불이 번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산에 초목(草木)이 없으면 물줄기의 근원이 마르게 되므로, 농사(農事)에 해가 있습니다. 바야흐로 초목이 생장(生長)할 시기에 수령(守令)들이 산림(山林)에다 불을 질러 놓고 사냥을 하며, 백성들도 화전(火田)을 일구어 경작(耕作)을 합니다. 그래서 재목(材木)까지도 바닥이 나게 생겼으니,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청컨대 법(法)을 만들어 금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그렇겠다. 바야흐로 초목이 생장하는 봄철에 불태워 죽이는 것은 천심(天心)에도 위배되는 것이니, 하서(下書)하여 엄하게 금하도록 하라.”

하였고, 이듬해 성종 24년 11월에 전국의 관찰사들에게 임금이 하서(下書)하기를

“백성들이 화전(火田)을 일구려고 비록 금산(禁山)이라고 하더라도 나무를 모두 베어내 산골(山骨)이 드러나게 하고 삼을 말라붙게 하므로 이미 금단(禁斷)하게 하였으니, 경은 거듭 밝혀 거행하도록 하라.”

하면서 화전을 엄금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화전에서 나오는 세금의 이익에 눈이 먼 관리와 사대부들 그리고 궁가(宮家)에서는 음성적으로 화전민들에게 세금을 거두어가니 그 폐해가 극에 달한다. 인조 7년 2월에 안동부사 민성징(閔聖徵)이 상소하기를,

“산에 있는 화전(火田)은 산골 백성들이 높은 산 비탈진 곳에 나무를 베고 불을 질러 일군 것으로 1년간 씨앗을 뿌리고 나면 두 번 경작이 안 되는 곳이므로 조세 역시 해를 걸러 받아야 하는데 한번 세안(稅案)에 등록되면 다시 삭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화전의 조세의 폐단을 시정해 줄 것을 아뢰었다. 인조 20년에는 정

언 하진이란 사람이 상소문을 올렸는데,

“선을 앞장서서 행해야 할 성균관에서도 또한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더욱 가슴 아픕니다. 요즘에는 또 하나의 명목을 새로 만들어 ‘지리산이십삼봉별장’(智異山二十三峯別將)이라 칭하고 승려와 무당 까지도 다 신포(身布)를 걷고 산골짜기 화전(火田)도 일체구실로 징수하니 이 어찌 성세(盛世)의 일입니까?”

라는 대목이 있으니, 그 ‘지리산이십삼봉별장’이라는 자가 지리산 골짜기마다 돌아다니며 화전민(火田民)들에게 닥치는 데로 세금을 거두었을 것이고 그와 유사한 자들이 별장(別將)이네 감고(監考)네 하면서 전국의 산골짜기 화전민들에게도 일체 구실로 세금을 징수 하였을테니 화전민들의 고생은 말로 다 못할 것이다.

조선조에서는 화전을 금했다가도 일부 허용하고 또 금지하기를 반복하는데, 화전은 진전(陳田)으로 궁가(宮家)의 경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폐지하지 못했으며 왕족의 수가 늘어나면서 바다든 산이든 닥치는 데로 점령하고 세금을 거두었다. 민폐가 심하면 심할수록 화전민은 늘어났고 그들은 더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 산에 불을 놓아 화전(火田)을 개간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조 말기를 지나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도 이어졌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도 화전(火田)의 폐해가 대두되었으나 어찌지 못하다가, 서기 1966년 화전정리법이 제정되면서 화전(火田)정리사업이 전개되었고 서기 1975년 이후 공식적으로 이 땅에 화전농사는 사라졌으나 그후 몇 년간 더 정리된 뒤 완전히 이 땅에서 화전은 사라졌다.

그러나 화전정리를 하면서 화전민들의 생활문화나 화전경작에 따른 화전

농경사를 정리하지 않고 무작정 싹쓸이로 화전(火田)을 없애면서 그것들도 함께 사라져 버린 것이 안타깝다. 수 천년 동안 이 땅에 엄연히 존재하며 ‘農者天下之大本’의 한쪽을 차지하여 굶고 배고프고 서러운 백성들의 삶의 수단이던 화전(火田)을, 정부가 강제로 없앴다고 박수만 칠 일이던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화전농경 문화는 정말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무조건 버려야할 저급 문화였던가? 그러므로 이 땅에는 화전정리사(火田整理史)는 있어도 화전농경문화사(火田農耕文化史)는 사라져 버렸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화전민(火田民)의 후예이자 화전민(火田民)이기도 했던 필자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대략적인 화전농경 문화사를 살아있는 화전민들의 증언과 필자가 본 것을 토대로 정리하는 것이다.

2. 화전경작법(火田耕作法)

1) 택 지(擇地)

화전민(火田民)들은 내 땅이 없는 가난한 백성들로 기존의 정착농경지에서 견디지 못하고 관리나 양반 지주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깊은 산 속 주인 없는 나라 땅(國有地)에 들어가 몰래 나무를 베고 불을 질러 농사짓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전(火田)을 하려면 먼저 화전을 일구기에 적당한 좋은 땅을 찾아 나서야 한다. 사유지(私有地)에서도 화전을 하지만 그것은 드물고 대개 화전민들은 국유림(國有林)속으로 들어가 그것도 관(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깊고 높은 산 속으로 들어가 화전을 일구게 된다.

화전은 해발 400m~1500m에 이르는 산의 중턱이나 계곡의 비탈면을 택하여 이루어지는데 경사(傾斜)가 완만하면 좋으나 그렇지 못해, 대개는 20-30도의 경사지(傾斜地)에서 화전을 하며 심하면 30-40도에 이르는 경사지에서도 화전을 한다. 때로는 해발 1500m 가 넘는 곳에서도 화전을 하지만 운이 좋으면 고원(高原) 평탄면의 분지(盆地)같은 천혜의 화전적지(火田適地)를 만나기도 한다.

그렇기는 하지만 화전의 적지는 평지보다는 경사지가 잘되고 경사지라야 농사일도 편하다. 평지에서 밭을 매면 구부리기 때문에 허리도 아프고 쪼그리고 앉아 일하니 다리도 아프다. 그러나 경사가 심한 화전의 비탈 밭은 앉을 필요가 없고 적당히 서서 한쪽 밭은 아래로 펴 딛고 한쪽 밭은 구부려 위쪽을 딛고 일하니 허리를 쭉 펴고 일하는 모양이 되어 일하는데 덜 피로하다. 화전에서 일하던 사람은 평지 밭에서 일하면 쉬 피로하여 일을 잘 못한다. 그래서 화전은 경사가 져야 일하기 좋다고 한다.

화전을 일굴 땅은 음지나 양지나 다 가능한데 음지에는 음지성(陰地性) 작물을 심으면 되고 양지에는 양지성(陽地性) 작물을 심으면 되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양지쪽 밭을 좋아하나 양지 밭은 가물면 가뭄을 잘 타고 양지성 작물밖에 심지 못한다. 그러나 음지쪽 밭은 햇볕이 잘 들지 않아 나뭇잎이 짙어 가물이 들어도 가뭄을 타지 않아 좋고 감자 같은 작물이 잘 되는 이점이 있다.

화전을 하는 땅은 높은 곳이 대부분이기에 물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화전농사에서 식수(食水)가 가장 큰 요인이 되며, 식수가 확보되지 못하는 곳은 땅이 좋아도 사람이 살 수 없기에 크게 환영받지 못한다. 그러나 땅이 워낙 좋으면 십리 길 오리 길이 되어도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

를 짓는 경우가 있다. 어떠한 곳에서 화전을 일구더라도 집은 되도록 양지 쪽에 짓고 바람이 덜 부는 후미진 곳에 터를 잡는다. 집터도 밭 아래쪽이 좋고 되도록 식수와 가까운 곳에 터를 잡지만 조건이 좋지 않는 곳에서는 500m~1000m까지 가서 물을 길어 먹기도 한다. 물이 부족한 화전민들은 멀리 가서 물을 길어 와야하기에 겨우 먹을 물만 가져오는 꼴이니 제대로 씻지를 못해 일년이 되어도 목욕한번 제대로 못하는 것이 과거 화전민들의 일상이었다.

화전이 성했던 곳을 보면 바위가 적은 토산(土山)에 많고 바위가 많은 석산(石山)에는 화전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화전농사에 좋은 땅은 동남향의 땅이 좋은데 그것은 가뭄을 비교적 덜 타고 햇볕도 적당히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전민들은 북향의 땅도 토질만 좋다면 개간을 하는데 동서남북 어느 방향이던 평탄하고 가뭄이 덜 타는 땅을 선호하고 바람이 덜 부는 우묵한 땅을 좋게 여긴다.

2) 토 양(土壤)

화전민들이 보는 것은 화전을 일궈낼 땅의 위치가 좋아야 하지만 토양이 좋지 않으면 떠나간다. 그러니 위치 선정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토양이 요체다. 위치가 아무리 좋아도 토양이 좋지 않으면 지력(地力)이 약하게 되고 그러면 풍년농사를 기약할 수 없는 것이다. 땅이란 것이 깊이 들어 갈수록 돌이 나오고 지력(地力)은 떨어지는데, 농사에 좋은 부분은 표토(表土)에 달려있다. 오랜 세월 쌓인 낙엽과 그밖에 동식물이 썩어서 된 부엽토층(腐葉土層)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좋은 땅이 된다.

작물이 잘 자라려면 이러한 유기화합물(有機化合物)들이 썩어 이루어진 땅이라야 유기질비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좋은 땅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땅도 그냥 갈아엎어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안 된다. 아무리 좋은 땅도 불을 질러 불맛을 봐야 비로소 농사가 되지 생땅에 작물을 심으면 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 생땅은 아무리 김을 매 주어도 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데, 그것은 땅 자체가 살아있는 유기물이 많기에 작물의 뿌리와 땅이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므로 해서 작물이 시달림을 받게 되기에 그렇다. 그렇게 때문에 생땅에는 불을 놓아 충분히 태워줘야 유기물들이 불에 타 죽고 나무나 풀이 불에 타서 재가 되므로 해서 유기물이 무기물로 변환되기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기름진 땅으로 변하는 것이다.

화전민들은 화전을 할 땅을 찾아다니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것이 토양의 상태이다. 토양이 검은 빛을 띠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흰빛을 띠면 떨어수룩 농사짓기에 좋지 않은 땅이다. 초목이 썩어 부엽토층이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땅은 검은빛을 띠게 되고 그러한 검은빛 흙에 굵은 모래가 섞여 있으면 더욱 좋은데, 이러한 흙을 '군범회질'이라 하며 화전민들이 찾는 최상의 토질인 것이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토양속에 섞여 있는 돌멩이 들이다. 흙 속에 적당한 크기의 돌들이 섞여 있어야 농사가 잘 되고 여름에 돌멩이들이 햇볕에 달아 따끈따끈 할 때 소나기가 오면 달았던 돌들이 식으면서 지린 냄새가 나는 오줌을 누다는 것이며 그것이 밭작물에 좋다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여름철에 돌멩이가 햇볕에 달았을 때 소나기가 오면 돌멩이에서 오줌냄새가 나는 것을 맡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인지 화전민들은 순수한 흙만 있는 땅 보다는 굵은 자갈과 돌멩이가 섞여있는 땅을 좋은 땅으로 생각

한다.

화전민들이 무슨 과학자들도 아니고 모든 일을 논리적으로 생각한다고 보다는 오랜 경험에서 오는 지혜로 살아가는데, 비탈진 산전(山田)에 순수 흙만 있다면 여름에 비가 오면 토양유실이 가속화되어 밭이 망가진다. 그러나 흙 속에 돌이 섞여 있으면 여간 비가와도 토양이 유실되지 않고 또한 돌이 흙 속에 섞여 있으면 공극역할(空隙役割)이 증대되어 작물성장에 좋은 것인데 화전민들은 이러한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밭에 있는 돌을 잘 주워내지 않고 그냥 두며 좀 커서 거추장스러운 돌들만 가까운 곳으로 모아두는 데 화전(火田)하는 밭에 가보면 여기 저기 굵은 돌무더기가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세월이 지나 화전을 하지 않아 묵어서 수목이 우거진 숲으로 변한 땅이라도 성황당 돌탑 같은 돌무더기가 숲 곳곳 군데군데에 웅크리고 있다면 그곳이 옛날 불밭(火田)자리임을 알 수 있다.

3) 나무 베기

화전농사를 짓기에 적당한 땅을 찾아서 흙마져 좋은 곳을 잡은 다음에는 때를 맞추어 나무를 베야 한다. 나무를 베는 것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때가 있는 것이다. 화전민들은 깊은 산 높은 곳을 택해 화전을 해야하므로 항상 마음가짐과 몸짓을 신중히 하고 산천초목(山川草木)과 금수미물(禽獸微物)이라도 함부로 훼손하거나 죽이지 않는다.

가을에 잎이 진 뒤에야 벌목(伐木)을 하고 초봄에는 잎이 피기 전에 벌목을 하는 것이 화전(火田)의 법도이다. 날짐승 길짐승의 보금자리를 파괴

하지 않고 어린 벌레를 죽이지 않으며 까닭 없이 초목을 베지는 않는다. 얼음장을 깨고 고기를 잡지 않으며 해빙(解氷)한 뒤에 수달이 먼저 제어(祭魚)한 뒤라야 물에 들어가 고기를 잡았으며 곤충이 칩복(蟄伏)하지 않았을 때는 화전(火田)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조수어충(鳥獸魚蟲)이 다 잘 살고 산천귀신(山川鬼神)도 모두 평안하여 화기(和氣)가 가득 차고 상서로움이 있어 마침내 사람과 자연이 합일(合一)이 되어 모두가 풍성해 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뭇가지 하나 꺾고 벌레 한 마리 죽이는 것도 제때에 하지 않으면 법도가 아닌 것이다. 비록 내 땅이 없어 심산유곡(深山幽谷)의 인적(人跡) 없는 곳에서 화전(火田)을 할 망정 화전민(火田民)들은 사람의 도리를 잊고 살지는 않았다.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부터 들로 내려 살았기에 산은 외경의 대상이고 조상님이 계신 곳이며 신(神)이 계신 곳이라 여겼다. 그래서 산에 들어가는 것도 조심해야 했고 산을 훼손하는 것은 벌을 받는 행위로 여겼기에 깊은 산에 들어가 원시림을 베고 불을 지르는 것은 산신령(山神靈)을 노하게 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잠드는 시기 곧 낙엽이 지고 새순이 피어나기 전에 나무를 베고 불을 질러 밭을 일구어 놓는 것이다.

화전 밭을 일굴 땅을 정하고 나무를 베기 전에 산신(山神)에게 고사(告祀)를 지내는 것이 순서이다. 왜냐하면 나무를 베는 것부터가 곧 화전을 시작하는 것이기에 초목에 죄를 대기 전에 산신령에게 먼저 알리고 부득이한 사정을 아뢰야만 뒤에 호환(虎患)이나 산화(山禍)를 입지 않고 풍농(豐農)을 기약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깊고 험하고 높은 산에 의지해 사는 화전민이기에 산신령을 잘 모시지 않고는 산이 주는 벌을 면키

어렵다고 여기기에 산신령의 존재는 절대적이라 하겠다.

고사를 지낼 때 새옹술이 있으면 좋으나 그것이 없다면 작은 질술을 이용해 메를 짓는데 쌀이 있으면 가장 좋지만 대개는 조밥을 짓는다. 정성들여 메를 짓는데 밥이 다 될 때까지 중간에 절대로 솥뚜껑을 열어서는 아니 된다. 새옹술 메밥이 다 되면 솥을 맨땅에 놓지 않고 허공에 받들어야 하는데, 지름 3-4cm 정도 되는 곧은 나무(참나무를 많이 이용함)를 밑둥에서 위로 90cm정도 되는 부분까지 남기고 잘라 낸다. 잘라져 몸통만 남은 나무를 위에서 낫으로 십 자(十)로 갈라 네 등분시켜 아래로 쪽 찌 내려가 밑둥 부분에서 멈춘다. 그리고 그 네 가닥진 나무를 조심스레 벌리고 그 위에 새옹술을 올려놓는다. 비로소 새옹술 뚜껑을 열고 9cm정도 되는 가늘고 세 가닥진 나뭇가지를 꺾어 가운데에 꽂아 둔다. 그리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산신에게 비는데 무슨 격식이 있는 축문을 읽는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비손 한다.

그 한 예를 소개하면

“모년모월모일 아무개는 태백산신령님전 비나이다. 미련한 소생은 가진 것이 없사와 신령님의 문전옥토를 개간 하려하오니 굽어 살피사 해량하소서 차린건 없으나 흠향하시고 소례를 대례로 받으시와 이후 무사하게 하소서”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개가 비슷하다. 이렇게 고사가 끝나면 나무를 베게 되는데 나무를 베는 때가 두 가지 있으니 ‘가을베이’ 와 ‘봄베이’ 이다. 가을베이는 낙엽이 완전히 지고 벌레들이 땅속으로 다 들어가고 새들도 둥

지를 다 떠난 뒤에 나무를 베는데, 대개 경사지에서는 아래쪽부터 차근차근 위로 베어 나간다. 벤 나무는 치우지 않고 벤 자리에 그대로 눕혀 놓으며 제법 굵은 나무는 나뭇가지를 쳐내어 불에 타기 좋게 만들고 아주 큰 나무는 베지 않고 가지만 쳐내고 몸통은 그냥 세워 놓기도 한다.

화전농사(火田農事)에서 나무베기는 늦가을에 하는 가을베이가 보통이나 때로는 봄에 하기도 하는데 봄에 하는 것을 봄베이라 한다. 봄베이는 눈이 녹고 나무에 새순이 돋기 전에 베는데 가을에 벤 나무 보다 잘 타지 않으며 시일이 촉박하여 게으른 사람들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한다. 옛날에는 톱이 귀해 나무베는 도구는 낫이나 도끼가 전부이니 큰 나무를 베는 데는 여간 힘드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큰 나무는 가지만 치고 꺾질을 벗겨 세워두게 되는데 몇 년이 지나면 쓰러져 썩게 되어 거름이 된다.

화전을 할 곳에 자라고 있는 초목은 그 형태가 다양하고 종류도 가지가지인데 보통 화전할 땅의 나무는 활엽수 특히 참나무 종류가 많고 소나무 등 침엽수가 있는 곳은 드물다. 침엽수가 있는 땅은 밭을 일궈도 곡식이 잘 되지 않기에 피하는 경우가 많다.

화전을 할 땅에 제법 굵은 나무가 듬성듬성 서 있으면서 부엽토와 낙엽이 두껍게 쌓여 있는 곳을 '동갈밭'이라 하여 일하기도 쉽고 화전 일구기 좋은 땅이다. 동갈밭은 굵은 나무가 서 있기에 나무 밑이 흰하여 잡풀이나 작은 나무가 자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큰 나무 몇 그루만 베어내도 밭 자리가 몇 십 평씩 늘어나며 일하기에 따라 한 사람이 하루에 500평 이상 밭자리를 만들 수 있기에 동갈밭은 화전민들이 선호하는 땅이다.

그와 반대로 작은 나무와 억새 등 잡풀이 우거진 곳은 '난탈밭'이라 하여 별로 좋지 않은 곳으로 여긴다. 난탈밭은 나무들이 작고 가늘기에 나무 아

래에 잡풀이 많고 녁쿨식물도 얼크러져 있기에 나무베기 하는데 품이 많이 든다. 난탈밭에서는 풀이나 나무의 밑둥 쪽을 싹둑 베어 깔아 놓고 불질을 해야 불발이 잘 받아 잘 타지만 그렇지 않고 대충 베어 불질을 하면 불이 가지 않아 잘 타지 않는다. 그리되면 불탄 뒤에 덜 탄 나무 대궁이나 풀 대궁이가 남아있어 밭을 일구는데 걸리적 거리는 것이 많아 밭 만드는데 힘이 많이 든다. 그러므로 난탈밭은 한사람이 열심히 나무를 베어도 하루 200평의 밭자리를 만들기도 힘들다. 동갈밭은 땅심이 좋고 불발도 잘 받고 난탈밭은 땅심도 좋지 않고 불질을 해도 툭하면 불이 넘어가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여러모로 품도 많이 들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곳이다. 화전민들이 혼자서 나무베기를 하면 열흘에서 보름 정도를 일해야 하는데 조건이 좋지 않으면 한달 정도를 베기도 한다.

사정이 좋지 않아 때를 놓쳐 미쳐 나무를 베지 못하면 밭 만들 곳의 가장자리에 불깃을 만들고 갈퀴로 대충 낙엽을 긁어내고 그냥 불을 질러 버린다. 나무를 베지 않고 불을 지르기에 산불이 난 것과 같이 되는데 아주 위험하기도 하고 무책임한 짓이기도 한데 급하면 못 할 짓이 없다. 이렇게 불을 지르면 바닥에 있는 낙엽과 서있는 나무의 잔가지와 풀은 불타버리고 나무의 몸통과 굵은 가지는 타지 않고 남아있게 된다. 불탄 뒤에 보면 꼭 고사목이 즐비하게 서있는 형상인데 이때 이 나무들을 베어내고 씨를 뿌리고 불탄 땅을 파 엮어 밭을 만들기도 한다.

화전에서 나무를 베어 태우는 일은 곧 거름을 얻는 것이기에 지력을 높이고 풍년농사를 기약하는 것이다.

4) 불 질

화전민(火田民)들의 화전농사(火田農事)에서 가장 핵심적인 행위가 '불질'이다. 불을 어떻게 지르고 어떻게 불을 잡는지에 따라 적당한 화전(火田)이 생겨나기도 하고 산화(山火)로 번지기도 하기에 화전민들에게 있어서 불질은 목숨과도 같이 한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긴장감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미 베어놓은 나무들은 바싹 말라 불이 잘 붙게되어 있는데 땅의 경사도에 따라 불길이 세어지기도 하고 약하게도 된다.

불질을 하는데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날씨가 마땅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날은 '눅날'이다. 눅날이란 저녁때 습기가 대지에 가득한 날인데, 이른 봄 해동(解凍)이 되어 땅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면 저녁 이슬이 내리고 가끔 안개가 끼면서 모든 것이 눅눅해 질 때를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눅날이 되면 불질하기에 가장 좋은 날인데 눅날에 불질을 해야 불티가 날지 않아 산불이 날 위험이 적은 것이다. 불질은 해가 진 뒤에 어두워져야 하고 밝아서는 되도록 불질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날이 밝으면 불티가 날아가는 것이 보이지 않아 불길을 잡지 못하게 되고 큰 산불로 번지기 때문이다.

예전에 화전을 하다가 산불로 번져 몇 십리 아니 몇 백리나 불이 번져 화전하다 말고 모두 도망가고 한 일들이 많았다. 정선에서는 불공씨 라는 사람이 화전을 하다가 산불을 냈는데 그 불이 백두대간을 타고 타올라 갔는데 몇 십리씩 건너뛰며 날아가 양양까지 불길이 번진 예도 있다. 불질은 몇 사람이 함께 하는데 가족이나 이웃사람과 협동하여 하므로 해서 산불도 예방하고 불의의 사고도 막을 수 있다.

늑날이 되어 불질을 하기 전에 나무를 베어 놓은 밭 자리의 가장자리를 빙 돌아가며 서너발 가량 낙엽과 잔 나뭇가지들을 갈퀴로 긁어 치워서 불길이 번지지 못하도록 불깃을 만들어 놓는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불질하기 전에 불을 맡은 불의 신(火神)인 수인씨(燧人氏)와 화정대신(火正大神)과 축융장군(祝融將軍)등에게 간단한 고사를 지내게 된다. 고사(告祀)라야 뭐 대단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불질할 밭머리에서 불떡으로 제물을 바치는 의식이다. 불떡은 메밀가루로 만드는데 메밀을 갈아 가루를 내어 물에 반죽을 하여 넓적하게 펴 불에 구워 내는 것이다. 왜서 메밀가루로 불떡을 만드는가 하면 화전민들이 가장 많이 심는 작물이기도 하지만 메밀 대궁이가 붉은 빛을 띄기에 화기(火氣)를 삼키는 작물이라 해서이다. 화전밭의 불맛을 본 땅에 심은 메밀 대궁이는 불기운을 빨아 들였기 때문에 붉다는 것이다.

불질을 할 때는 위쪽에서부터 아래로 태워 내려오는 것이 불질의 기본이므로 밭머리에 작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 위에 반죽하여 편 메밀반데기(불떡)를 올려놓는다. 그때 불떡 밑에 나뭇가지를 걸쳐놓으면 불떡이 봉긋 봉긋 부풀어 오르며 익게 되는데 그 떡이 다 타게 내버려둔다. 불의 신에게 바치는 그야말로 불떡인 셈이다. 불떡이 다 타서 재가 되면 그때 사람들이 억새 같은 풀로 만든 ‘불꾸러미’에 불을 붙여 들고 빨리 움직이며 주문(呪文)을 외우면서 윗쪽에서 부터 불을 지른다.

그 주문(呪文)은

초발조화 수인씨(初發造火燧人氏)

화정대신 강좌정(火正大神降坐定)

축융장군 좌보필(祝融將軍左輔弼)

화덕장군 우보필(火德將軍右輔弼)

염제신농 경화전(炎帝神農耕火田)

화급화속 여율령(火急火速如律令)

인데 사람들이 이 주문을 외우면서 화전 밭 자리 위쪽에서 부터 불을 지르는 것이다. 불질을 하면서 위쪽 밭 자리 가장자리에 '불깃' 이라 하여 낙엽과 작은 나뭇가지 지푸라기 등을 태워 불이 위쪽으로 번지지 못하도록 한다. 위쪽에서 불이 일렬로 붙어 천천히 내려오며 타기 시작하면 불티가 위쪽으로 날아가는 것을 잘 보고 잡아야 하고 어느 정도 불이 붙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좌우(左右)로 벌려 서서 불길과 같이 따라 내려오는데 절대로 불머리에 서지 않는다. 처음 불이 약할 때는 불머리에 서서 위쪽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고 하지만 불이 거세어 지면 불머리에 섰다간 죽기 십상이다. 불머리에 서지 않고 좌우로 벌려서서 내려오며 좌우에도 불깃을 만들어 불이 좌우로 번지지 않게 함과 동시에 옆에서 불길이 안쪽으로 타들어가게 한다. 그러다가도 혹시 불티가 날아 불이 인근 산으로 옮겨 붙는 것을 '불 터진다'고 한다. 불이 불깃을 넘어가면 산불로 번지게 되므로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서로 소리치며 '불 터진다' '불 넘어간다' '불 난다' '불 튄다' '불 간다' '불 터죽지 마라'하며 경계를 하게 된다.

화전에 불을 놓게 되면 바람 없는 고요한 날에도 불만 놓으면 '불바람'이 있는데 그것을 화풍(火風)이라 한다. 불바람이 일어도 곱게 순하게 일면 아무 탈이 없으나 때론 불 바람이 요동을 치면서 화전민들의 마음을 조리게 만든다. 그 가운데에 뭐니뭐니해도 가장 겁나는 것은 '불솔개'가 날아 오는 것이다.

화전을 일구기 위해 불을 지르다 보면 꼭 불바람이 일어나는데 가끔 불바람이 돌개바람(회오리바람)으로 변하면서 불발 한 가운데에서 소용돌이를 치게 되는데 그 때 불이 붙은 불덩어리를 허공 높이 말아 올려 십리나 되게 불이 날아간다. 그 불덩이를 '불솔개'라 하는데 허공 높이 솟아 올라간 불이 훨훨 날아 가다가 흡사 솔개가 닭을 채듯이 곤두박히며 떨어져 이내 산불로 번져 나가기에 불솔개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솔개가 날면 필시 산불로 번져 온 산천이 '불바다'가 되기에 화전민들이 가장 꺼리는 것이 불솔개가 날아 오르는 것이다. 어쩌다가 불솔개가 날면 재치 있고 발 빠른 사람이 달려가 불솔개가 떨어지자 마자 불솔개를 잡아 산불로 번지는 것을 막는 경우도 있지만 불솔개가 높이 날면 속수무책이다.

불발이 6-7할 정도 타내려 왔을 때 사람들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불을 위로 치 지른다. 이렇게 맞불을 지르게 되면 내려오는 불길과 올라가는 불길이 맞부딪쳐 불길이 소멸되면서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재만 남게 되는 것이다. 불이 다 탔다고는 하지만 큰 불만 다 타고 아직도 곳곳에 잔불이 남아 있게 되는데 고목의 뿌리라던가 큰 나무 등걸 또는 수북이 쌓인 낙엽더미에 불씨가 남아 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잔불 정리를 하게 되는데 광이 등으로 흙을 끌어 묻거나 갈퀴로 긁어서 남은 불씨를 없앤다. 이렇게 하다보면 날이 새는 때도 있고 한데 잠도 안자고 이튿날까지 잔불정리와 주변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불길을 잡아 놓고 집으로 돌아온다.

5) 부대 줍기

불질을 끝내고 잔불을 정리하고 돌아와서도 이튿날 가보면 곳곳에 타다 남은 나무등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 밤이라서 불빛은 보이고 연기는 보이지 않아 그냥 돌아오지만 낮에 가보면 곳곳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다. 불을 질러 모든 나무와 풀이 다 탄 것처럼 생각되지만 날이 밝아 가보면 타다가 남은 나뭇가지나 등결들이 많은데 이 타다가 남은 덜 탄 나무들을 '부대' 라고 한다.

이 타다가 남은 부대를 치우지 않고는 밭을 일굴 수 없기에 이 부대를 치우는 작업을 '부대줍기'라 한다. 그래서 이튿날 사람들이 '부대 주우러 간다'고 하며 불 탄 곳에 가서 타다가 남은 나무들을 군데군데에 주워 모으게 된다. 이렇게 군데군데에 덜 탄 나무들을 수북히 주워 모아 둔 것을 '부대 더미'라 하며 이 부대더미에 불을 놓아 마저 태워 버린다.

부대를 주워 모아 태워도 잔가지 나무만 타고 굵은 나무는 덜 타서 또 남게 되는데 이것들을 끌어 모아 태우고 그래도 남은 것은 아래쪽으로 굴러 모아 또 태우고 그래도 남은 것은 다시 아래쪽으로 끌어 모아 태우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끝부대'라 한다. 부대라는 뜻은 불탄대궁이 라는 뜻인데 동갈밭에는 부대가 굵은 것이 많고 난탈밭에는 알뜰히만 벤다면 부대가 별로 없다. 이렇게 부대를 주워 모아 태우는 작업을 '부대 줍기' 또는 '부대 태우기'라 하고 부대를 모아 놓은 부대더미에 불을 질러 태운 자리를 '부대글기'라 한다. 부대글기에는 재가 많아 곡식이 잘 되는데 때로는 부대를 태우면서 화기(火氣)를 너무 많이 받은 땅은 도리어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한다.

화전민들이 아침부터 하루종일 부대를 줍고 태우고 하다 보면 옷과 손발은 말할 것도 없고 얼굴까지 새까맣게 되어 숲쟁이나 탄광(炭鑛)의 광부보다 더 검게 된다. 온몸이 시커멓게 되어 집으로 돌아오면 개가 주인을 몰라보고 짖어대는데 개가 주인의 얼굴을 몰라봐야 화전농사(火田農事)가 잘 된다고 한다. 이렇게 부대를 줍고 태우고 하는 일은 빠르면 하루 이틀 만에 끝내지만 밭이 크고 조건이 좋지 않으면 이삼일 동안 하게 된다. 부대줍기가 끝난 불탄 밭을 '탈밭'이라 하고 또는 '부대기'라고 한다.

6) 씨 뿌리기

화전에서 씨 뿌리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땅을 파기 앞서서 씨를 먼저 뿌리는 것과 또 하나는 땅을 파 엮고 난 뒤에 골(고랑)을 타서 씨를 심는 경우이다. 그러나 화전농사에서 대개는 땅을 파 엮기에 앞서서 먼저 씨를 뿌린 다음에 땅을 파 엮는다. 땅에 불을 질러 모든 것이 거의 다 타고 부대마저 정리하고 나면 희고 검은 재만 남은 땅이 전체가 거뭇한 색을 띠게 되는데 이것을 오래두면 바람에 재가 날아가 버려 아까운 거름이 줄어들게 된다. 그렇게 때문에 되도록 이면 빨리 재를 끌어 덮어야 하는데 불질이 끝나고 부대를 치우고 하다 보면 하루 이틀 뒤에 씨뿌리기를 할 수 있다.

씨 뿌리기는 흘뿌리기 방식으로 하는데 씨앗을 담은 망태기를 어깨에 메고 씨앗을 한줌씩 꺼내어 땅에다 확 뿌리는 것이다. 이때 씨앗을 왼 손을 반쯤 펴면서 씨앗이 다섯 손가락 사이로 나가도록 하여 씨앗이 부채살처럼 퍼져나가게 한다.

씨를 뿌릴 때 손을 수평보다 조금 높게 뻗어 씨앗이 좀 멀리 뿌려지도록 하는데 대여섯 걸음 정도 씨가 날아가게 하고 때론 여나쁜 걸음도 날아가게 뿌린다. 퍼져 날아간 씨앗이 재 위에 떨어지며 작은 먼지가 일거나 흔적을 남기는데 그 떨어지는 분포를 보아가며 파종의 너르고 솔은 것을 짐작한다.

콩이나 팥은 씨앗이 굵기 때문에 흠뿌리기를 하면 씨앗이 떨어지는 자리
의 재가 먼지를 푹푹 일으키기에 씨앗이 적당히 부러지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나 좁씨 처럼 작은 씨앗은 뿌려도 재에서 먼지가 잘 일어나지 않기에
잘 뿌려야 한다. 좁씨는 잘못 뿌리면 씨앗이 한곳으로 몰려, 싹이 나는 데
는 많이 나고 나지 않는 곳은 아주 드물게 나서 씨앗만 많이 들기에 좁씨
뿌리기는 노련한 솜씨가 요구된다.

화전민들은 조를 서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서숙은 재가 많은 땅, 곧
재가 많이 앓은 땅이라야 잘 된다. 재가 많이 앓은 땅에서 자란 서숙 대궁
이는 손가락 굵기의 대나무 같이 마디가 굵게 생겼고 서숙 꼬투리는 무려
30-40cm가 되도록 자라 축 늘어난다.

메밀도 색깔이 검고 작기에 검은 재에 떨어지면 잘 보이지도 않고 흔적
도 별로 없기에 어림짐작으로 훌훌 흠뿌리기를 한다. 보통 씨앗은 거의가
흠뿌리기를 하지만 감자는 흠뿌리기가 되지 않는다. 감자는 반드시 밭고랑
을 타서 감자 눈을 심어야 되기에 불질이 끝나고 먼저 탈밭을 쫓아 밭고랑
을 타야만 된다. 땅이 가물을 타면 감자 눈이 아래쪽으로 가게 묻지만 가
물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묻는다.

화전민들이 흠뿌리기로 쉽게 밭을 파지 않고 두벌일인 탈밭을 쫓아 밭고
랑을 타고 굳이 감자를 심는 이유는 감자가 수확이 빨라 기근을 면하기 좋

기 때문이다. 씨앗을 뿌릴 때는 탈밭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뿌리는 것이 보통인데 이렇게 하면 시야가 넓어져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이다.

7) 탈밭 쫓기

화전민들은 화전을 일구는 것을 '탈밭 쫓는다'고 한다. 처음 산에 나무를 베어 깔아 태우고 부대를 줍고 씨앗을 뿌린 다음에 그 씨를 끌어 묻기 위해 탈밭을 파 옆어야 하는데 처음 불질한 생땅은 나무뿌리가 많이 얼키고 설켜 있어서 썰이가 잘 들어가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썰이로 콧콧 쪼아 겨우 재만 끌어 덮는 것이니 탈밭 파러가는 것이 아니라 탈밭 쫓으러 간다고 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화전은 불질이 끝나면 곧바로 불탄 재를 끌어 묻어야 바람에 재가 날려가지 않으나, 불질이 끝났다고 곧 바로 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대를 주워 태우며 주변을 정리하고 씨를 뿌린 다음에야 씨와 함께 재를 끌어 묻는 것이다. 땅을 파엿는 농기구인 썰이 또는 광이를 사용하는데 썰이는 끝이 뾰족하여 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광이는 긴 직사각형으로 끝 부분이 뾰족하지 않고 수평으로 되어 있으면서 날카로운 칼날과 같이 생겼다.

씨뿌리가 끝나면 탈밭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땅을 파 옆게 되는데 줍씨나 메밀 등을 흘뿌리기 했을 때는 땅을 깊게 파지 않고 5cm 내외로 얇게 끌쩍끌쩍하며 쪼아 거의 씨와 재가 묻힐 정도로 파 옆어 올라가면 된다. 콩이나 팥은 좀더 깊이 묻고 감자는 그 보다 더 깊이 묻는다. 기본적으로 탈밭을 파 옆는데는 큰 광이를 사용하는데 광이는 길이가 길고

폭이 넓어 꺾여 구부러져 뺨은 길이가 25-30cm 정도이고 폭이 10-13cm 정도여서 땅을 한번 찍으면 깊게는 20-30cm까지 들어가는데 세게 찍으면 어지간한 나무뿌리는 그냥 끊어지며 땅이 뒤집히게 된다. 광이의 끝 부분이 뽕족하지 않고 수평으로 되어 칼날 같기에 땅을 파 찍으면 작두 날에 풀이 썰어지듯이 흙과 나무뿌리들이 칼로 벤 듯이 갈라지며 파이게 된다. 이때 광이로 땅을 찍은 다음 광이 자루를 치켜 들며 광이 끝을 앞쪽으로 채치듯 하면 광이에 찍힌 부분의 흙이 180도 회전을 하며 속 흙이 밖으로 나오고 불에 탄 재가 있는 겉흙이 밑으로 내려가 묻히게 된다.

이렇게 계속 탈밭을 파 올라가면 불에 타 검은 재가 깔려 있던 겉흙이 모두 뒤집히며 밑으로 들어가고 대신 속 흙이 밖으로 나와 멧진 밭이 형성되는 것이다. 탈밭 쫓기가 수월한 것만은 아니다. 어떤 곳은 불을 질러 베어 놓은 나무를 모두 태워도 땅속에는 굵은 나무뿌리가 딱 박혀 있어서 팽이나 광이가 들어가지도 않아 겨우 5-10cm 정도도 파내려 가지 못하고 겨우 씨만 끌어 덮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몇 년만 지나면 그 억센 나무뿌리들도 모두 썩어 거름이 되며 땅은 훨씬 무르고 부드러워지게 된다.

좁씨 한말(一斗)을 뿌릴 정도의 밭을 파자면 장정 10명이 2일은 파야 하는데 좁씨 한말을 뿌리면 가을에 20여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 양지쪽 밭에는 조를 많이 심고 음지쪽 밭에는 감자를 많이 심는다.

군범회질의 좋은 땅은 처음 개간을 해놓으면 흙이 부드러워 밭목이 쭉쭉 빠지며 땅이 푹신푹신한 느낌을 주는데 해가 갈수록 땅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진다.

땅이 부드러하다는 것은 지력(地力)이 강하여 농사가 잘 된다는 뜻이고 땅

이 딱딱하게 굳어질수록 지력은 떨어져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 땅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면 화전민들은 미련 없이 그 땅을 버리고 또 다른 좋은 땅을 찾아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처음 개간하여 땅심이 좋아 매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을 '도그루'라고 하고 땅심이 떨어져 한 해 건너 농사를 짓는 밭을 '그르그루'라고 부른다. 화전농사를 짓기 시작하여 5-6년이 지나면 그 밭을 '묵전'이라 하는데, 이때에는 어지간히 지력(땅심)도 떨어져 농사가 시원찮게 되는데 그러면 콩을 많이 심게 된다. 여기에서 '묵전'은 '묵밭'과는 다른 것인데 '묵밭'은 농사를 짓지 않고 묵힌 밭을 뜻하지만 '묵전'은 오래도록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으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진전(陳田)과 같은 것이다.

화전농사(火田農事)가 이동식(移動式) 착취농업(擄取農業)이라고 생각되지만, 엄격히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한 이동식 화전농사는 매우 드물고 대개는 완만하고 식수(食水)가 있는 곳에 정착하여 본거지를 확보한 뒤에 그 곳 땅을 기반으로 하여 인근 산비탈을 오고가며 화전을 일구기 때문에 반농(半農)반화전(半火田)의 형태가 대부분이다.

이때 본거지에 있는 밭을 묵전이라 하는데, 묵전은 경사도가 완만하고 가뭄을 잘 타지 않으며 토질이 비교적 좋은 편이다.

묵전은 탈밭(火田)과 달리 처음 한번만 불질을 하여 밭을 만든 다음, 5-6년 지나 땅 심이 떨어지면 퇴비를 넣고 소를 이용해 밭을 갈면서 몇 십 년이고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으로 평지(平地)에 있는 일반 정착농가(定着農家)의 밭과 똑 같다.

화전민들이 사는 곳은 험준한 산악지대 이기에 평지와 같이 완만한 경사에 풍부한 식수원(食水源)이 확보되는 묵전을 만들 수 있는 땅은 그리 많

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화전민들은 작지만 식수(食水) 근처에 있는 이 묵전을 기본 텃밭으로 삼고 나머지 땅은 인근 산비탈에서 화전을 하여 보충하게 되는데 묵전을 만들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의 화전민들은 보다 나은 땅을 찾아 떠돌 수밖에 없는 것이다.

8) 푸대꺾기와 밭매기

씨앗을 뿌리고 탈밭을 쫓고 나면 적당히 비도 오고 온산천이 푸르게 변해 가면서 곡식도 싹이 돋아난다. 그러나 이때 곡식보다는 베어 내고 불을 지른 나무 그루터기에서 먼저 움돋이(움)가 나와 밭 전체를 덮어 버리며 몇 일 밤 자고 나면 한 뼘 씩 자라 나온다. 동갈밭은 움돋이가 길고 듬성 듬성 돋아 나오지만 난탈밭의 움돋이는 아주 많이 돋아 나와 처리하는데 힘이 많이 든다. 이렇게 나무 그루터기에서 돋아나는 움돋이는 나무는 베어져 사라졌지만 뿌리 부분은 죽지 않고 봄이 되어 살아나는 것이다.

여기에서 화전민들은 베어낸 나무 그루터기에서 돋아 나오는 움돋이를 '푸대'라 고 부른다. 그러므로 밭을 매는 것은 이 푸대를 제거하는 것이고 푸대는 호미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낫으로 베거나 손으로 꺾어서 처리하므로 화전민들은 화전농사에서 김매는 것을 '푸대꺾는다' 라고 말한다.

푸대는 연하고 밑 부분이 약하여 잡고 채치면 쉽게 꺾여 떨어진다. 그러므로 화전민들은 밭매러 갈 때 호미를 들기보다는 낫을 들고 가서 푸대가 굵고 크면 낫으로 베어내고 작고 약하면 손으로 꺾거나 뜯어낸다.

동갈밭의 푸대는 연하고 길기에 손으로 잡고 채치거나 꺾어서 처리하면 금방 밭자리가 넓어지며 밭매기가 쉬우나 난탈밭의 푸대는 탈밭 쫓을 때

제대로 파 있지 않으면 엄청 많이 돌아 나와 푸대 제거에 품이 많이 든다.

난탈밭의 푸대를 제때에 제거하지 못하면 작물이 채 자라기에 앞서 모두 녹아버리고 말기에 부지런히 푸대를 제거해야 작물을 살릴 수 있다. 일단 초벌매기 때 푸대를 잘 제거하면 작물이 잘 자라 다음에 올라오는 푸대 보다 작물의 키가 더 크기에 작물 밑으로 처진 푸대는 잘 자라지 못하고 작물이 성장경쟁에서 이기게 된다. 푸대는 한번 꺾어 없앤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푸대는 꺾어내면 또 돌아 나오고 또 꺾어 내도 또 돌아 나온다. 그러나 첫 번째 푸대가 가장 실하게 돌아나오고 두 번째 푸대는 첫 번째 푸대 보다 절반 이하로 성장이 둔화되며 돌아 나오기에 두 번째 푸대꺾기는 품이 적게 든다.

나무를 베어 내고 불을 질러도 베어낸 나무의 그루터기에서는 움돌이(푸대)가 2-3년 계속 돌아난다. 더 이상 푸대가 돌아나지 않으면 그 나무뿌리는 죽은 것이며 그때부터 썩어서 거름이 된다. 몇 년 지나 더 이상 푸대가 나오지 않으면 그 때 부터는 호미로 밭을 매는데 화전민들이 쓰는 호미는 들에서 쓰는 삼각형 모양으로 된 작은 호미가 아니라 초생달 모양으로 생긴 자루가 긴 귀호미라는 것을 사용한다.

귀호미는 초생달 모양의 날 한가운데에 자루가 박혀 있는데 호미날의 길이는 30cm정도 이고 폭은 10cm 정도인데 호미자루는 150cm정도로 길다. 들에서 밭 맬때는 앉아서 호미로 땅을 긁으면서 잡초를 제거하는데 화전농사에서는 앉아서 밭을 매는 것이 아니라 서서 긴 귀호미 자루를 쥐고 작물 사이로 귀호미를 넣어 확확 긁어 잡초를 제거함과 동시에 작물과 작물 사이가 약 30-40cm정도 되게 한다. 그래야 콩이던 팥이던 가지가 뻗어 한아름이나 되게 자라며 콩 한 대 궁이에 반되나 되게 수확이 된다.

들에서는 작물과 작물 사이가 좁지만 화전에서는 작물과 작물 사이가 멀다. 그래서 대개 작물과 작물 사이는 귀호미의 날 길이 만큼 벌어져 있는데 귀호미로 밭 맬 때 비록 작물이 있더라도 사정없이 잡초와 함께 긁어버려 작물의 간격을 넓혀 놓는다.

화전농사에서 대개 두벌매기가 끝나면 수확에 들어가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세벌매기도 한다. 농사란 것이 김을 자주 매주어야 잘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화전은 토양이 기름져 두벌만 매어도 수확이 좋다. 다른 작물은 두벌 세 벌 밭을 매야 되지만 메밀만큼은 밭을 매지 않는다.

흔히 메밀은 심는 것이 아니라 푼다고 한다. 메밀을 푼다고 하는 것은 초복 때를 전후해 밭에다 메밀씨를 훌훌 뿌리고 대충 긁적긁적 끌어 묻어 놓으면 되기에 그러하다. 그리고 수확 때까지 그냥 두면 되는데 그때는 이미 돌아나올 풀씨는 모두 돌아 나와 메밀씨 말고는 돌아나올 풀씨가 없기에 메밀만 돌아 나와 첫서리가 내리기 전에 결실되기에 밭을 매지 않는 것이다.

화전민들이 메밀을 많이 심는 것은 메밀은 다른 작물 보다 추위에 강하고 파종에서 수확까지 기간이 짧기에 농사철이 지나서도 씨를 뿌릴 수 있고 밭도 매지 않는 이점이 있고 고지대에 일찍 서리가 내리는 산간지역에서 가장 손쉽게 농사지을 수 있는 작물이기 때문이다.

밭을 맬때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며 매는 것이 보통이다. 왜냐하면 화전이 대개 경사도가 급하기에 이러한 지형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밭을 내리 매면 작물을 밟기 쉽고 밭이 뭉그러지기 쉽기 때문이다.

화전민들이 사용하는 김매기 농기구에는 귀호미 말고도 나무호미가 있다. 나무호미는 ㄱ자 형상으로 구부러진 나뭇가지를 잘라서 만드는데 쇠

(鐵)가 귀한 화전민들은 이렇게 나무를 잘라 호미로 대용했는데 나무호미는 대개 텃밭을 맬 때 사용했다.

어떤 때 작물에 벌레가 많이 생기면 화전민들은 일일이 벌레를 잡아 낼 수 없게 되는데 이때는 시절이 좋지 않다고 하며 밭가에 솔뚜껑을 뒤집어 걸어 놓고 불을 떼며 기름을 두르고 메밀부치게를 부쳐 산신 토지신에게 고사를 지내고 그 부치게를 먹으면 벌레가 사라진다고 한다. 벌레들이 기름 냄새를 싫어해서 그런지는 모르나 그렇게 하면 벌레들이 사라진다고 한다.

9) 수 확

화전민들의 가을걷이도 일반농가와 별로 다를바가 없으나 특수한 자연환경과 짧은 가을철이 일손을 바쁘게 한다. 콩이나 팥, 조 등은 베어서 잘 말려 마당에 깔고 도리깨로 쳐서 깍지와 낱알을 분리해 내어 키로 까불어 깨끗한 상태로 담을 것에 담으면 된다. 정착농가에서는 작물을 수확하면서 생기는 깍지나 대궁이를 가축의 사료로 쓰거나 지붕을 잇는 재료로 사용한다. 그러나 화전민들은 주거지와 화전의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아 잉여 산물인 깍지나 대궁이는 현장에서 버리고 알곡만 챙겨서 가져오는 수가 많다.



관광태백으로 가는 방안모색



송 은 영
전 태백교육장

I. 들어가는 말

석탄 산업이 호황을 누릴 때 태백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고 인구도 늘어 시로 승격하게 되었다.

기업가와 근로자, 매탄업자와 운수업자 등이 북적였으며 소비문화는 극도로 발달하였다.

그러나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지역경제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인구가 급감하면서 철암·장성 지역은 공동화현상까지 나타나 위기감을 느낀 태백이 가닥을 잡은 것이 관광업이다.

태백산이 도립공원으로 조성되면서 영산 태백의 신비로움과 시원한, 여름, 겨울의 흰눈, 낙동강과 한강의 발원지에서 솟는 샘물은 도시인의 찌든 심신을 풀어주는 청량감을 안겨주어 관광객이 늘자 태백의 살길은 오직 관

광산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문화와 관광, 레저 쪽에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주 5일제의 확산으로 5도2촌(5일은 도에서 2일은 시골에서 지냄) 바람까지 불어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고부가 산업으로 태백시의 지향점과 일치하게 되었다.

여의도 대행진으로 얻어낸 폐광지 특별지원법은 관광태백으로 가는 귀중한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게 되어 관광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으나 관광마인드가 부족한 지도층에 의해 카지노 도시는 싫다.

카지노는 정선으로 주고 태백은 카지노 배후도시로 성장하겠다 하고 황금알을 낳는다는 카지노를 주고 후회하는 미숙함을 우리는 겪었고 아쉬워하고 있다.

필자는 관광전문가도 아니지만 태백에 몸담고 앞으로도 태백에 살겠기에 국내외 관광을 한 짧은 소견을 토대로 태백관광에 대한 생각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태백 관광 진흥연구소 설치

태백시청 광산진흥과와 태백시의회 현안대책위원회에서 태백관광의 틀을 짜고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관광지 접근망 확충, 서학레저단지 조성, 국민안전 테마파크 조성, 고원 스포츠단지 조성 등 굵직한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되며 가식적으로 성과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나 시민들의 마음에 흡족한 결과를 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관과 민이 하나되어 난제를 풀고 있으며 힘을 합치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태백의 살길은 오직 관광이라고 정했다면 관광은 관리차원의 행정이지 아니라 경영차원의 행정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경영차원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넓고 깊은 경영마인드가 있어야 하며 경영마인드를 갖기 위해서는 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소가 있어야 한다.

태백은 관광대학의 우수 인력과 문화원, 시민단체, 예술인, 숙박업, 요식업, 유흥업, 운수업 등 각 분야의 의견은 물론 시민과 관광객의 여론을 수렴하고 반영토록 하는 연구소가 있어야겠다.

타지역은 관광연구센터가 그 고장 특유의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 추억거리를 찾고 구안하고 관광상품 품평회를 개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한다고 한다.

연중행사처럼 실시하고 있는 눈꽃 축제, 철쭉제, 쿨 시네마 등을 예로 비추어 보아도 작년이나 금년이나 항시 하던 관례대로 따라할 뿐 특별한 이벤트가 없기에 발전이 없다.

하나의 축제를 할 때마다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 추억거리가 어떠했는지 분야별로 분석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장단점을 찾아내어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시정하는 노력이 있어야겠다.

작지만 계절별·월별, 기온조사·강수량·적설량·개화시기·풍향·풍속은 물론 버스·승용차·열차의 교통량과 숙박·요식업소의 실태까지도 파악하는 연구소가 있어야겠다.

관광 진흥연구소는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기관과 사업주체에 정보를 제공하여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어야겠으며 관광업 종사자들의 교육·홍보물 제작 등 태백 관광의 밑바탕이 되는 연구소가 되어야겠다.

2.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관광지

돈을 쓰게 하는 관광지, 고용창출이 되는 관광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관광지가 되기 위하여서는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하여야 한다. 버스를 타고 음식물을 싸 가지고 태백산 등반을 하고 돌아가는 관광객은 입장료와 오물만 떨어뜨리고 간다고 한다. 관광1번지라는 속초는 바다와 산, 들과 호수, 온천까지 어우러진 관광지로 관광산업으로 성공한 도시였다.

그러나 지금 속초는 설악동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고 문닫는 상점이 늘었으며 개점휴업상태라고 연일 신문에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도와 중앙요로에 건의를 하고 있다.

속초시에 따르면 이제는 볼거리 관광시대는 지나고 즐기는 관광시대로 변했기에 즐길 거리가 있는 용평이나 알프스 스키장 쪽으로 몰려가기 때문에 금강산관광과 연계하지 않으면 속초는 관광도시에서 밀려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스키장은 11월 중순에 개장 4월 중순까지 장장 5개월 간 문을 열며 12월에서 2월까지 3개월간은 스키장마다 매일 5~6천명이 북적댄다니 인근의 관광지는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겠다.

효도 관광, 경로관광이라는 말을 듣는 보는 관광은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 초·중학생들은 놀이동산을 즐겨 찾으며 젊은이들은 스키장과 해수욕장을 중·장년은 카지노와 골프장을 찾는 시대로 변했다.

태백은 오지이기에 접근성이 떨어져 관광지로 부적합하다고 하나 스키장만 개발된다면 서울·대전·대구에서 4시간이면 열차로 올 수 있는 곳이라 스키열차를 운행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에 서학레저단지에 스키장과 골프장만 개설된다면 관광 태백으로 우뚝 설 수 있다고 보며 국민안전 테마파크 역시 체험형 교육기관인 동시에 체험형 관광이기에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3. 태백의 얼을 드러내는 관광지

관광을 하다보면 오래 오래 인상이 남아 다시 찾아가고 싶은 곳이 있으며 이웃에게 가보라고 권하고 싶은 곳이 있다.

인상에 오래 남는 곳은 다른 고장에서는 도저히 느끼지 못한 그 고장 특유의 멋과 얼이 깃든 곳이다.

영월의 청령포·안동의 하회 마을·제주의 민속 마을·아산의 민속 박물관·로마의 지하 무덤 등은 웅장하지는 않아도 옛사람들의 생활모습과 생활양식을 느낄 수 있어 밥 한그릇도 남다른 정취를 느낄 수 있다.

태백은 광산이 개발되기 전에는 화전민이 주류를 이룬 곳이며 화전민 세대는 거의 사라져 가는 단계이기에 교과서에서나 배운 화전민촌의 너와 집·굴피집도 디딜방아도 그 밖의 생활도구도 이제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옛것을 찾고 조상들의 슬기로움을 다듬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우리들의 몫이라 할 수 있다.

화전민촌의 볼거리, 화전민촌의 먹거리, 화전민촌의 생활체험은 추억거리로 태백의 관광상품으로 훌륭하다.

석탄박물관을 다녀간 사람들은 모형 지하갱도의 모습을 보면서 태백의 아픔과 고마움을 체험하였다며 자녀들의 교육장소로 이처럼 훌륭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웃들에게 꼭 가보도록 권장하는 관광지가 되었으며 태백산이 석탄박물관으로 인하여 초·중등학생들의 수학여행 코스로 자리굳힘하게 된 것도 그 예라 할 수 있다.

석탄박물관이 아닌 석탄역사관을 폐광된 곳에 조성하여 좀더 사실적인 체험을 하게 하고 화전민촌과 연계한다면 관광객은 더 증가하리라 본다.

또한 영산 태백의 유래를 널리 알려 민족혼이 숨쉬는 곳이 이곳 태백이며 낙동강과 한강의 발원지인 황지와 검룡소가 왜 중요한지를 홍보하고 태백인 스스로가 긍지를 느껴야겠으며 강화도 마니산에서 전국체전 때 성화를 채화하는 것이 부당하며 태백산에서 성화를 채화할 때 태백은 관광지로 몇 단계 뛰어오르리라 믿는다.

4. 자연과 인공이 어우러진 관광태백

스위스의 알프스와 중국의 장가계를 비교할 때 자연 경관 하나만 본다면 장가계가 단연 앞선다. 그러나 다시 가보고 싶은 관광지를 권한다면 알프스를 꼽고 싶다.

알프스가 아름다운 것은 스위스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에 걸맞게 자연을 더 아름답게 꾸민 스위스인이 있기에 스위스는 더욱 아름답다.

그림 같은 알프스는 길가에는 나무와 꽃으로 덮여 있으며 산중턱까지 길이 있는데도 나무만 보일 뿐 길이 보이지 않게 조성된 것은 몇 백년 동안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광으로 가기 위한 치밀한 계획과 실천이 있었기 때문이다.

집 한채를 지어도 도시의 전체적인 경관에 맞게 지어야 하고 주위 환경에 맞추어 지붕모양부터 지붕색깔, 현관의 모양까지 도시 미관에 맞추어 지었기에 지상의 낙원처럼 보일 수 밖에 없다.

대문하나 다시 다는데도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린다는 것은 편의주의에 익숙한 우리에게선 걸맞지 않지만 우리도 관광 태백으로 가려면 사고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할 때가 되었다.

런던이나 파리 역시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4층 이상의 건물이 없고 집 한채 짓는데 적어도 10년이 걸린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선 꿈같은 이야기일지 몰라도 고층아파트를 지어 자연경관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건축물에도 규제를 강화하여 태백 관광의 밑바탕을 튼튼하게 하여야겠다.

5. 관광 상품 개발과 판매

스위스의 관광 수입중 숙박비와 식비의 비중은 20%밖에 되지 않으며 89%는 스위스에서 생산되는 시계·칼·화장품 등의 판매에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물건의 질도 좋고 값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물건을 사오면 여행 경비가 남는다고 하여 호주머니 돈을 전부 털고 오게 되어 있다.

관광지이지만 그 고장에서만 생산되는 믿을만한 물건을 판매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관광지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관광지에는 왜 특이한 상품을 개발

하지 못하나라는 의구심이 생긴다.

춘천 닭갈비와 춘천 막국수, 춘천옥은 춘천 관광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태백의 한우고기 역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대전의 묵마음이 사람들로 붐비는 것을 보면서 태백에는 왜 묵마음이나 감자를 이용한 음식점이 없는지 궁금하다.

주목은 희귀성과 단단함, 아름다운 색깔로 공예품을 만들었을 때 고가품으로 판매되며 주목 군락지가 있기에 주목공예가 발달하고 주목공예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태백을 찾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때 태백 관광상품으로 주목공예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단지가 조성된다면 더 많은 주목공예품이 판매될 것이고 주목공예품이 관광 상품으로 효자 노릇을 하지 않을까 한다.

6. 전 시민의 관광요원화

시민의 의식과 자세에 따라 그 지역이 관광지로 뜨느냐 않느냐가 결정된다. 관광객을 직접 접촉하는 관련업소 경영자와 종업원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관광객을 대하여야 하며 단숨에 수익을 올리려고 바가지를 씌우게 되면 그런 악순환은 관광지의 이미지를 흐려 주저앉게 되어 있다.

숙박업소는 가장 쾌적하고 안락한 잠자리를 제공하여야겠고 유흥업소는 최고의 즐길 거리를 음식점은 최고의 맛을 제공하여야겠으며 순박하고 따뜻한 인심이 자생적으로 시민 문화 속에 녹아나야겠다.

먹거리·즐길 거리에 추억거리가 그리워서 다시 찾아오게 하고 입소문을 통해 더욱 더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는 확대재생산의 사이클을 만들어야겠다.

일례로 일본의 온천지역을 관광할 때 남녀 혼탕이라 하여 흥미로워 목욕탕을 찾았으나 혼탕이 아니라 의아하여 안내원에게 물으니 한국인은 남녀 혼탕을 야만족의 문화라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인 관광객이 오면 미리 주민에게 알려 혼탕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세심한 배려에 놀랐고, 관광객이 음식을 먹을 때 종업원이 무릎을 꿇고 부동자세로 앉아 있다가 관광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즉시 가져다주는 배려에 놀랐다. 그런 일본이기에 다시 찾는 관광 일본을 만들지 않았을까 한다.

관광지에서 순찰차가 관광객의 길 안내를 직접 안내해주고,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을 때 그 지역에 서투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하여 단속을 하지 않는 경찰관의 태도가 곧 그 고장을 관광지로 만드는 것이다.

스위스의 알프스와 중국의 장가계는 뛰어난 경관으로 산의 정상에 오를 때 케이블카를 타는데 스위스의 안내원은 깨끗한 정장에 웃음 띤 얼굴로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는데 비해 중국의 안내원은 깨끗하지 못한 복장에 무표정한 얼굴로 서있는 모습을 보고 아직도 중국은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났다.

볼거리·먹거리가 뛰어난 중국이지만 중국 관광지에서 물건을 사면 바가지를 쓴다는 소문 때문에 관광객의 호주머니를 열지 못하는 중국에 비해 스위스에서는 어디를 가나 속는 일은 없다는 소문 때문에 있는 돈을 몽땅 쓰고 오게 하는 문화풍조가 관광 스위스로 거듭나게 했으며 다시 가보고 싶은 관광지가 되는 것이다.

시민의 의식 수준이 어디까지 왔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는 태백관광의 지렛대이자 거울이 될 수 있다.

Ⅲ. 맺는 말

관광 태백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태백시민은 달려가고 있고 기대도 하고 있으나 관광사업이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까지는 막대한 자본과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자본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자본유치의 어려움과 사업의 방식과 절차상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으며 관광 전문경영인이 없는 지자체로서는 난관이 겹칠 수 있다.

관광 전문가가 아닌 필자도 현장에서 뛰는 관광인이 아니기에 탁상공론 일 수밖에 없지만 태백에서 살았고 태백에 살고 문힐 태백인이기에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을 뿐이다.

천혜의 자연 자원과 영산 태백이 품고 있는 태백은 분명 약속의 땅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줄 것이다.

관광도시 태백으로 가는 길은 분명 시민들의 의식과 의지에 달려있음은 틀림없는 명제다.



태백의 미래

내 자녀를 키우며 정착하여 살 수 있는 태백 건설을 꿈꾸며



교사 박 인 수
장성여자고등학교

1. 시작하는 말

폐광이 된 이후로 그 동안 태백은 관광도시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 도시 정비나 축제 개발, 지역의 관광 자원 개발 그리고 인근의 카지노 유치 등을 통해 각광받는 관광도시가 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도시는 눈에 띄게 달라졌고 지난날의 우중충한 모습도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폐광 이후의 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이며, 이러다 보니 각급 학교의 학급수도 급격히 줄고 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현실은 각급 학교의 우수한 인재들이 초등학교 때 1%, 중학교 때 5%, 고등학교 때 20%라는 기하급수적인 숫자로 외지의

학교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지난 세월 동안 달려온 길을 한 번 깊이 있게 돌아보아야 하며 우리가 그 동안 갱생의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관광 도시로서의 태백의 현 모습을 한 번 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태백의 미래의 모습에 대해 진지한 구상을 해 보아야 한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너무 외형적인 변화에만 투자해 왔다. 그러다 보니 계절마다 고안해 낸 축제나 거기에 따른 볼거리나 먹을거리로 순간적인 즐거움을 제공하여 외지인들이 잠시 다녀가는 데에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정작 안에 있는 내 식구가 빠져나가는 현실은 간과한 것 같다.

특히 태백의 사 계절 축제는 그 내용에도 많은 고심을 하여 다른 지역과의 차별력을 가짐으로 해서 축제 때마다 거리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 우리가 특히 유념할 것은 여기를 다녀간 그들이 정말 오랜 시간을 두고 다녀가고 싶은 도시, 또는 훗날 와서 정착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태백을 잠시라도 염두에 두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2. 태백에 상주하지 못하는 이유

태백에 상주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 세 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첫째로 태백은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관광 도시로의 변모를 꾀하다보니 유흥업소가 많이 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교육적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또한 카지노가 들어옴에 따라 눈에 보이는 이

득은 있었는지 모르나 내 자식을 도박의 도시에서 키우고는 싶지 않다는 생각들이 이 지역의 학생들과 인재들을 외지로 나가게 하고 있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 교육적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다 보니 무엇을 배우고 싶어도 깊이 배울 수가 없고, 학생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다.

태백에서 어느 정도의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 유지들이나 경제적으로 상류층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을 살펴보면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며 자식들을 거의 외지로 내보내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도 어느 시기에 도달하면 아이들을 따라 태백을 떠나곤 한다. 이것을 어떻게 애향심이 부족하다고만 할 수 있겠는가?

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부모 밑에서 아이를 키우지만 중학교만 진학하게 되면 벌써 외지로 나가는 율이 아주 높은 것이 바로 태백의 현실이다. 그러면 벌써 중학교 때부터 태백의 아이들은 벌써 걸러진 상태에서 교육이 진행되어 약간은 김이 빠지는 현실이 만들어진다. 더욱이 중학교에서 상위권에 놓이는 학생 자신들도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외지의 상급학교로 가서 교육을 받겠노라는 생각에 젖어들게 된다. 그러면 결국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쯤이면 벌써 차·포를 다 뎀 장기판처럼 되어 더 이상 인재를 양산하기가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런 상태이면서 오히려 태백의 학교가 나쁘다는 개탄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은 교육의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이다.

만약에 태백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외지로 하나도 나가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서 교육을 받는다면 지금보다 몇 배 나은 결과를 낳게 됨은 물론이고 태백의 상주율(常主率)도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지역의 인재들은 더 많이 배출될 것이고 나아가 태백의 발전

도 명약관화한 일이 될 것이다.

둘째로 태백의 문화적인 여건이 너무 흥미위주이고 단편적이며 일회적이며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태백이 관광 도시로 변모한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좋은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최선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화의 세기라 불리는 21세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다 정신적이고 고차원적인 문화를 향유하기를 원한다. 먹고 마시고 단지 즐기는 관광 문화라는 것과 대박이 가져다주는 한탕주의의 카지노 문화는 결국 사람들을 물질에만 경도 되게 하며 정신의 피폐함을 가져다주었다. 너무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문화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꿈을 가지지 못하게 하며 사람들을 현실적이고 즉물적이게 만들어 결국 미래에 대한 기대치와 정신의 풍족함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외지의 사람들은 잠시 이곳을 둘러보며 구경을 하러 올지 모르나 정작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곳을 떠나게 된다.

문학이나 예술, 역사와 같은 문화가 없다는 것은 결국 열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열이 없다는 것은 결국 이어갈 전통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전통이 없으니 머물 사람도 없는 것이고 결국은 미래가 없는 현실만 존재하는 도시가 되는 것이다. 현실만 존재하는 도시에 누가 머물겠는가? 사람들은 더 안락하고 더 좋은 미래가 존재하는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어느 도시의 축제나 가면 똑같이 있는 내용들이나, 행사용의 반짝 볼거리들 즉 투전, 자동차 경주 같은 것들은 축제의 흥미를 더했는지는 모르나 도시의 이미지에는 별 도움이 못되는 행사이다. 이런 축제 문화를 문화라고 불러야 하는 것인가? 이런 곳에서는 이전투구(泥田鬪狗)와 같은 현실적인 삶만 있을 뿐이다. 흥미와 재미는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는 법이다. 우리는

더 정신적이고 더 근본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문화를 갈구하고 있다.

문학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문화다운 문화가 있는 태백이 만들어질 때 정신이 살아 숨쉬게 될 것이다. 그러면 누가 이런 곳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고 싶지 않겠는가? 이런 아름다운 문화가 있는 곳을 아이들의 고향으로 만들어주고 싶을 것이고, 나아가 이곳에서 정착하여 살다가 이곳에 우리의 뼈를 묻고 싶어 할 것이다.

셋째로 태백의 의료 시설이 낙후되었다는 것도 태백에 상주하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이다.

태백의 의료 시설이 낙후된 원인에는 우선 인구가 적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지게 되고 경제성이 떨어지니 큰 병원이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 첫째 원인이다. 또 좋은 의사들은 경제성도 없고, 큰 도시에서 멀어 문화적인 삶도 낙후되어 있는 이곳 태백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의욕적인 의사들이 간혹 들어 왔다가도 막상 아이의 교육 문제가 눈앞에 닥칠 때면 거의 대다수가 서울이나 대도시로 아이를 먼저 보내고 혼자서 이곳에서 있다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되면 결국 자신도 이곳을 떠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결국은 교육의 열악한 환경이 의료의 낙후라는 고리와의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 태백의 의료 시설과 의료진은 이런 악순환 속에서 점점 더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낙후된 의료 환경 속에 살다 보니 태백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약간의 병만 들어도 인근의 지역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면서, 태백에서 펼쳐지는 의료 행위를 거의 신임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렇게 외지로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것은 결국 경제적인 손실만 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애착심도 줄어들게 한다. 이러다 보니 언제든지 경제적인 여건만 이루어진다면 이곳을 떠나 의료시설이 좋은 대도시
에 정착하겠다는 생각이 만연해진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태백에는 상주하여 정착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은 것이다. 정착하여 살겠다는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애향심이 길러지며 어떻게 이곳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살고 싶어하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태백에 상주하면서 살 수 있게 하겠는가? 우리는 그 문제를 좀더 근원적인 것에서부터 찾아서 해결해야만 한다.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의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는 계속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는 없다는 점을 이제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3. 지역의 인재를 키우고 자부심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시

정착하여 살 수 있고 나아가 미래를 꿈꾸면서 소중한 희망을 이루어 가면서 살 수 있는 도시로 태백이 변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인재를 소중히 여기면서 키울 수 있는 교육의 도시로 태어나야 하며 시민들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문화의 도시로 태어나야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누구나 이곳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태백에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학업 능력이 강릉이나 원주, 춘천과 같은 도시, 심지어는 삼척이나 동해와 같은 곳과도 비교하여 떨

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하루 빨리 떨쳐 버려야 한다.

이런 것은 학교와 시민 모두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루 빨리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 (1) 이곳의 우수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들을 나가지 말라고만 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태백시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속초나 동해, 횡성과 같은 곳에서는 시와 향토 기업이 합심하여 학교 기숙사를 지어주고 일정한 장학금을 주어서 우수한 인재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우수한 우리의 청소년들이 좋은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시와 향토 기업의 도움으로 강원학과 같은 기숙사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인재를 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설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굳게 가질 수 있으며 내 지역은 특별한 곳이며 자신을 키워준 곳이라는 애착심도 갖게 할 수가 있다.

- (2) 많은 자본을 가진 강원랜드가 주도하여 특목고를 설립하는 것이다. 강원도 횡성의 민족 사관고의 경우처럼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시설을 갖추고 이 지역의 인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인재도 불러모아 태백을 교육도시로서 변모시키는 것이다. 아니면 그런 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지역의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학교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줄 수 있어야 한다. 안동의 풍산중고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풍산중고는 아주 낮은 실력을 갖춘 학생들이 다니던 매우 낙후된 학교였다.

그러나 풍산강철에서 아낌없는 투자를 하여 학교에 기숙사를 지어준 후에 각종 장학금과 특혜를 주면서 인재를 유치하여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불과 3년의 투자 후에 지금은 명문 안동고를 넘어서는 실력을 갖춘 학교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것처럼 태백시가 함께 투자를 해서 명문 학교를 만들려는 의지를 갖든지, 아니면 특목고를 따로 설립하든지 양자 택일해야 할 것이다.

- (3) 의대나 한의대가 포함된 대학을 유치하는 것도 교육적으로나 의료적으로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의대나 한의대가 포함된 대학이 유치된다면 이곳에는 우수한 인재들이 대량으로 유입될 것이고, 또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좋은 문화적 환경도 조성될 것이다. 이것은 교육문제·문화문제·의료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해결책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런 대학을 유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몇 년 전 시민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태백 시민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머리끈을 질끈 동여매던 그런 노력만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성사될 수 있다. 대학생 1명이 시민 10명을 먹여 살린다고 한다. 강릉과 안동과 청주가 교육도시로 정착되어 수많은 시민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근본적인 기반도 대학 설립에 있다고 한다. 그곳에 대학이 없다면 지금 인구의 절반 이상이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태백에 그냥 보통의 대학을 설립하면 궁벽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우수한 학생들이 오지 않는다. 그러나 의대나 한의대가 포함된 대학이 설립되게 되면 우수한 인재가 물밀 듯이 몰려오게 되어 있다. 이것이 현 사회의 현실이다. 이처럼 교육도시로서의 탈바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의 설립으로 인하여 의료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됨과 동시에 이곳은 관광휴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일시적이고 흥미 거리 위주의 즉물적(卽物的)인 문화가 아니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신적인 문화를 지닌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위대한 자연이 위대한 예술가를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태백은 아름다운 산과 한강과 낙동강의 시원(始原)을 가진 그야말로 산자수명(山紫水明)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곳으로서 그야말로 완벽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도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 테마를 개발해야 한다.

시인과 소설가들이 머무는 곳, 유명 음악가가 머무는 곳, 유명 화가가 머무는 곳이 되어 많은 학생들과 사람들이 이 태백에 와서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작곡을 하고 그림을 그리러 오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 (1) 예술가들이 와서 창작과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술가촌(藝術家村)을 만들어야 한다. 인근의 여름 해변 시인학교나 설악산 백담사의 만해기념관 등의 예처럼 태백의 자연조건을 충분히 이용하여 여름의 '산상 시인학교'나 겨울의 '소설의 밤'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글을 쓰기에 좋은 장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또 '여름 산상 음악 학교' 또는 '여름 그림 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유명 음악가나 화가가 와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하면 태백은 예술의 탄생지로서 많은 사

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될 것이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이다.

- (2) 문학 체험의 공간으로서의 문학 코스를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 태백의 산과 발원지로서의 황지, 검룡소, 삼수령은 문학의 영감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자원이다. 이것을 이용한 문학 코스를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춘천의 <김유정문학관>이나 원주의 <토지문학관>, 평창의 <이효석기념관> 등이 지역의 문화적 자부심도 세워주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득도 얼마나 창출했는지 살펴 보면서 우리도 이런 문학 코스를 세우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다.
- (3) 문화적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고급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 얼마 전 개관한 태백 문예회관의 아기자기한 실외조경은 태백의 시민이라면, 그리고 한 번 가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시 가보고 싶어하는 참으로 고무적인 모습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공간에서 좋은 음악이 연주되고, 좋은 무용이 공연되고, 좋은 연극이 연중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면 태백시민들의 문화적 소양도 많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은 생길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그런 것을 창작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설과 더불어 예술가촌이 함께 만들어진다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세 번째 휴양지로서의 의료 시설을 개발 확충하고 휴양 시설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이것은 그 동안 대체산업으로서 많은 의견이 있어 왔는데 특히 이곳의 서늘하고 쾌적한 기후를 바탕으로 하는 관광휴양도시를 만드는 것이 가장 가능성 있는 산업으로 여기고 있는 분위기다.

태백은 주변에 1천 미터가 넘는 준령들이 곳곳에 뻗어 있고 또한 심한 경사지여서 가용면적이 전체 시 면적의 50%미만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빼어난 자연경관을 형성하여 민족의 영산인 태백산과 함백산 그리고 낙동강, 한강, 오십천의 발원지를 품어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휴양하기에 최적의 고원지역인 것이다.

특히 서늘한 기온과 맑은 공기 그리고 풍부한 강수량은 휴양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런 자연 조건을 잘 활용하여 의료시설을 확충한다면 태백은 조용하고 정말 좋은 이미지의 도시가 될 것이다.

인근 지역의 원주 기독교병원, 강릉 아산병원, 영주의 다미안 의원 등이 특별하고도 좋은 의료시설로 사람들을 불러들이며 그 지역의 이미지와 경제에 한 몫을 하듯이 좋은 의료시설이 갖추어지고 또 거기에 휴양시설까지 더해진다면 태백은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와서 편안하게 정착하고 싶어하는 도시가 될 것이다.

4. 맺는 말

빌바오 효과라는 것이 있다. 스페인 북부의 바스크 지방이 철강과 조선 사업의 쇠퇴로 경제적 쇠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하려는

도시 재건 운동의 하나로 바스크의 빌바오 주민들이 선택한 것은 엉뚱하게도 미술관 건립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빌바오 자치정부의 도전 정신과 창조적 의지로 뉴욕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처럼 혁신적이고도 파격적인 건물을 1억 5000만 달러를 들여 바스크 지방의 빌바오에 탄생시켰다. 그 결과 한 해 평균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불러들여 경제 효과는 한 해 1억 6000만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도 빌바오처럼 하지 못한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바른 정신과 의지다. 우리들이 무엇을 지향하며 사느냐 하는 바른 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투전장이나 도박장, 교도소 같은 것을 유치하자는 그런 저급한 발상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를 그렇게 즉물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어 가다보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현실적인 것만 추구하게 되면 미래는 없다는 것을 잊지 말자. 그리고 더 이상 우리를 낮추는 삶을 살지는 말아야 한다. 탄광의 검은 기억과 카지노의 향락적인 기억에만 기대다면 우리는 형이하학적이고 즉물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자. 빌바오 주민들처럼 더 형이상학적이고 더 정신적인 것을 추구할 때 비로소 현실적인 모든 것들도 채워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런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함께 이루겠다는 모두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처럼 지역의 인재를 키우고 자부심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시로 바꾸기 위해서는 누구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시민 모두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확고한 실천 의지와 함께 해야겠다는 마음과

도전정신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우리의 현실이 아닌 미래를 논의해야 하고, 나아가 내 아이와 내 손자가 자라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준다는 꿈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단지 이벤트성의 관광자원이나 문화행사 또는 단지 일시적인 경제적인 의미로서의 자원들은 태백의 미래와 관련하여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도 별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 이제는 건물 하나 세울 때도, 도로 하나를 새로 닦을 때도 도시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에 신경을 쓰는 그런 정신적인 삶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세심한 교육적이고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살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고 나아가 이곳에 산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면서 언제까지나 살고 싶어하지 않을까? 이제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문화에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태백을 꿈꾸어 본다.



폐광지역주민의 희망

- 강원남부주민(주) 소개 -



전무 안 정 규
강원남부주민(주)

강원남부주민주식회사는 지난 2000년8월 강원랜드의 지역협력사로서 폐광으로 실직한 근로자와 광원가족 및 4개시군의 주민들을 우선 채용하여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주민들이 설립한 명실상부한 주민기업이다.

강원남부권의 폐광진흥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민회사인 고한개발지역주민(주), 도계주민(주), 상동개발주민(주), 정선고원관광레저개발주(주), 태백시민(주)가 주주로 참여한 법인출자 설립회사이다.

현실적으로는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역할인 강원랜드의 각종 용역사업에 있어 서로 다른 지역적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접근하여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폐광지역 4개시, 군의 각 사업주체들의 합의에 의해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고 사업적가치를 공유하고자 설립되었다.

강원남부주민(주)는 강원랜드의 미화관리 및 경비보안 부분의 협력사로서 약 600여명의 직원들이 골프텔과 호텔&카지노에서 근무하고 있다. 미화관리는 객실정비, 일반정비, 기물관리로 크게 나누어져 호텔과 카지노의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경비보안은 호텔과 카지노의 보안 및 경비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 강원남부주민(주) 연혁

년 도	날 짜	내 용
2000	6.16	법인설립 준비회의 개최
	7. 6	발기인 총회 개최
	7.25	초대 대표이사 송계호 선임
	8.30	(주)강원랜드 미화,세탁부분 계약체결/(주)삼구 DSC컨소시엄
2001	9. 7	(주)강원랜드 미화관리 2차년도 계약체결
	9. 8	現사옥매입
	9.19	(주)강원랜드 세탁부분 계약체결
	11. 1	(주)강원랜드 경비보안 단독수행 계약체결
2002	3.27	정기주주총회 개최
	8. 8	現대표이사 남경문 선임
	7.18	ISO인증 획득

- 강원남부주민(주) 역할

강원남부주민(주)는 더 많은 부분에서 지역에 파급효과를 미치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실제로 많지 않다.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것 또한 한정적이다. 매출 대부분이 직원들의 임금으로 지출되는 입장에서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민의 이주방지 외에는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않다는 얘기다. 이런 부분을 극복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다. 사업영역확대와 강원랜드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더 많은 부분에서 그들의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사업적인 역할 외에도 강원남부주민(주)는 지역주민들이 강원랜드의 설립목적을 잊지 않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모체이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육성이라는 명목아래 설립되었지만,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의 목적은 이윤을 많이 남겨 주주들에게 그 이익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강원남부주민(주)인 것이다. 물론 강원남부주민(주)도 주식회사이다. 하지만 100% 주민자본으로 설립된 강원남부주민(주)는 분명히 강원랜드와 차별된다. 회사이익이 결국 주민들에게 100%돌아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수한 주민의 힘으로 설립되었고, 주민들의 고용창출이 목적인 강원남부주민(주)는 강원랜드가 그 원래의 설립목적을 잊지 않게끔 하기 위해 항상 전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강원랜드는 강원남부주민(주)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본다.

- 강원남부주민(주)의 주요성과

강원랜드가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하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말이다. 긍정적인 면만 살펴보면, 지역의 도시가 정비되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섰다. 또한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도 있었다.

강원남부주민(주)가 이룬 성과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또한 마지막에 언급한 부분과 일치한다. 상대적인 관점에서 강원남부주민(주)는 지역주민의 취업률이 강원랜드를 크게 앞지른다. 강원남부주민(주) 직원 모두가 광산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20대부터 50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직원이 광산지역에 거주하거나 어린시절을 보낸 사람들로 그들의 가족 대부분이 광산에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들이다. 광산이 문을 닫자 갈 곳이 없어진 대부분의 사람들을 강원남부주민(주)가 앞장서서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랜드와의 계약인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인력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른 미취업 주민들의 불만도 상당하다(표 1).

둘째 강원남부주민(주)는 4개 시군의 5개 주민(주)에서 자본금을 출자하여 만든 만큼 그 기반을 5개 주민(주)에 두고 있다. 그럼 이 5개 주민(주)는 어떻게 설립되었는가? 지역주민들이 시장에서 한푼 두푼 모은 돈, 광산에서 석탄가루를 먹어가며 모은 돈들이 쌓여서 설립된 것이 5개의 주민(주)인 것이다. 결국 강원남부주민(주)는 주민들의 자본이 모여서 이룩된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주민이 만들고 옆집 아저씨, 앞집 아줌마가 일하고, 또 지역주민의 정서를 이해하고 회사를 설립한 지역주민이 경영인으로 일해가는 회사, 이것이 바로 강원남부주민(주)이다. 주민이 만

들고 경영하는 회사로서 지역 내 크게 입지를 굳히고 주민들에게 사랑 받을 수 있었다는 것 또한 강원남부주민(주)의 성과라 볼 수 있다.

구 분		폐광지역 4개 시 군
미 화 관 리	광 산 근 로 자	122
	광 산 근 로 자 가 족	270
	해 당 무	28
	소 계	420
경 비 보 안	광 산 근 로 자	3
	광 산 근 로 자 가 족	138
	해 당 무	20
	소 계	161
계	광 산 근 로 자	125
	광 산 근 로 자 가 족	408
	해 당 무	48
	총 계	581

표 1. 강원남부주민(주) 광산가족현황(2003년 10월 기준) (단위:명)
(폐광지역 4개 시 군 : 태백시, 정선군, 삼척시 도계읍, 영월군 상동읍)

셋째, 강원남부주민(주)가 설립했을 때 호텔 및 카지노의 청 소, 경비 업무에 대해서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기술적 노하우 없이 설립된 회사인데, 생전 가보지도 못했던 호텔 업무에 대해서 알 리가 만무했다. 하

지만, 지역을 살리겠다는 열정하나 만으로 지역 외 여러 전문업체들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조금씩 노하우를 쌓기 시작했다. 현재는 호텔 청소분야의 10년차들이 맡을 수 있는 호텔업무를 3~4년차들이 해내고 있으며, 업무수행 면에서도 그들과 비교해 전혀 손색이 없다.

이는 결국 강원남부주민(주)의 직원들이 가진 열정이 업종의 전문화를 앞당긴 전인차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회사가 설립 된지 얼마 안되 이만큼의 노하우를 쌓을 수 있었다는 것 또한 주요성과라 할 것이다.

- 강원남부주민(주)의 기술적 현황

강원남부주민(주)의 주요성과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그들의 기술적 노력은 기존의 업체와 비교해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 강원도내 최대, 최고의 청소, 경비 업체라는 타이틀과 2002년 획득한 ISO인증서가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급진적 발전은 회사의 지속적인 투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매년 시행되는 서비스 교육은 강원랜드에서 시행되는 교육 외에도 회사 자체적으로 국내의 유명한 서비스 교육 강사진을 초청하여 실시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였으며, 전문화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투자가 있었다.

미화관리부분에는 직원파견교육과 컨소시엄유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기술력을 확보해 왔으며, 경비보안의 경우 경기대학의 경호경비학과와 교육협정을 체결해 국내 최고의 강사진으로부터 1년 여간 경비경호업무의 전문화된 지식과 기술을 전수 받았다. 이 모두는 강원남부주민(주)의 직원들이 전문인력으로서 이분야 최고가 되어야만 살아남는다는 전제하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 졌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그림1, 그림2).



그림 1. 경비보안 직무수행 교육



그림 2. 직원서비스 교육

- 강원남부주민(주)의 향후과제

강원남부주민(주)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먼저 사업영역의 확대이다. 현재는 강원랜드 협력업체로서의 역할이 회사의 전체 사업이다. 하지

만 향후에는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무대로 나갈 계획이니 만큼 영업부분을 확대하여 다양한 부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지역주민의 기업으로의 확고한 지지를 받기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동안 주민들이 회사에 불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다. 이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 좀더 투명한 경영을 약속해야 한다. 주민이 주인인 기업에서 주민에게 털끝만큼이라도 불신이 있다면 내부에서 끓고 있는 상처를 키우는 형국이니,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로 이곳 지역주민들을 위한 고용창구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원랜드와 협의해 나가야 한다. 더 많은 부분에서 강원남부주민(주)가 강원랜드의 사업에 참여하여 지역주민이 100%직원인 회사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광산지역의 실직자들을 수용해야만 하며, 이 부분에 강원랜드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 강원남부주민(주)의 비전

강원랜드에 버금가는 아니, 그 이상의 고용환경조성을 위해 강원남부주민(주)는 많은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것이 그들의 몫이고, 의무이기 때문이다. 강원남부주민(주)가 성장해야 주민들의 고용창출이 확대되고, 주민들의 소득 또한 증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다.

요컨대 강원남부주민(주) 직원들의 꿈이 이루어지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진정한 향토기업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역의 협조와 믿음이 절실하다. 이러한 요건만 전제 된다고 하면 강원남부주민(주)는 더욱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감히 예측해 보건데, 강원남부주민(주)는 가능성을 가진 회사가 아니라, 확신이 서는 기업으로 조만간 우리 앞에 설 것이다.



새로운 농업의 도전 유리온실



대표 박 병 국
(주) 발원지태동

I. 유리온실의 건립

1993년경 김영삼 정부에서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코자 농민들에게 영농자금을 융자해주었다.

농민도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세계의 농업을 따라 가지 못하니 뭔가 새로운 농업의 도전이 필요한 때라 하고 농민들을 새로운 농업 환경으로 몰아내었다. 이때 우리 태백시의 뜻 있는 농업인과 일부 투자자를 포함한 조합원 9명이 뜻을 모아 태백산 영농조합이라는 법인을 만들었다.

자부담 20%, 정부융자금 30%, 정부보조금 50% 라는 빛 좋은 유혹에 넘어가 씹지 돈을 모아 정부보조, 융자금을 보태 20여 억원을 들여 1994년 국내 단일 최대 규모의 유리온실을 착공하게 되었다.

당초 대구대학교가 들어오기로 되었다가 포기한 현재의 통동 181-3번지

일대의 14.035평 부지에 연건평 6500평의 유리온실을 짓고 부대시설 300여 평을 짓는 대규모 시설이었다.

드디어 1995년 8월15일 오이(샤프)를 파종하여 그 해 12월에는 수확된 오이를 일본으로 수출하며 이제 뭔가 되는구나 했지만, 그 해 겨울 몹시 추워 온실을 적정온도로 유지하려고 기름보일러의 가동이 많아졌고 그로 인한 엄청난 기름값 지출 때문에 적자경영이 되고 말았다.

자연적 기상조차도 좋지 않았지만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농사는 잘 지었지만 경영에 대한 경험 부족이 더욱 적자 경영을 부채질하고 말았다.

그래도 조합원들은 조금 더 열심히 하다보면 뭔가 되겠지 하며 이리저리 돈을 끌어 모아 적자로 인한 손실을 메꾸어 나가며 근근히 유리온실을 유지해 나갔다.

그러다가 IMF로 인한 경기침체, 기름값 상승, 폭설로 인한 유리온실의 유리파손으로 심각한 적자운영에 빠지고 말았다.

조합원들은 그래도 다시 일어서야겠다는 결의를 내보이며 1999년 유리온실을 완전복구하고 다시 작물재배에 들어갔으나 그 해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더더욱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고 급기야 조합원들은 동요하기 시작하여 투자를 기피하는 사람이 생겨났다.

그동안 유리온실에 투자하다가 알거지가 된 사람도 꽤 있어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이 4명이나 돼 나머지 5명이 근근히 유지하였으나 서기 2000년이 되자 한계에 봉착하여 유리온실은 폐허가 되고 말았다.

나머지 조합원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하여 고심하다가 서기 2002년 나(방병국)에게 모든 것을 양도하고 어쨌거나 유리온실을 살려보라고 했다.

서기 2002년 나는 1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여 유리온실을 완전복구하고 재배작물로 '파프리카'를 선택하여 새로운 재배 시설을 갖추고 생산물을 모두 일본으로 수출하는 길을 열었다.

서기 2003년 태백산 영농조합법인을 (주)발원지 태동으로 법인을 변경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되었고 서기 2003년에 200.000\$이상의 수출을 하기에 이르렀다.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의 농민들에게 새로운 농업을 시도하라고 용자해주고 보조해주며 험한 농업경영 판으로 밀어냈으니 전통적 농업에만 의존하던 농민들에게 새로운 시련의 무대였던 것이다.

결국 많은 농민이 경영에 어두워 알거지가 되어 모두 다 날리고 포기해 버린 유리온실을 맡아 새로운 가능성에 재도전 장을 내고 보니 두려움이 앞서나 앞서 포기한 농민들의 한숨과 피땀을 거름 삼아 기어이 성공하리라고 다짐해 본다.

II. 유리온실의 전망

농산물은 생산과 유통업체가 분리되어 있다.

농산물은 농가에서 경쟁적으로 생산되지만 수집, 가공처리, 포장 등의 업무는 대부분 수출업체가 담당한다.

또한 농산물은 생산기간이 길고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 놓여 있다고 보아진다.

향후 유리온실은 ISO 9002인증으로 농산물의 규격화와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특히 파프리카 전문생산과 수출단지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점차적으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수출 능력을 키워 현재보다 높은 수익률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서기 2004년도에는 가공분야에도 심혈을 기울여 부가가치가 높은 농업을 지향 할 것이다.

1차목표로 2004년에는 파프리카 수출을 약 450,000\$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흑자경영의 원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 태백의 유리온실은 지역농업에서의 체계적·계획적 농업의 토대가 되어 규격품의 농산물, 신선한 농산물의 생산에 앞장서고자 한다.

또한 잔류농약의 위험성과 농약관리와 방제시기 등을 널리 알리며 특히 신선 농산물의 특성상 선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조언을 할 것이다.

최근 들어 환경오염문제 및 잔류농약에 대한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함께 신선한 농산물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리온실은 앞으로 농업의 가야할 방향과 농산물의 생산방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태백지역은 고랭지채소를 주로 재배하는 지역이므로 한 작물의 계속 재배로 인한 토양의 황폐화로 인해 작물에 질병이 많아지며 과잉생산으로 인한 농업기반 붕괴가 염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작물의 다양화와 새로운 작물재배 시도로 내수와 수출을 겸용하는 방향으로 농업의 형태를 바꾸어야 할 시기라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리온실이 그 중심이 돼서 일정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출농업의 생산기반 조성, 수출방법 및 수출에 대한 방해물 제거에 대한 방안모색, 대외적인 경쟁력에서의 가격과 품질관리방법, 작목선택방법, 물류체제의 낙후와 과중한 물류비용의 절감 방법 등을 유효 적절히 대응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시장정보 마케팅의 활동강화 등을 제공하여 유리온실이 지역농업에

많은 영향을 주어 함께 다같이 잘 살수 있는 태백으로 만드는데 기여하리라 믿는다.

Ⅲ. 파프리카 재배

파프리카는 착색단고추라고 하는 품종으로 남아메리카 원산 고추의 변종으로 옛날부터 중요한 채소로 재배되던 품종이다.

채소의 보석으로 불리는 파프리카는 과육이 단단하고 매운맛이 없으며 파랑, 노랑, 빨강 등 다양한 색깔을 띠는 품종으로 피망보다 더 크고 과육이 더 두꺼운 특징이 있으며 저장기간이 긴 기능성 채소이다.

우리 (주)발원지태동에서는 연간 200톤의 파프리카를 생산하여 현재 전량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서기 2003년도 저 농약 품질인증으로 생산되고 있는 파프리카를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생산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태백의 고지대와 밤낮 기온차가 큰 지리적 특성에서 자란 태백의 파프리카는 저장기간이 길고 단단한 과육이 장점으로 수출시장에서 단연 인기가 좋다.

현재 5000평의 유리온실에서 펄라이트라는 특수한 모판에서 재배되는 파프리카는 약70000주이다.

파프리카는 두줄기를 일자형이나 V자형으로 유인하여 2~3m까지 자라도록 끈으로 지지대를 해주고 있으며 재배기간은 약297일이고 수확기간은 152일 정도이다.

대략 평당 수확량은 35kg이고 제대로 자라면 5000평에 224톤의 물량이 확보되는 셈이고 이를 전량 수출했을 때 6억원의 매상을 올릴 수 있는

수치가 나온다.

현재 우리는 색깔이 좋은 빨강, 노랑 두가지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는데 전량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홍천강 식품에서 수출을 대행하고 있다.

파프리카의 성분과 수출품의 기준규격을 다음에 실는다.

□ 착색단고추(파프리카)성분

	에너지	수분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비타민A	비타민C	카로틴	당도
RED	36	90.6	0.9	0.3	7.65	940	150	1700	8.1
YELLOW	35	91.1	0.9	0.3	7.1	100	140	800	7.6
ORANGE	31	92.0	1.2	0.3	5.8	780	200	1400	7.4

□ 수출 기준 규격 품

등 급		개수 / 중량	중 량	중량 / 과
A등급	L	24-26과	5kg	180-220g
	M	30과	5kg	150-180g
	S	38과	5kg	120-150g
	2S	48과	5kg	120g이하

IV. (주)발원지 태동(유리온실)의 현황

○경영체명 : 농업회사법인 (주)발원지 태동

○대 표 자 : 방 병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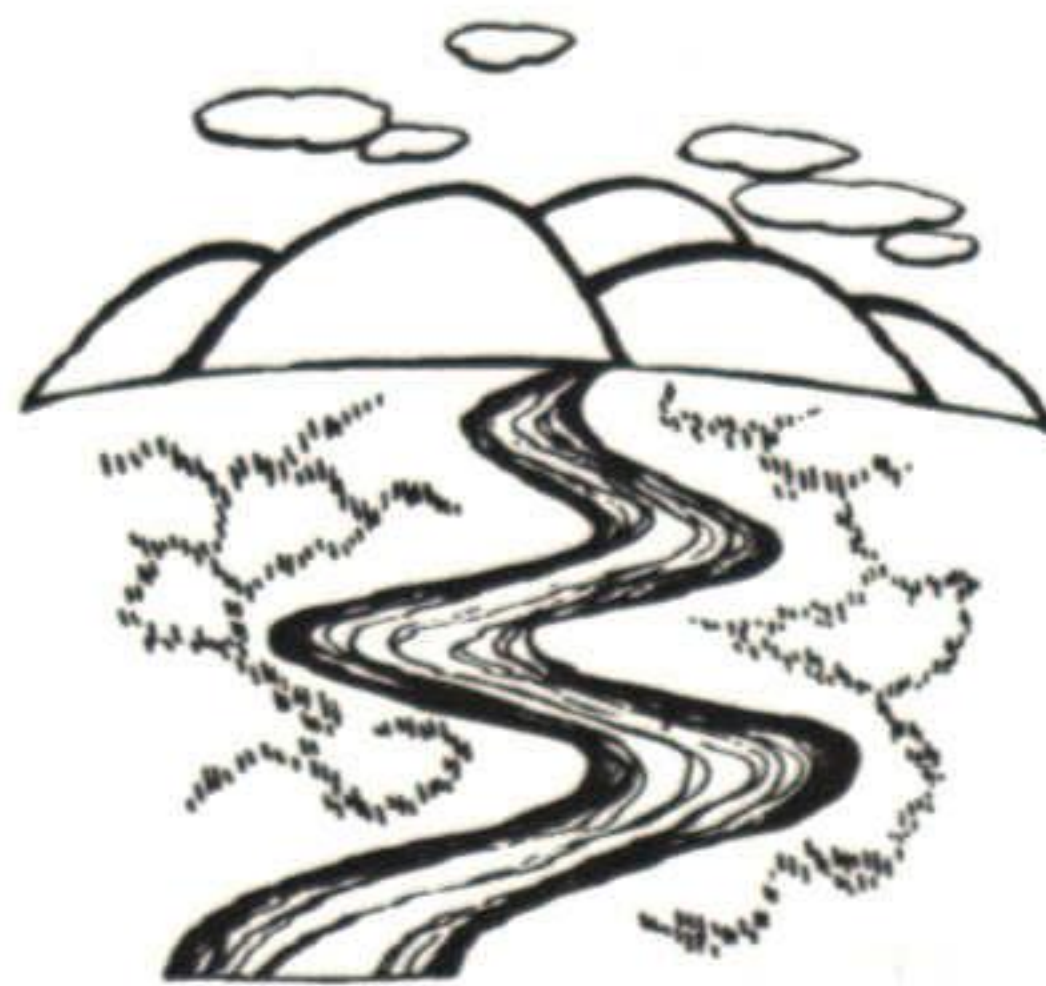
○부 지 : 태백시 통동 181-3번지 외 1필지(14.035평)

○구 성 원 : 주주(대표이사 외3인)

○직 원 수 : 정규직19명, 일용직 2명

○시설현황

온 실	집하장	선별장	저온창고	예냉실	선 별 기	차 량	지게차
4동 6.500	1동 150평	100평	4동 90평	1동 10평	중량식2조 형상식2조	5톤1대 2.5톤1대	2.5톤 1대
파렛트	양액기	세척기	화 목 보일러	사무실	부 지	김치공장 예정부지	
200개	4조	1조	2대	50평	12.000평	200평	



물의 도시 태백



장 성 일
태백문화원
부 원 장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와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연못을 품속에 간직하고있는 태백시는 물의 도시이지만 지역 내 도처에서 수질 오염의 징후가 보이고 수자원이 줄어들고 있어 아쉬움을 사고있다.

태백에서부터 물길이 시작되는 한강과 낙동강의 물길 길이는 북으로 흐르는 한강이 514km, 남으로 흐르는 낙동강이 523km로 낙동강이 한강보다 9km 가량 길다.

검룡소와 황지연못간 고개인 태백시 삼수동의 피재는 고개 정상의 빗방울이 한강과 낙동강 오십천등 수도권과 영남 영동지역등 3갈래로 흘러가는 분수령이어서 삼수령이다.

물은 동물과 식물등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꼽혀 옛부터 소중히 여겨왔다.

극심한 가뭄으로 논바닥과 백성들의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는 가운데 숨을 거두게된 조선 3대 임금 태종(太宗)은 “내가 죽어 뉘이라도 있다면 오늘만은 꼭 비가 내리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태종이 임종하던 날인 음력 5월10일 내리는 비는 태종우(太宗雨)라 불리고있다.

우리 선조들은 날마다 불볕 더위가 계속되는 고통속에서도 달무리가 지거나 개구리 울음 소리가 유난히 클 때 등 징조가 나타나면 비가 올 것을 미리 예감, 한숨을 돌렸었다.

사람도 체질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체중에서 몸속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70-90% 가량 될 정도로 물 의존도가 높다.

물 비중이 평소보다 1.2%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을 느끼게되며 5%가 부족하면 혼수상태에 빠지는데 이어 12%가 모자라면 생명을 잃게된다.

태백은 이처럼 소중한 자원을 무한정 용출해내는 도시인만큼 지난해부터 물을 주제로한 행사가 부쩍 늘어나 물의 도시다운 위상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태백문화원은 지난해 6월4일 황지연못에서 제1회 낙동대제(洛東大祭)를 개최, 낙동강 발원제를 봉행하는 한편 황부자 전설을 재연하는 장타령 등 행사를 벌였다.

낙동대제는 태백문화원이 지난 97년부터 7년째 벌여온 한강대제(漢江大祭)와 함께 태백의 발원지적 특성을 국내 전역에 부각시키는데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매년 8월 봉행되는 한강대제에선 용신제를 올리며 국태민안(國泰民安)을 빌고 유두면 시식회와 탁족놀이 등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는 축제 프로그램

램이 펼쳐지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8일엔 황지연못에서 제1회 낙동강 사랑의 달 기념 어린이 백일장 사생대회가 지역 내 초등학생 2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려 수자원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겼다.

국내 성악가 5명은 지난해 10월11일 황지연못에서 열린 낙동강 발원지 음악회 무대에 올라 축배의 노래 등을 열창, 낙동강의 무한한 잠재력을 노래했다.



국민화합 기원 사물놀이

한국자원봉사회 회원 80명은 지난 10월 12일 새벽 3시부터 태백산을 산행, 산 정상 천제단에서 검룡소와 황지연못 물 합수제를 올리며 국민화합을 기원했다.

이처럼 물은 너도나도 앞다퉈 찬사를 토해낼 정도로 소중한 자원만큼 바닷물을 정수, 깨끗한 물을 얻기위한 담수 공장이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와 미

국 등 국가에서 가동되기 시작해 해마다 15퍼센트 가량씩 늘어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선 담수 공장 800여 개를 가동, 1일 평균 식수 2억 3,000 리터 가량을 생산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에선 애리조나주 유마시의 담수 공장 1개만해도 콜로라도 강 하류의 소금물을 퍼올려 1일 평균 담수 3억3,000여 리터를 생산해내고 있다.

바닷물을 식수와 농업용수 등으로 쓸 수 있는 담수로 만드는 방법은 특수한 막을 이용하는 역삼투압 방식과 열을 이용, 바닷물을 증류시키는 증류 방식 등 2가지가 시도되고있다.

현재까지는 바닷물을 담수로 만드는 비용이 커 부담이 되고있지만 보다 경제적인 바닷물 정수 방법만 개발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담수 공장이 가동될 날이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강발원지 검룡소

특히 태백시는 근래 들어 청정하천으로 수질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던 황지천에 녹조류가 다량 발생, 수질 보전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어 담수공장

을 가동해야될 날이 멀지않을까하는 위기감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

황지연못에서 물길이 솟구쳐 오르는 황지천은 태백시가 국내 제일의 광산도시로 명성을 떨칠때엔 무연탄 가루로 중오염돼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릴때면 물빛을 검게 칠하던 하천이다.

그러나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으로 지난 89년부터 상류의 한성광업소 황지광업소 태영광업소 우성광업소등 태백광업소를 제외한 대다수 탄광들이 모두 문을 닫게되자 물빛이 맑아지는 등 수질이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

이와함께 황지천은 지난 98년 태백시의 구문소동 하수종말 처리장이 가동되자 1급 하천에서만 살 수 있는 버들치와 메기등 어류와 수달 등 수중동물 원앙 등 조류가 서식하기 시작, 청정 하천으로 수질이 회복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수질이 좋아지자 근래들어 황지천엔 학까지 날아들어 오고있어 학이 서식하는 상서로운 동네라는 의미를 지닌 서학골의 지명이 새삼 돋보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태백시 여성회관 일대 황지천엔 녹조류가 발생,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있어 생활하수와 축산폐수 등에 섞인 질소와 인 등 오염 발생원들이 대거 유출되고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황지천과 소도천 철암천 골지천 등 태백 시내 4개 하천은 총 연장이 57.6km나 되지만 생활하수등 폐수 차집을 위한 관로는 33.0km에 그쳐 일부 폐수는 하천으로 유출되고있는 실정이다.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인 차집 관로는 완전 밀폐되지못해 차집된 생활하수와 축산폐수등마저 황지천을 비롯한 지역내 하천으로 재유출되고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완전 밀폐되지 못한 차집관로는 빗물 등 하천으로 흘러야될 자연수가 차집관로로 스며들어 구문소동 하수종말 처리장의 정상 가동을 방해, 차집된 생활하수와 축산폐수 등의 적정 처리에 장애가 되고있기도 하다.

구문소동 하수종말처리장은 중오염된 폐수속에서만 살 수 있는 미생물을 이용, 폐수를 정화시키고있지만 차집관로를 통해 이처럼 깨끗한 자연수가 상당량 스며든 폐수가 유입되자 정화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하수종말 처리장측은 분뇨등으로 오염된 폐수를 폐수 정화조에 추가 투입시켜 폐수 정화용 미생물이 활발하게 살수 있도록 해주고있는 실정이다.

한편 황지천 상류의 서학골엔 돼지 등 가축을 사육중인 축산단지가 축산폐수 유출과 악취 발산으로 하천 수질과 대기중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지만 조기 이전되지 않고 있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제례

서학골은 탄광지역 종합개발 사업인 서학레저단지 길목에 자리잡고있어 태백시는 축산단지를 여타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계획을 추진중이지만 담보 상태에 빠져있다.

축산단지 이전 후보지로는 당초 구문소동 영풍산업 폐광지가 거론됐었지만 태백 모터스포츠 경기장이 들어서자 여타 후보지 선정이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영풍산업 폐광지를 제외한 여타 후보지 선정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벽에 부딪치자 태백시는 개별 보상을 통한 축산단지 이전 계획 등을 검토중이지만 이마저 여의치 못한 형편이다.

태백시는 1일 폐수 처리 능력이 1만톤인 구문소동 하수종말 처리장을 가동하면서부터 생활하수 등 폐수는 모두 차집관로를 통해 차집, 황지천 등 하천엔 자연수만 흐르도록 하기로 했었다.

차집관로 하자 발생 여부를 조사, 차집관로 확충 계획을 검토하는등 생활하수 등 폐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는 양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

이와함께 석회암 지역인 태백시는 각종 개발 사업이 벌어질때마다 하상에 균열이 생기며 하천수가 지하로 복류, 건천으로 전락되는 사례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커다란 걱정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태백시를 대표하는 관광명소인 태백산 도립공원내 당골광장-청원사간 당골천은 20년전부터 청정 옥류수가 흐르지 못하는 건천으로 전락됐지만 현재까지도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있어 관광객등으로부터 아쉬움을 사고 있다.

이 구간 당골천 800여m는 태백시가 지난 84년11월 당골광장위 계곡에 당골 취수장을 개설, 1일 평균 4,000톤 가량씩 상수 원수를 취수하면서부터 물부족 현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에 이어 지난 89년5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태백산 개발 사업이 추진되며 하상 정비 공사 등이 벌어지자 이 구간 당골천은 하상 도처에 균열이 생겨 상수 원수 취수후 흐르던 소량의 물마저 복류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구간 당골천은 태백산 산행로 바로 옆에 자리잡고 있지만 물 한방울 흐르지 않는 삭막한 모습으로 비춰져 지난 1월9일-18일까지 개최됐던 제11회 태백산 눈축제 관광객등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태백산은 겨울의 눈축제에서부터 봄의 철쭉제 여름의 쿨시네마 페스티벌 가을의 태백제 등 향토 축제의 주무대가 되고있어 연간 200만명 가량이 관광객들이 이 구간 당골천 일대를 관광하고 있다.

태백산 당골 등산로 4.4km중 당골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등산로 2km 가량은 약수나 다름없이 깨끗한데다 물맛까지 뛰어난 청정 옥류수가 계곡 가득 흘러 산행객들로부터 호평 받고 있다.

이에따라 건천으로 전락된 당골천에 또 다시 청정 옥류수가 흘러 넘치도록 하려면 광동댐 등 여타 상수원 취수량을 늘려 당골 취수장의 취수량을 줄이고 하상을 보강, 계곡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되지만 전도가 불투명하다.

태백시는 당골 취수장 취수를 중단, 계곡물이 당골천으로 계속 흘러내리도록 하려면 광동댐 수돗물 구입량을 늘려야 되지만 물 구입비가 연간 4억 6,700여만원이나 들어 부담이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한국수자원공사 태백권 관리단은 현재 원가의 80% 가량선에 머물고있는 상수 원수 판매가를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있어 시의 수돗물 구입비는 해마다 증가, 당골천 취수 중단 가능성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1일 수돗물 사용량이 3만2,000톤 가량인 태백시의 취수장별 원수 취수량은 당골과 원동 백산 화전 혈리등 5개 자체 취수장이 1만6,000여톤 광동댐이 1만6,000여톤으로 절반 가량씩 차지하고 있다.

태백시는 건천으로 전락된 당골천에 또 다시 계곡물이 흘러내릴수 있도록 하천수 복류 지점을 찾아내 콘크리트로 타설하는 등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복류 지점 파악이 힘들뿐더러 사업비 마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커다란 성과를 기대키는 어렵다.

태백시는 물의 도시이지만 이처럼 수질이 악화되고 수자원이 줄어드는 등 악재가 잇따르고있어 관계 기관 단체와 주민들이 합심, 하루라도 빨리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신년고언



이 장 섭
태백문화원이사

다사다난했던 재미년이 지나고 희망찬 갑신년이 밝았다.

원숭이의 다양한 재능을 지켜보며 올 한해는 작년과는 달리 크고 작은 대립과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평화롭게 해결 해 나가는 행복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전쟁과 가난 그리고 기아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거짓과 탐욕, 독선과 증오로부터 고통과 슬픔에 젖은 사람들조차 새해에는 화해와 용서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상생하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복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IMF외환 위기 이후, 온 국민의 단합과 애국심으로 국가적 도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였지만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인하여 또 다시 온 나라가 경제 불황에 휩싸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의 태백시는 탄광 산업의 몰락으로 인한 극심한 경제 공황에 빠져 아직 대체 산업의 초석도 다지지 못한 상태에서 급속한 경제력 약화와 인구 감소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이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에서는 우리 태백시의 시급한 경제 현안에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런 와중에 지방자치 공무원들의 애타는 지방경제 살리기 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산재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태백 시민은 일심단결하여 우리 지방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대체 산업 육성으로 지방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먼저, 앞서 언급했지만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깨닫고 우리의 행보를 가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경기 불황은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고 우리 같은 관광자원 도시는 관광객 감소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처럼 외지인에 의지하는 관광사업뿐만 아니라 대체 사업 개발과 유치에도 과감히 나서야 할 때다.

서학골 개발사업과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의 유치에 가일층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그 외에도 중소 민자 유치 사업에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현대 자동차 공장을 유치한 지방자치에서는 외국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의 행정편의를 위해 지명과 지변을 현대측의 요구대로 바꾸어주고 경찰서 위치까지 바꾸어 주는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해 주고 있다고 한다.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산재한 법안과 행정의 장애 요소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태백시와 같은 지리적, 자원적인 결함요소가 많은 지역에서
의 민자유치사업에는 행정적, 법적 제안 요소를 과감히 정비, 축소하거나
특혜에 가까운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면 유치할 수 없는 것임을 깊이 인식
하고 공무원과 주민들의 일치 단결된 모습으로 이들 장애를 없애거나 정비
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공장유치신청을 위해 서울에서 내려온 부녀자를 부동산 투기꾼취급을 하
는 느낌이 들었다는 어느 투자자의 증언은 우리가 정녕 지역 개발의 의지
가 있는가 하는 반성을 하게 한다.

이러한 각종 대체 산업의 육성과 개발에는 이를 기획하고 실천해 나가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개발경험이 있는 회사나 인력을 조사 발굴하여 용역
을 주거나 특채를 통한 인재등용 등이 필요한 것이다.

모든 사업의 주체는 사람이다. 능력 있는 한 사람이 무능력한 사람 수
백명을 관리 보전할 수 있듯이 인재의 등용이야말로 시급한 지역 현안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인재의 등용에 버금가도록 중요한 것은 지역적인 특색에
의한 님비현상이나 학벌과 지방색의 타파이다.

기존의 세력가들은 자신들의 지엽적이고 일시적인 피해나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희생정신을 가져야 한다.

이들의 희생정신이야말로 낙후되어 있는 태백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깊이 깨닫고 과감하게 양보와 협조를 발하
여야 할 것이다.

그 다음은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외부 세력과 보수적이고 약간은 정체주
의요 현재지양주의인 기존세력과 긴밀한 협조와 타협으로 일심동체가 되어

도시의 각종 현안들을 적극적이고 도발적으로 추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12·12이후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서학골 개발 사업과 국민안전 체험 테마파크 사업도 도시의 전 역량을 모아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 행정부는 나름대로 애로와 어려움의 있다하더라도 현재의 사업 추진 속도는 너무 완만하다고 판단된다.

기존의 중앙정부지원자금을 안이하게 도로공사등과 같이 특별한 기술이나 방책이 없어도 되는 사업에만 투입하지 말고 각종 개발사업 또는 대안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도로의 개설과 확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지만 지역의 생존권이 달린 대안 사업 개발이 우선이다.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도로사업은 타지방과 태백을 잇는 국도선의 시급한 확장 사업이다. 도로의 개설과 확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지만 지역의 생존권이 달린 대안 사업 개발이 우선이다.

공사를 시작한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국도 38호선 확장공사에 대한 지역 수장들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이 공사는 우리태백시의 생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경부고속도로가 우리나라 산업경제 중흥의 충신이었던듯이 국도38호선의 4차선 확장개통이야말로 말로 주5일 근무제시행 원년인 갑신년을 맞은 태백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생명줄임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지역 국회의원과 기관장들은 국도 38호선의 조기 완공을 위해 혼신의 역량을 발휘하여야 한다. 아울러 시민의 결합된 역량도 함께 한다면 현재의 예정공기를 훨씬 앞당길 수 있으리라 굳게 믿는다.

태백시의 또 하나의 중요한 자원은 강원랜드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강원랜드가 공사화 되어있는 현 시점이 우리 태백을 위한 좋은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강원랜드와의 긴밀한 협조로 사원숙소와 복지시설의 조속한 태백유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지속되고 있는 인구의 감소를 막아야 한다.

인구의 감소는 산업자원의 감소나 삶의 질 감소에 의한다.

대체 산업유치의 시급성은 여기에 기인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추진도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태백시의 여러 가지 대안사업의 특성은 주로 외지인 유치로서 나름대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강원랜드의 복지시설 유치를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절대 부족한 여러 가지 지역민의 욕구 충족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학금정책의 확대나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비상대책 등으로 질 높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지역민의 가장 중요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우리 태백의 장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파스테르유업사의 민족사관학교나 안동유숙과 같은 대안학교는 우리 태백의 교육발전을 위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강원랜드의 지원과 협조를 대안으로 태백의 지역적 특색에 맞는 대안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지역 교육개발의 혁명적 대안사업으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교육개혁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지역 문화의 개발사업이다.

아무리 시설이나 볼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지역 특색에 맞는 문화의 부재는 정신적 공황에 빠져버리고 지역민이나 외지인 엄청난 문화욕구의 도전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탄광도시의 특색이나 천혜의 환경을 특색으로 한 특화된 고원지방문화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인 것이다.

지방자치마다 독특한 문화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현실에서 탄광도시는 아주 훌륭한 문화의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천혜의 자연 환경을 테마로하는 차별화된 문화개발도 매우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

축제 위주의 문화자원개발은 자칫 일과성과 흥행성에 치우치기 쉬워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소외감을 느끼게 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이고 복지정과 교육성을 가미한 문화사업이어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회관의 개관으로 지역의 문화발전에 큰 획을 그었다.

이 좋은 기회를 이어, 보다 질 좋은 각종 예술공연을 연속적으로 펼쳐 지역민과 외지인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먹거리 개발도 시급하다. 현재 태백의 대표적인 먹거리로는 한우고기 숯불구이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는 실정이다. 고원지대에 걸맞는 특색있는 먹거리의 개발이야말로 지역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산채나물을 재료로 한 식품이나 한약재를 상품으로 한 약령시장의 개발, 감자나 옥수수를 주재료로 하는 식품의 개발등 대표적인 이 지역의 특산물을 최대한 활용한 특색 있는 먹거리의 개발이 우리 태백의 고유한 먹거리 자량이 될 수도 있겠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대안이 제시되거나 발전방향을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일 개인의 문제가 아닐 우리 태백 시민 전체의 생존권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라는데는 이의가 없으리라 판단된다.

태백시민 모두는 각자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서 창의성과 독창성을 발휘하여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매진하여야 한다.

무사안일과 기득권 유지에서 과감히 벗어나야만 산다는 것을 우리 모두

는 명심하여야 한다.

공무원들은 이러한 지역의 현안을 가슴 깊이 새겨 지역 경제 살리게 나타나 할 것 없이 솔선수범 하여야 할 것이다.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피를 토할 각오로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정신으로 일을 해야 하며 태백시민이 잘 살아야지만 지방자치 공무원들도 함께 잘 살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는 수의 전쟁이다.

인구가 많아야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압력이나 소외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으며, 우리의 요구를 과감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더 이상의 인구 감소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제 갑신년 새해는 우리 태백을 살리고 발전시키는 원년이 되도록 관민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어야겠다.

후세에 물려주어도 부끄럽지 않을 자랑스런 태백,

살기 좋고 편안한 고원휴양의 도시 태백,

누구나 오래 건강하게 잘 사는 도시 이곳 태백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중국의 역사기행을 다녀와서-

서안 · 장가계 역사기행



장 화 운
한국예총태백지부장
태백문화원 이사

지난 2003년 태백문화원의 제6대 김강산 원장이 취임하면서 태백문화원의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되었고 이사진의 결속과 전문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역사기행을 해볼 것을 희망하는 김강산 원장님과 주양식 부원장님, 장성일 부원장님과 여러 이사들의 의견으로 2003년 11월에 우리의 역사와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 중국을 그 중에서 서안과 장가계를 목적지로 정하게 되었다.

사업과 바쁜 일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들이 많아 아쉬운 가운데 모두 아홉 분의 일행으로 중국역사기행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일행 중엔 마침 태백문화원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나영찬 국장이 미

국에 거주하는 신부와 결혼을 코앞에 두고 그 직을 사임하게 되는 섭섭함으로 원장님의 권유로 이번 기행에 함께 동행하게 되었고, 일행 중 유일한 홍일점인 권규숙 이사님이 여성 혼자란 불편함 때문에 절친한 친구 분인 서점자 여사께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특별한 우정을 보이며 동참하게 되었다.

중국으로 역사기행을 실행하게 된 과정은 김강산 원장님의 중국과 우리나라의 올바른 역사적 이해와 우리의 역사와 문화의 인식제고를 위한 일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셨고 흔하게 이루어지는 여행을 위한 여행이 아니라 문화원의 이사들답게 공부하고 배우는 뜻 깊은 기행이 필요하다는 두 분의 부원장님과 이에 동의한 이사들의 의사가 있었으며, 스카이여행사를 운영하는 김형돈 이사의 각별한 준비와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번 여행을 굳이 역사기행이라 이름하는 것은 일상의 권태로움을 벗어나 휴식을 위한 여행의 시간을 보내기 위함이 아니고 나름대로 역사공부를 위한 학습의 시간이 주된 여행이기 때문이다.

마침내 우리 일행은 11월3일 새벽5시에 태백문화원에서 만나 김형돈 이사의 고급 승용차와 원장님의 지프차에 나눠 타고 인천공항으로 출발하게 된다.

나는 김형돈 이사의 승용차에 주양식 부원장님과 김상수 이사와 함께 탑승하였고 장성일 부원장과 권규숙 이사와 나영찬 전 사무국장이 원장님의 겔로퍼 지프에 동승하였다.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 새벽을 뚫고 중국역사기행을 그려보며 기대에 차 있었다. 특히 이번 기행에서는 나의 친구인 김상수 이사와 더욱 가깝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예상치 못했던 주양식 부원장님의 결죽

한 입담과 김강산 원장님의 중국과 한국에 대한 해박한 역사강좌를 들을 수 있었으며, 장성일 부원장님 또한 특유의 농 속에 배어있는 중국역사에 대한 해설은 참말로 뜻 깊은 역사공부 그 자체가 되었다.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차안에서의 주양식 부원장님의 지역 사투리와 재미난 토속어는 여느 이사님들은 이해 못하는 것이라서 내가 일일이 맞장구 치며 해석하는 진풍경이 기행 내내 이어지는 예견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서 역사기행의 지루함과 딱딱함을 배꼽 잡는 웃음으로 해소할 수 있었다.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중간에 맛있는 아침식사를 마치고 공항으로 가까워지면서 거대한 다리가 육지와 섬의 공항을 연결하고 있었다.

잠시 들른 휴게소에 섬의 공항과 육지를 잇는 교량의 대공사를 알려주는 기념물들과 사실 기록들은 우리나라의 건설역량과 기술의 대단함을 느낄 수 있었다.

곧이어 개항되고 처음 와보는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서면서 그 거대한 위용에 위압감을 느끼면서 쾌적하고 현대화된 공항규모에 실로 대단하단 생각을 했다.

오래 전에 사진촬영을 위해 캐나다로 여행 할 적에 들렀던 김포공항에 비하면 그야말로 으리으리한 궁궐 같은 느낌이 들었고 자랑스러웠다.

공항에서 권규숙 이사의 친구 분인 서점자 여사를 만나게 되었고 각자가 중국에서 필요한 인민폐를 환전하고 중국에서도 통화가 가능하다는 이동전화의 로밍서비스를 마치고 출국수속을 마친 뒤 국제선 대합실에서 탑승시간을 대기하게 되었다. 드디어 우리 일행은 오후 2시 10분에 아시아나항공 MU284편으로 기대에 찬 중국기행의 첫 기착지인 서안을 향해 이륙한다.

새벽에 출발한 탓인지 기내에선 거의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 보통의 여

행에서처럼 잠시 눈들을 붙이고 잠을 청하는 모습들이었다.

승객 대부분 여행사를 통한 우리와 같은 중국을 여행하는 한국인들이어서 마치 국내선 비행기를 탑승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두 시간 동안의 짧은 비행시간 끝에 첫 도착지인 서안공항에 도착하게 되었고 마중 나온 조선족 중국청년 안내인의 안내로 셔틀버스에 탑승하여 호텔로 이동하면서 조선족 청년의 어설픈 한국어의 주변설명과 서안에 대한 예비적 역사안내 설명은 알아듣기 힘들었으나, 원장님의 해박한 설명에 그 안내 청년은 기가 죽게 되었고, 우리들은 소수민족으로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직장을 잡은 곳이 이 관광안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 안내가 셔틀러도 괜찮다'고 위로하자 곧 그 청년은 용기를 갖게 되어 장황하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게 안내를 하게 되었다.

우리 일행은 원장님의 설명을 본 강의로 들으면서 호텔로 향하며 해가 어둑어둑 지는 중국 서안의 거리풍경에 마치 아주 오래 전 우리나라의 농촌보다 더 시골 같은 풍경을 차창 너머로 감상하면서 어린시절의 가난했던 내 유년이 문득 생각나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었다.

특이한 것은 기행 내내 그들은 남녀노소 모두 자전거를 애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오래 전에 감상했던 중국의 마지막 황제 부의를 다룬 영화 속에서 신호등 앞에서 때를 지어 신호를 기다리던 자전거 탄 부의와 중국인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거리의 모습은 그야말로 가난함 그 자체였다.

중국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의 발전상은 너무도 격차가 심하고 다수의 그들의 인

민들은 저렇게 남루한 옷차림에 삼과 곡괭이로 들판과 거리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저 바쁘지 않게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기행 내내 길거리나 점포 안에서 사람이 모인 곳마다 노름을 하는 중국 여인들을 보면서 이방인의 감상에 젖었다.

호텔로 향하는 도중에 차량사고로 인해 차들이 길게 정체되어 예정 호텔 도착시간보다 두 시간 넘게 도로 위에서 머물렀지만 그런 사람 사는 이국의 풍경들을 보면서 난 지금 어떠한가를 생각하게 된 싫지 않은 시간이었다.

밤이 깊어지도록 차량이 정체되었고 호텔 인근 식당에서 비행기 안에서 대충 때운 변변찮은 기내 점심식사 뒤 끼니때가 한참 지나서야 교자연이란 특유의 느글느글한 중국음식을 저녁식사로 지독한 시장기를 달래게 되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 밖을 나오자 웬 붓 파는 장사들이 떼를 지어 우리 일행에게 달려들면서 붓 몇 자루가 들어있는 통을 “세 개 만원”을 어눌한 한국말로 외치면서 달려드는 것이 아닌가?.

마침 필기도구를 좋아하는 나였기에 선물을 염두에 두고 관심을 보이며 망설이자 이내 옆에 있던 여자가 “다섯개 만원”을 힘차게 외쳐 대는게 아닌가?

나는 의심스런 눈빛으로 조금 더 사태를 관망하다가 “다섯개 만원”을 외치기 무섭게 얼시구나 웬 떡이냐 싶어 그 붓통 다섯 개를 쟁싸게 사고 말았다.

뒤이어 식당에서 나온 원장님 왈 “어허! 그거 사지 마시오 조금 있으면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하지 않은가?

그런데 성질 급한 난 이미 어리숙하게도 만원에 붓통 다섯 개를 손에 사들였고 다른 사람들은 원장님의 이 경고의 소리에 멈칫거리며 버스에 올라

타게 되자, 이윽고 버스 차창 밖에서 “열개 만원” 또 다시 “열다섯개 만원 싸다 싸” 까지 나오는게 아닌가?

난 알뜰한 상술로 이국인을 조롱하는 저들이 알밋고 속은 게 분해 고약한 성미로 언성을 높이며 “그만두지 못해” 하고 소리를 질러버렸다.

이미 중국여행을 경험한 원장님과 몇 분의 이사들은 내가 속은 게 재미있다는 웃기 시작하였고 느긋한 성미의 김상수 이사와 다른 분들은 내가 다섯 통에 만원을 준 그 붓통을 열다섯통에 만원을 주고 사는 여유로움을 보였다.

한참을 웃으면서 원장님께서 예전에 다녀온 중국여행에서 부채를 이따위로 파는 저들 장사치들의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여행 내내 물건을 살 때 느긋하게 기다리다 막판에 사는 것이 속지 않고 사는 것이라며 충고를 해주셨다.

나는 못내 분통이 터졌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 되고 말았다.

자정이 가까워서야 호텔에 도착하여 투숙절차를 밟고 2인 1실로 방 배정을 받아 피곤한 여장을 풀게 되었다.

나는 장성일 부원장과 함께 방을 쓰게 되었고, 권규숙 이사님과 그분의 강남 따라 온 서점자 여사님이 한방을 쓰고 그렇게 2인 1실로 방을 찾아들었고 내일 서안기행을 기대하며 중국에서의 첫날밤, 이내 곤한 잠에 빠졌다.

다음날 일찍 별로 우리 입맛에 맞지 않는 호텔에서의 아침식사를 마치고 중국역사의 고도(古都) 서안(西安) 기행에 나섰다. 어제 처음 만난 조선족 청년의 예의 그 어눌한 한국말의 아침인사와 함께 안내를 받으며 진시황릉을 보게 되었다.

글과 말로만 듣던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 시황제의 능은 멀리서 봐도 무

덤이 아니라 정말 웬만한 산이었다.

중국을 통일하였다는 시황제는 언어와 화폐 그리고 도량(度量)을 통일하여 진정한 통일국가를 이룬 황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차분한 마음으로 황릉에 도착하게 된다.

아! 최초로 드넓은 중국을 천하통일한 진나라의 수도 서안(西安)에서 최초로 황제란 칭호를 쓰게 된 시황제를 능에서 만나게 된다.

우리 일행 중에는 원장님과 장성일 부원장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서 사진기를 갖고 촬영준비를 하였고 나머지 분들은 간단한 차림으로 능 꼭대기에 오르는 수 백 계단 앞에 섰다.

능 앞에는 황제와 황후의 복장을 준비해 놓고 기념촬영을 해주는 사진사들의 촬영 제의를 뿌리치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기 시작한다.

여기서 주양식 부원장님과 친구 김상수 이사는 아마추어 마라토너들로 그 운동솜씨가 뛰어난 분들임을 밝혀둔다.

특히 주양식 부원장님께서서는 나보다는 훨씬 연배이신 그 연세에 각종 마라톤대회에 참가하여 몇 번이나 완주했을 뿐 아니라 좋은 기록도 보유한 운동선수 못지 않으신 분이다.

그 두 분들이 진시황릉의 가파른 수백계단을 세련된 폼으로 뛰어올라 가기 시작하였고 뒤늦게 자존심 상한 나도 함께 따라 붙어 보았으나 이내 지쳐 버리고 아직 장가가지 않은 나영찬 국장만이 좀 뒤진 기록이지만 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갔다.

한참을 올라 도착한 황릉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이진 정말 산이지 무덤이 아니란 것을 새삼 실감하며 황제의 무덤까지 크게 만들어 위상을 높이고 위엄을 피우고 모든 사람들을 황제와 그 권력 수하의 자들이 사

유하며, 부러먹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하던 역사의 상징이라 생각하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예전부터 들어 왔던 대국(大國)이라 하던 중국이 주변 소수국들을 힘으로 제압하여 영토를 넓히고 세력을 키워 그렇게 위상을 높이면서 우리 조선국에도 군사적 물리력으로 협박하여 강제로 조공을 받아가며 왕과 세자의 책봉에까지 위세를 부려온 역사를 기억하며 소국(小國)으로 나약했던 우리 역사의 굴욕적인 시대를 떠올리게 되어 씁쓰름했다.

황제의 능을 조성하기 위한 수많은 백성들의 노역과 그 식솔들의 피폐한 삶을 생각하며, 권력을 빙자한 오늘의 역사에까지 이르는 정치란 미명 아래서의 권력은 이제 민중을 위하는 일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보았다.

진시황릉을 내려와 넓은 농경지를 지나 그 시황제의 영원불멸 같기만 했던 부귀영화의 권력을 사후(死後)에 까지 지켜 주었던 병마용총에 도달하였다.

서안의 한 농부가 밭갈이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이 엄청난 병마용총은 이미 세계적인 불가사의로 각종 뉴스의 화보로 접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오늘에서야 그 실체를 접하게 된다는 사실에 사뭇 긴장감이 돌았다.

병마용총에 들어서기 전에 장성일 부원장님은 자신의 기록사진 외에 일행들의 기념사진촬영에 후한 인심을 쓰고 계셨다. 이 후한 인심은 기행 내내 계속되었다.

황제의 능에서 꽤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병마용총의 규모는 1,2,3실로 나뉘어져 발굴, 보존, 복원되는 과정이 이날까지 진행되고 있었으며 오늘날에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는 군용(軍容)을 갖추고 있었다.

보병, 기병 그리고 황제의 동마차(銅車)는 수레 전체가 동으로 만들어졌

고 역시 동으로 만든 우산과 각종 비밀 병기 등으로 중무장하고 황제를 보위하며 황제와 진나라를 우뚝 세우고 후세에 이를 때까지 만고불변하랴리 염원하며 무덤 속까지 그 수많은 인물들의 얼굴 모습 하나하나 모두 달리 실물형 그대로를 만들어 묻었던 그들의 기상과 용맹을 읽을 수가 있어 간담이 서늘했다.

오늘에서야 한낱 부질없는 일이라 쓴웃음을 지을지언정 당시의 역사는 그것의 위용에 억눌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종하고 굴욕적인 삶을 살았겠는가?

아! 참 역사는 이래서 슬픈건가? 희망적인건가?

전시형태의 아니 황제를 보위하는 형태의 군진(軍陣)을 갖추고 저렇듯 살아 있듯이 생생하게 대오를 갖추고 도열해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간혹 세월의 무게인지 덮인 흙의 무게 때문인지 쓰러져있는 군사와 기마가 있었지만 모두 한결같이 용맹스럽게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그 병사와 기마와 중무기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중국 같이 넓디넓은 땅 덩어리를 점령할 수 있을 것이란 착각이 들 정도의 환상을 맛보았다.

김강산 원장님과 장성일 부원장님은 이미 알려진 대로 사진의 생명은 그 기록의 충실성에 있다라고 주장하신 분들답게 열심히 셔터를 눌러대고 계시는 동안 일행과 떨어지는 소동이 벌어지곤 했었다.

그 엄청났던 병마용총을 땀을 흘리며 옆의 일행을 잊어버리면서까지 눈에 담고 사진기에 담기를 두어 시간 후에 저쪽 3실의 출구에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일행이 모두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다.

병마용총을 나서기 무섭게 예의 그놈의 알팍한 상술의 관광기념품을 파는 중국인들이 앞땀기는 했으나 담 너머에서 애절하게 부르는 늙은 노파의

병마용 토기를 파는 소리를 외면하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끝까지 버티다 나중에 사는 것이 이익이다 라는 원장님의 충고) 버스에 올라타기 직전에 다섯 개에 만원으로 병마용 토기를 샀으나 아뿔사 이번에도 잠시 후에 여덟 개 만원하지 않는가! 이런 세상에 약아도 헛 약았지 조금 더 참을 견하는 후회를 뒤로하고 평소 군대(軍隊)에 관심 많은 아들 녀석과 그 친구들을 주려고 샀으니 됐다라고 생각하며, 화청지(華淸池)로 향하게 되었다.

당나라 현종이 양귀비와 놀았다던 그 화청지가 바로 이곳이란 말인가?

별로 웅장하지는 않았지만 인공으로 호수를 만들고 그들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용머리의 석상을 곳곳에 만들어 놓고 배타고 주연과 풍악, 그리고 양귀비와 무희들을 곁에 놓고 주지육림에 빠졌을 당 현종을 생각하니 솔직히 남자들은 부러워했을 테고 여성들은 경멸했을 것 같았다.

화청지에 세워 놓은 팔등신의 양귀비의 흰 나신 조각상은 많은 남성관광객들의 호기심 어린 관심 속에 기념촬영 장소로 인기가 매우 높은 것을 보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성들의 끝없는 미인에 대한 아니 인간으로서 여성에 대한 관심을 읽을 수가 있었다.

화청지를 나와 서안시내로 들어오면서 진나라와 당나라시대의 웅장한 성들을 차창너머로 바라보며, 이곳에 오기 전에 티브이에 방영됐다는 중국의 그 유명한 문필가들의 글이 비문으로 남아있는 그것들을 한곳에 모아 놓은 비림박물관에 들어섰다. 이곳에서도 역시 역사와 한학(漢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계시는 원장님의 설명과 강의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중국여행객들을 많이 안내한 김형돈 이사 왈 이번의 문화원 이사들의 여행만큼 가는곳 마다 이처럼 시간을 많이 보내는 특이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혀를 내두르면서 역시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고 공부하려는 이사님들의 안목과 학구열이 자랑스럽다며 추켜세운다. 또한 비석들을 둘러보다 사임한 나영찬 국장의 유명한 중국문필가들의 글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을 듣고 역시 오랜 시간동안 사법고시를 준비해온 분답게 박식한 지식과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이 법조계로 진출하려던 의지를 접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소위 문맹자를 일컬어 까막눈이라 했던가?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먹이라더니 나도 왕년엔 조부님에게 천자문을 마치고 동몽선습을 배웠는데도 그 수많은 비석의 글자들, 그것을 제대로 읽고 해석하지 못하는 까막눈이 아닌가 하여 부끄러움이 앞섰다.

이 비림박물관에서 기행 내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이유는 역시 김강산 원장님의 중국역사와 문화에 대한 그 실체를 눈으로 확인하시려는 탓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김강산 원장님과 주양식 부원장님과 장성일 부원장님께서서는 몇 종류의 책자와 그림을 사시고 흐뭇해 하셨고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지 않는 그 글과 그림들이 들어간 통을 기행 내내 불편함을 무릅쓰고 집까지 무사히 가져오신 저력(?)이 놀라웠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원장님께서서는 황룡동굴관광을 마치고 나오면서 유명한 중국 옥으로 만든 사오십 킬로그램이 넘는 낙관하나를 사서 서예학원을 운영하는 부인에게 선물하려고 짊어지고 집에까지 오신 정성에 놀라움을 넘어 경악하고 말았다.

사회주의 사상에 충실한 중국이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개방과 개혁으로 개인의 자본주의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들이 관광지마다에서 물건을

팔려는 개인들의 극성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지금껏 내가 알아 온 사회주의 공산혁명의 중국이 이제는 아니라는 느낌 들었다.

한 코스의 기행이 끝날 때마다 의무적으로 들러야 하는 관광상품 판매의도가 또 그것에 하나였고 한마디로 그들이 가장 경멸하던 자본주의의 돈맛을 알게 되면서 그것으로 또 다른 혁명(?)을 꿈꾸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우리 모두가 각성하지 않으면 또다시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굴욕적인 역사의 회귀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당일 일정대로 기행을 마치고 별로 입에 맞지 않는 중국음식으로 저녁식사 하고 우리는 발 맛사지를 받으러 갔다. 현지시각으로 밤9시에 중국 국내선 비행기로 장가계로 출발하기 전에 여행 중 가장 피곤하다는 발을 맛사지 한다는 전문점으로 찾아들었다.

대여섯이 누울 수 있는 안락의자를 겸비한 실내로 들어가서 말로만 듣던 발 맛사지를 받게 된다. 참 묘한 것이 그것이 그렇게 피로를 시원히 풀어줄 수 없었고 더욱이 남자손님에겐 여성이 여성에겐 남성이 맛사지 해주는 묘한 이성의 감정이 솔직히 싫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서 공항으로 늦은 밤 중국 동방항공의 넓고 작은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장가계로 가게된다.

모두 발 맛사지로 피로가 회복된 뒤에 오는 듯한 졸음으로 한 시간여 동안의 비행 끝에 장가계에 도착하여 민남국제호텔에 투숙하여 이틀째 밤을 보내게 되었다.

호텔에 들어 간단한 샤워를 마치고 집과 가게가 걱정이 되어 난생 처음 내 휴대폰으로 국제 전화를 하게된다. 옆에 있던 장성일 부원장님 왈 장지부장님 아니라도 집과 가게는 잘 돌아 갈테니 걱정 마시고 편히 쉬시란

다. 그 특유의 느긋함과 유연함이 부러웠다.

기행 3일째, 아침 일찍 호텔에서서의 아침식사를 마치고 장가계의 천자산을 걸어서 올라가게 되었다. 일행들 모두가 장성일 부원장과 나의 성씨와 같은 장가계(張家界)라 하여 모두 장(張)씨 고향에 왔다고 농담을 하기 시작하면서 산을 걸어서 오르기 시작한다.

장가계란 무엇인가?

중국을 천하통일한 진나라가 멸망하고 이어 벌어진 각 나라들간의 전쟁에서 항우와 유방의 전쟁에서 공을 세워 유방이 다시 천하를 통일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한신과 장량이 있었지 않은가! 유방은 그러나 또 다시 반란을 염려하여 한신을 죽이게 된다.

여기서 사냥이 끝나면 사냥에 공을 세운 개를 잡아먹는다는 토사구팽이란 말의 어원이 시작된다. 한신이 유방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장량에게도 같은 꼴을 당하지 말라는 여운을 남기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 같은 장량은 험하기 이를 데 없는 이곳 험지로 도망쳐 생을 부지할 수 있었고 후에 이름하

여 장가계가 되었던 것이다.

이토록 산세가 험하고 하늘을 찌를 듯한 깎아지른 높디높은 절벽이 많음으로 장량을 찾아 죽이지 못함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 지방에 모여 살고 있는 이들을 토가족이라 하는데 험준한 산에서 나무와 약초를 캐서 먹고살며 외부와의 교통(交通)을 단절한 채 살아오는 동안 종자의 퇴보를 가져와 체형이 왜소해진 것이 특징이며 이곳 사람들은 여자가 가장노릇을 하며 산다고 한다.

특히나 산을 오르내리며 살아가면서 하루종일 피로한 발을 자식은 부모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마사지를 해준 것이 발 마사지의 효시라고 한다.

이것이 오늘날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일원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인기를 얻고 있는 발 마사지의 원조인 것이다.

두 시간 여 동안 걸어서 산을 오르면서 사진촬영과 등산의 상쾌함을 느꼈었고 산 중간쯤에서 천자산의 케이블카를 타고 웅장하고 험난하며, 아름다운 협곡을 감상하게 되는데 마치 비행기를 타고 협곡을 나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아찔한 쾌감을 맛보았다.

천자산 정상에서 다시 걸으면서 붓을 내리 꽂은 형상을 한 어필봉과 선녀현화, 천대서해 등을 내려다보며 그 절경에 흠뻑 젖어들었다.

점심시간 때에 버스로 산을 내려와 조선족이 운영하는 한식당에서 모처럼 된장찌개와 김치를 맛보니 살 것 같았다.

며칠째 느글느글한 중국음식에 속이 불편했던 것이 그 새 다 사라진 것이 아닌가?

이래서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는 것인가?

점심 후 다시 산에 올라 원가계로 걸어 넘으면서 절경을 감상하는데 신

선이 된 느낌이 이런 것이 아닌가 할 정도의 착각에 빠지면서 수직으로 된 세계최고 높이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산하면서 다시 인간으로 돌아와 산 아래에 서 있었다.

어둑어둑한 산을 내려오는 버스 속에서 피곤함 중에서도 장량이 죽음을 피해 숨어들었을 때의 이 험지(險地)가 지금은 절경이 되어 술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으니 이래서 세월이 좋다는 말인가?

이 흘러간 역사속의 술한 이들의 사연을 지금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아니 뭘 알고 있는가?

내 삶과 나의 정체는 무엇인가? 하는 사뭇 철학적 감상에 빠져 버리고 말았다.

산을 내려와 점심을 먹던 그 한식당에서 다시 한국음식으로 넉넉한 저녁을 에우고 호텔로 돌아와서 가벼이 몸을 씻고 이내 곤한 잠에 빠져 들었다.

나흘째 되는 다음날 예의 호텔에서의 아침식사는 별 볼일 없었고 대충 떼우고 다시 새날의 기행에 나선다.

오늘의 일정은 십리화랑과 황룡동굴, 그리고 보봉호와 백장협을 돌아 보게 된다.

먼저 십리화랑을 모노레일기차를 타고 금면계곡을 오르내리면서 주변경관을 감상하였고 다음으로 황룡동굴 입구에 도착하면서 굴과 군밤 각종 관광상품을 파는 거리상인들을 만나게 된다. 서로들 상인들의 끈질긴 호객행위에 못 이겨 굴과 군밤을 사서 나눠 먹으면서 동굴 관광하게 된다.

기온도 좀 높아 시원한 동굴관광도 좋았지만 동굴 안에서의 주양식 부원장님 집 현관에 매달려 있는 큰 말벌집 소동 얘기가 모두를 웃기게 만들었다.

애기인 즉 주 부원장님 댁을 방문한 손님이 대머리인데 현관에서 그만 말벌에 한방 쏘여 주저앉게 되었다는데 때마침 가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개집을 청소하고 있던 주 부원장님이 이 광경을 보고 개똥을 쓸고 있던 개똥 묻은 빗자루로 벌에 쏘이고 있던 대머리 손님의 머리에 얹어 있던 벌을 향해 머리통을 냅다 후려치는 바람에 두 사람 모두 개똥범벅이 되었다는 얘기를 그 특유의 울진 사투리의 천연덕스런 어투로 말하는데 얼마나 얼마나 배꼽을 움켜쥐고 웃었는지 사실 동굴관광이야 뭐 그렇고 그런 것이어서 시시했었는데 이날 황룡동굴 관광은 주 부원장님의 벌집과 개똥사건으로 참 많이 웃은 즐거운 동굴관광이 되었다.

동굴 안에서 장성일 부원장님은 기념촬영을 해 주었고 가는 곳마다 기념 촬영을 도맡아 해주어서 돌아와 장 부원장님의 사무실에서 해단식(?)을 할 때 모두 서류봉투에 커다란 기념사진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

여행이나 관광에서 남는 것이 사진이라고 누가 말했던가? 우리 일행은 정말 원장님의 훌륭하신 역사 강의와 장 부원장님의 추억에 남는 기념사진과 주 부원장님의 재미난 말씀과 함께 일거양득이 아닌 일거삼득을 얻는 특별한 기행을 하게 된 것이었다.

동굴관광을 마치고 나오면서 입구에 길게 늘어선 관광상품 가게에서 모두들 열쇠고리며 목걸이며 기념품을 사게 되는데 문제의 김강산 원장님의 옥으로 된 사십여 킬로그램이 되는 낙관하나를 사서 짊어지시게 된다. 이후 입국심사 때 통관에 한참이 걸리는 소동이 빚어진다.

최고의 에피소드를 만들어 내는 보봉호 유람선 관광에 들어가기 전 백장협이란 협곡을 걸어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서 두 사람이 메는 가마꾼들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몸집이 가냘픈 나영찬 국장

과 나를 향해 집요하게 따라붙는 가마꾼의 호객행위가 뭘 이유였는지, 원장님을 메고 보봉호수에 도착한 가마꾼들의 헉헉대는 모습에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나보다도 훨씬 더 허약한 가마꾼들과 쫓고 쫓기는 한바탕 소란 끝에 가마를 타게된 원장님의 몸무게는 사실 엄청 나가는 분이였다.

돈벌 욕심에 태우긴 태웠는데 이게 산등성이를 올라가야 하는 길인데 그 얼마나 힘이 들었겠는가? 게다가 간혹 터져 나오는 서투른 한국말로 “아유 죽겠다”를 연발하는 그 모습이 애처롭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였다.

도착지인 보봉호수 입구에서 당초 약속했던 요금보다 더 내라는 가마꾼의 이유가 통역을 통한 “당신은 엄청 무거웠으니까 돈을 좀더 내라”는 것이었고 이에 미안한 원장님 결국 약정 요금보다 돈을 더 주는 후함을 보이셨다.

유람선을 타고 보봉호를 유람하는데 안내인의 말, 저쪽 호수언저리 작은 배에 노래하는 아가씨가 있는데 유람선이 지나가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가 끝나고 “이휘이”라는 소리를 내면 남자가 노래로 답하면 다시 그 처녀가 노래로 답한다고했다.

유람선이 다가가자 웬 처녀가 작은 배에서 나와 간드러진 가성으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지 않는가? 이어 “이휘이”라는 소리가 나자 유람선에서 남자 유람객이 노래를 해야 되는데 왕복으로 돌아오는 길에 일행 중 나영찬 국장이 수백명의 관중이 있는 곳에서 노래를 부른 훌륭한 가수라는 원장님의 홍보가 있었고 일행은 모두 나영찬씨에게 화답의 노랫 부를 것을 주문하자 그 작은 체구로 담대하게 나서서 우렁차게 우리 가곡 선구자를 성악가 못지 않은 솜씨로 불러 제치지 않은가? 아! 참 대단했다.

보봉호에는 아기울음소리를 내는 물고기가 산다고 했는데 그 물고기와 울음소리는 듣지 못했으나 나영찬씨의 훌륭한 노래를 들을 수 있어 얼마나

좋았는지 함께 탄 중국인들이 열렬한 박수를 보내고 부러워했었고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준 한국인의 기상 그 자체로 모두는 흐뭇했었다.



보봉호 유람을 끝내고 다시 서안으로 가는 장가계의 공항 부근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또다시 맛들인(?) 발 마사지를 받은 후에 가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중국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하여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서안에 도착하여 첫날 묵었던 쉐라톤호텔에서 중국에서의 마지막밤을 보내게 된다.

기행 닳새째인 마지막날 호텔에서의 아침식사를 대충 마치고 9시반에 서안공항에 도착하여 출국수속을 마치고 4박5일간의 중국역사기행을 마치고 인천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기행도중 주양식 부원장님과 나와의 강원도와 예전에 강원도였던 울진의

토속어와 사투리로 몇 만이 아는 얘기를 주고받는데 원장님의 해석으로 일행을 웃게 만들기도 했으니 식사때가 되어 내가 주 부원장님께 “죄숙(조석—朝夕의 변형어)을 어떻게 에우지(떼우다)요?” 하고 농스레 물으면 “아, 이 사람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죄숙이야, 송년(홍년)인데 그냥 넘어가세” 라던가, 산행 중에 “고베이(무릅)가 아프네 좀 씻다(쉬었다)가세” 등의 우스개로 잠깐 잠깐 여행의 피로를 잊는 농담이 집에 올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

여행은 그래서 함께한 이들과 친숙해지는 기회가 되고 서먹한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는가 보다.

평소 어렵게만 대하였던 주양식 부원장님과 옆에서 맞장구를 치던 김상수 이사, 그리고 여행동안 친구 권규숙 이사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챙겨주셨던 친구 따라 강남 온 서 여사님 그리고 매사 예의가 각뚝한 장성일 부원장님도 어느덧 농담과 특유의 박식함으로 해학의 대가가 되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었고 끝끝내 침착함과 조용함으로 일관하던 나영찬 국장, 직업상 잦은 해외여행으로 잡학박사가 되신 김형돈 이사의 기행 동안 일행을 배려해주던 세심함, 이 모든 것들이 일행 모두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번 역사기행은 나름대로 서구열강의 독주 속에 우리가 처한 역사적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극도의 찬, 반대에 치우쳐 제대로 앞가림을 못하는 혼탁한 세계 속에 우리를 우뚝 세우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상대를 알기 위함이고, 우리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던 중국의 그 실체를 조금이나마 알고자 함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기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지금 한창 고구려의 그릇된 역사주장에 대한 중국과의 우리나라의 주장이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동

안 너무 역사인식과 주장에 대해 소홀히 한점이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 크기만 하다.

무릇 모든 역사는 승자와 강자의 힘에 의해 쓰여진다고 했지만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사대주의에 치우쳐 내 것을 소홀히 하며 천대하였고 남의 것에 현혹되었던 실패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케 한 잘못 전래된 사대주의와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식민근성을 일소하고 지금이라도 적을 제대로 알고 나를 알아서 우리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이번 기행이 자신을 아는데 유익했고 나름대로 중국과 우리의 역사의식을 새롭게 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다고 생각한다. 함께 했던 일행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태백문화원의 문화가족 일원으로 힘을 합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번 기행의 큰 수확이며, 자랑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부족한 글쓰기와 표현력이 못내 아쉽고 미처 다 기록하지 못한 애깃거리가 많은데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놓는 것이 부끄러울 따름이나 다만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믿는다.

-이제는 말한다-

검룡소의 발견



김 강 산
태백문화원장

내가 검룡소를 발견한 것은 단군기원 4317년(서기1984년) 6월 어느 날이었다. 그 전해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인 리야드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던 (주)삼호주택의 사무보조로 취업을 하여 1년간 근무한 나는 그 해 2월 15일 귀국을 하였다.

귀국한 얼마 뒤에 평소 존경하던 당시 제일생명 태백영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우성조 소장님에게 귀국인사차 들렀다가 내 인생의 전기가 된 제안을 듣게 된다.

“태백시에 문화원이 생기는데 내생각에 자네가 사무국장으로 책임자 같은데 내가 소개해 줄까? 마침 초대원장으로 내정된 사람이 나하고 동창인 황

윤덕씨니까 내가 말하면 될꺼야”

마다할 이유가 없는 나는 적극 부탁을 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태백문화원 사무국장으로 내락이 되었다.

그러나 그 해(서기1984년) 1월 19일 발기인 총회를 거쳐 문화공보부에 신청한 태백문화원 설립인가가 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지는 시기였다.(결국 그해 8월 17일에 설립인가가 나긴 했지만)

그래서 나는 태백문화원 설립인가가 나기까지 좀 더 지역을 알기 위해 각 지역을 돌아 다녔다.

그전부터 태백의 역사와 민속에 대해 남보다 많이 안다고 소문은 나 있었지만 막상 태백문화원의 사무국장으로 내정되고 나니 마음속에 책임감이 부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마음속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백시의 13개 법정동(당시에는 아직 사조동이 태백시로 편입되지 않은 시기)을 중심으로 기초조사를 하고 다녔는데, 가장 북쪽인 창죽동부터 조사하기로 하고 바깥창죽, 안창죽을 부지런히 돌아다녔다.

창죽 마을 조사를 거의 마쳐 갈 즈음 어느 날 밤에 나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된다.

황해 바다를 지배하던 용이 한강을 거슬러 올라와 가장 길고도 먼 상류의 암반을 구불구불 기어올라가 바위를 뚫고 땅속으로 들어가니 거대한 소(沼)가 되는 것이었다. 그 소(沼)에서 도를 닦던 용이 풀을 뜯다가 물을 마시러 오는 소를 잡아먹고 만다.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보니 물 속에 소 고삐가 보이는 지라 사람들은 용이 소를 잡아먹었다고 하며 크고 작은 돌들을 소(沼)속에 집어넣어 메워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닌가?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하며, 그 날은 금대봉골을 조사하기로 마음먹고 금대봉골로 들어가다가 세집모테와 옛터 사이의 골짜기에서 물이 솟아 나오는 돌 서덜을 발견하게 된다.

크고 작은 돌이 쌓여 있는 돌 서덜에서 엄청난 물이 솟아 나오는데 그 아래쪽에는 석회 암반이 깊게 파여 용트림하듯 한데 그리로 물이 흘러 와 폭(臥瀑)을 이루는 것이었으니, 간밤의 꿈이 연상되는 기이한 형상이었다.

물이 솟는 돌 서덜에는 이끼와 물풀이 자라고 크고 작은 돌 덩이가 어지럽게 박혀 있었고 굵은 나무가 박혀 썩어가고 있었다.

장차 검룡소가 될 곳과 처음 만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처음 발견 당시의 검룡소 돌로 메워져 있다)

그곳에서 내려와 마을 사람들에게 물이 솟아 나오는 곳의 땅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으나 마을 사람들은 말하길 그곳에는 이름이 없다고 했고, 그냥 물이 나오니 물구덩이가 아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말하길 일제시대 그곳에 물이 솟아 나오는 물구덩이가 있었는

데 일본사람들이 금대봉의 원시림을 베어가기 위해 그곳 물구덩이에 돌과 나무를 넣어 메우고 그 위로 산판길(임도)을 닦았다고 했다. 일본인들이 물러가고 한국동란 뒤에도 산판 트럭들이 이 길을 통해 금대봉의 원시림을 실어 날랐다.

그 후 이 길은 차량이 다니지 않고 수십 년 동안 나무가 자라고 토사가 밀려와 쌓여 그 밑으로 겨우 물이 흐르는 형상이 되었던 것이 그 당시 모습이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창죽마을의 조사내용을 정리하다가 창죽마을에서 흐르는 물은 북쪽으로 흘러가서 삼척시 하장면을 지나 정선군 임계면을 거쳐 정선읍내로 흘러가는 한강의 상류라는 사실을 새삼 발견하게 된다.

태백시의 대부분 지역에서 흐르는 물은 낙동강으로 흘러가는데 반해 창죽천의 물은 한강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그전부터 막연히 알고는 있었지만 그날 5만분의1 지도를 펴놓고 세밀히 관찰하면서 크게 깨달으며 확신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창죽마을쪽이 한강의 발원지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냥 한강의 먼 지류임에는 틀림없다고 여길 뿐이었다.

왜냐하면 낙동강의 발원지는 태백산 황지이고 한강의 발원지는 오대산 우통수라는 것은 각종 옛 문헌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 해 10월 1일 장성동 69-2번지에 있는 초대원장 황윤덕씨 소유의 건물 2층에서 태백문화원 개원식이 있었고 나는 사무국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이듬해인 단기4318년(서기1985년) 화전과 황지쪽을 답사하게 되었는데, 황지못에 대한 전설과 역사적 기록을 조사하면서 황지가 기록상으로도 낙동강 발원지요 실지 거리로도 가장 긴 낙동강의 물줄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에서 북쪽으로 6-7km나 더 가서 화전동의 용수골에 용소가 존재하고, 함백산 아래의 절골에서도 낙동강의 물줄기는 흐르고 있다는 사실에 문헌과 실제는 다르다는데 혼란스러워 하게 된다.

그렇다면, 문헌상에는 낙동강의 발원지가 황지지만 실제로는 황지 위쪽에 또다른 발원지와 물줄기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문헌상 나타나는 발원지는 상징적 발원지이고 실제의 발원지는 따로 있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작년에 창죽마을을 조사할 때 발견한 물구덩이가 생각나는 것이었다.

혹시 한강도 문헌상 발원지와 실제 발원지가 달라 창죽마을이 한강 물줄기 가운데 가장 긴 물줄기를 가진 마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치는 것이었다.

흥분된 마음으로 집에 와 5만분의1 지도를 살펴보는데 평창쪽 지도가 없었다. 그래서 얼마 뒤 서울 종각역 근방에 있는 중앙지도사를 찾아가 태백과 평창 일대의 5만분의1 지도를 모두 구입하여 조사하여 보니 오대산 우통수와 창죽천의 물은 정선군 나전리에서 합수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나전리 합수 지점에서 눈 짐작으로 봐도 창죽천의 물줄기가 더 길어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친김에 곡각자로 강물줄기를 재어 보니 놀랍게도 창죽천이 32km나 더 긴 것이 아닌가?

정선군 나전리 합수머리에서 도상실측해보니 우통수가 약 53km이고 창죽천이 약 85km가 되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대 발견이었다.

강이라고 하는 것이 하구에서 가장 먼 쪽의 물줄기가 진정한 발원지가

아닌가? 그렇다면 옛 기록은 잘못된 것이며 창죽 마을의 물줄기가 진짜 한강의 발원지가 되는 것이다.

나는 지도를 펴놓고자로 재고 또 재며 거듭거듭 확인을 하면서 창죽마을을 금대봉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줄기가 한강의 가장 길고 먼 물줄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한가지 난제가 나타났다.

한강의 상류에도 황지처럼 물이 솟는 못이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다음 며칠을 안창죽 금대봉골을 이잡듯 뒤졌다. 그런 결과 금대봉골에서 물이 솟는 큰 못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물이 솟는 작은 샘은 무려 5군데나 발견하게 된다. 물론 이 다섯 개의 샘도 이름이 없었기에 발견자인 내가 이름을 부여하였다.

장차 검룡소가 될 곳에서 곧바로 위쪽으로 올라가 옛터를 지나 약1km정도 올라가면 지름 1m정도 되는 굴에서 물이 솟아오르는데 굴물이라 한다. 이 굴물은 약500m정도 흐르다가 지하로 스며든다.

그리고 금대봉골로 약 800m정도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물골이란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 안쪽에 바위절벽이 있고 그 절벽 하단의 바위틈 구멍에서 물이 솟아 나오는데 바로 석간수(石間水)이고 이 물이 곧바로 약 100m의 와폭(臥瀑)을 이루면서 흐르다가 땅속으로 스며든다.

물골 어귀에서 금대봉쪽으로 조금 올라가다가 왼쪽 산등으로 올라가면 바위 반석 한가운데에 지름 4~5cm정도 되는 구멍이 있고 그 구멍에서 물이 솟아 나오는데 옥문수(玉門水)이다. 그물도 2~30m 흐르다가 땅속으로 스며든다.

다시 내려와 금대봉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왼쪽으로 큰 골짜기가 있고 제법 물이 흘러나온다. 그러나 그 물도 골짜기 어귀에서 땅속으로 스며드는

데 이 골짜기가 산제당골이다.

산제당골 끝에는 가파른 산비탈이고 그 비탈에 세 곳의 물구멍이 있어 세 줄기의 물이 흘러나와 합쳐져 산제당골의 물이 되니 삼각수(三角水)라 한다.

산제당골을 나와 다시 금대봉쪽으로 올라가는데 골짜기는 있으나 100년이 지나도 물이 흐르지 않는 마른 골짜기다. 그 골짜기 중간지점에 샘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금광을 개발하면서 식수로 사용하던 금구덩이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다섯 군데의 샘물은 창죽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도중에 땅속으로 스며들어 그 흔적을 알길이 없다.

다만 이 지역의 지질이 석회 암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들이 지하로 스며들어 지하 석회공동으로 유입되어 합쳐져 물구덩이(나중에 검룡소가 됨)로 솟아 나온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비로소 물구덩이에서 솟아 나온 물은 창죽천으로 이어지며 하천다운 면모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물 솟음과 곧 바로 이어지는 용트림의 외풍이 발원지로서의 위용을 갖추었다고 보게 된 것이며 이 물구덩이야말로 한강의 발원지라고 확신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나는 이 물구덩이에 이름을 부여하기 위해 작명을 하게된다.

그 물구덩이가 있는 산이 금대봉(金臺峯)이고 또 나의 성(姓)이 김(金)가이기에 금(金)자를 생각하고, 그 물구덩이에서 솟아 나온 물이 용트림하듯 외풍을 이루며 흘러내리기에 용(龍)자를 생각하여 금룡소(金龍沼)라고 이름을 짓게된다.

한강 발원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나는 여러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한편 창죽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당시 창죽마을의 이해석 통장을 통해 마을 사람들을 모아 놓고 내가 꾸

꿈이야기를 하며 그 물구덩이를 이제는 금룡소(金龍沼)라고 불러 줄것과 그 금룡소가 한강의 발원지라는 사실과 앞으로 이 마을이 금룡소 때문에 크게 발전할 것이라는 말을 해주었다.

그때 나는 창죽마을의 민속놀이인 갈풀썰이를 발굴해서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태백시 대표로 나가기 위해 창죽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연습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창죽 사람들과는 각별한 사이가 되었고 이후 발굴한 지게 싸움놀이로 이어지는 연습과 모임으로 끈끈한 인연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뒤 나는 일주일에 한 두번은 창죽마을을 방문하게 되었고 갈 때마다 금룡소로 올라갔다. 그 당시 창죽마을에서 가장 끝집은 김동교씨 집이고 그집 못 미쳐 개천 건너편에는 박명순씨 부모님이 살고 있었다.

박명순씨 부친은 박종수 옹이었는데 나에게 호식장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주신 분이고 명순씨 모친은 후덕하여서 내가 그 집앞을 지날때면 먹을 것을 챙겨 주기도 했다.

그런데 내가 그 집앞을 지날때면 명순씨 모친이 나오셔서 “국장님 어데가 와, 검룡소 가와?” 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면 나는 “예, 금룡소 갑니다. 금룡소요.”

하며 금룡소로 올라갔다.

그런데 매번 만날 때마다 명순씨 모친은 금룡소를 검룡소로 부르는 것이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금룡소는 발음이 되서 노인들에게는 발음이 쉽지 않아 금룡소를 검룡소로 부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경상도 사람들이 경제를 쟁제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나는 금룡소를 고집할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검룡소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되어 집으로 돌아와 옥편을 뒤지며 검자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니 칼 검(劍), 검은 검(黔), 자물쇠 검(鈐) 교정할 검(檢), 산높을 검(검), 검소할 검(儉) 등 등의 글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검소할 검(儉)을 보는 순간 우리의 국조(國祖)이신 단군왕검(檀君王儉)이 생각나는 것이 아닌가?.

왕검(王儉) 할아버지가 우리겨레의 시조(始祖)이시니 우리의 뿌리가 되고, 금룡소가 한강의 시원(始源)으로 한강의 뿌리가 되니 발음이 어려운 금룡소(金龍沼) 보다는 왕검(王儉) 할아버지의 검(儉)을 따서 검룡소(儉龍沼)라고 부르는데 발음도 부드럽고 또한 검이라는 말이 고어(古語)에 신(神)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여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처음 금룡소(金龍沼)라고 부르던 이름을 이때에 이르러 검룡소(儉龍沼)로 구령이 담 넘어가듯 어물쩍 바뀌 부르게 된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검룡소(儉龍沼)로 불리고 있는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의 작명(作名)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이다.

그 해 늦가을쯤 나의 친구인 김병일씨가 한 사람을 데려와 나에게 소개를 시켰는데, 정신문화연구원의 교수라고 하는 이형석씨였다.(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교수가 아니라 행정실 근무하는 사무원이라 함)

셋이서 제일극장 터 근방의 대폿집에서 만나 이야기 하는데 자기는 하천(河川)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강의 발원지를 조사하고 강의 길이를 조사하는 일을 한다고 하며 그동안 남한 땅 곳곳의 강을 현지 답사하고 다닌다는 것이었다.

나로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전국을 무대로 뛰는 그가 부러웠으며 태백지방에만 머물고 있는 나 자신에게 분발의 기회가 되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길 한강의 발원지는 대성산 고목나무샘이라고 주장하며

자기가 이미 몇 년 전에 이 사실을 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책자에 발표하였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와 갑론을박 토론을 하게 되었고 그가 말하는 대성산이 금대봉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그 당시 발간된 5만분의1 지도에 금대봉 정상 부근에는 아무런 표시의 이름이 없자 자기 나름대로 정선군 고한읍 두문동에 있던 대성국민학교 뒷산이라고 대성산이라 명명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조사할 때 현장에 와보지는 않고 지도를 펴놓고 살펴보니 금대봉으로 오는 가장 빠른 길이 정선군 고한역에서 하차하여 금대봉을 거꾸로 답사하는 것이라고 보고 고한에서 약초케는 사람의 안내를 받게 된 것이다.

그 약초꾼이 알려준 것이 고목나무샘인데 그 샘 위쪽에 약 한아름 반정도 되는 큰 고목나무가 있기에 고목나무샘이라고 명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그 샘이 한강의 가장 먼 곳에 있는 샘이라고 확신하고 서울에서 발표를 한 것이다.

그는 한강의 발원지 조사 때는 태백시에는 오지 않고 항상 정선군 고한에서 거꾸로 금대봉 정상부근만 조사하고 돌아갔다. 그 이유는 그가 정신문화연구원 행정실 사무원으로 근무하기에 주말에 시간을 내어 급히 왔다가는 시간적 제한 때문이라고 했다.

그 결과 금대봉골의 5개 샘과 검룡소는 보지 못하였고 그날 나와 토론에서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나는 내가 발견한 5개의 샘말고도 그 위쪽에 또 하나의 샘이 있다는데 충격을 받았고 조사의 미흡함이 부끄러웠다.

그날 그와의 만남과 토론에서 두사람의 시각차는 두가지였다.

그는 강의 발원지로 물이 흐르던 흐르지 않던 지도상의 계곡 가장 위쪽에 있는 샘이 발원지라는 것이었고, 나는 그렇다면 확대하여 하늘에서 떨어

어지는 빗물이 갈라지는 산꼭대기의 분수령이 발원지가 될 수 있으니 그건 말이 안되고 강이란 발원지에서 솟은 물이 끊어지지 않고 본류(本流)로 이어질 때 그곳이 발원지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을 따르면 고목나무샘이 발원지이고 나의 주장을 따르면 검룡소가 발원지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던 나의 주장이던 한강의 발원지가 평창의 오대산 우통수가 아니라 태백시 창죽동 금대봉 기슭이라는 데에는 의견일치를 보게된다.

그와 헤어진 뒤 그가 말하는 고목나무샘을 찾아갔으나 찾지 못하고 얼마 뒤 눈이 와서 더 이상 금대봉을 찾지 못했다.

이듬해인 단기4319년(서기1986년) 이른 봄 나는 다시 금대봉을 찾아가 이형석씨가 발견한 고목나무샘을 찾아보았는데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5~6m정도 흐르다가 땅속으로 스며들고 가뭄이면 마르는 샘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금대봉 정상쪽으로 600m 정도 더 올라가서 새로운 샘을 발견하게 된다. 고목나무샘 보다 무려 600여m나 더 위쪽으로 올라간 지점에서 발견한 새로운 샘은 수량도 고목나무샘의 몇 배나 되었고 샘의 크기도 몇 배나 되었으며 그곳에서 흐르는 물이 100여m나 흘러가다가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멀리 고목나무샘이 내려다보이는 것이었고, 고목나무샘이 금대봉에서 대덕산으로 이어지는 산능선에 있는것과는 반대로 새로 발견한 샘은 금대봉 주봉 바로 밑에 있었다.

새로 발견한 샘 위쪽에는 산치성(山致誠)을 드리기 위해 돌을 쌓아 담을 치고 그 위에 스텔트를 덮은 제당(祭堂)이 한 칸 있었다.

사람들이 금대봉 산신(山神)에게 치성을 드리기 위해 제당을 만들고 이 샘물을 제수(祭水)로 이용하였던 것이다.

샘 아래에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사람의 무덤인 호식총이 있는데 위쪽

의 시루는 근년에 없어졌다고 한다.

나는 새로 발견한 샘이 제당이 있는 굴(골짜기의 방언)에 있는 것을 감안 제당굴샘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렸는데 그 당시 태백문화원의 이사로 있던 강원일보 김영훈 기자가 나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강의 발원지는 오대산 우통수가 아니라 태백시 금대봉 기슭에 있는 검룡소라고 했다.

단군기원4319년(서기1986년) 4월 8일자 강원일보에 이 사실이 게재 되었고 1주일 뒤인 4월 16일자 강원일보에는 신문 한 면을 다 할애한 대형 기획기사로 다루었다.



(준설 하기전에 고사를 지내며 소지를 올리는 모습)

당시 기사의 내용은 한강의 발원지는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고 본류로 흐르는 검룡소가 한강의 발원지이고 이형석씨가 주장하는 고목나무샘보다 600m 위쪽에서 새로운 제당굴샘이 발견되었으니 샘으로 쳐도 고목나무샘이 발원지가 아니라는 내용이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12월8일 경향신문에도 게재되고 이듬해인 단기4320년(서기1987년) 1월25일 강원일보에

다시 거제되는 등 여타 일간지들에도 관심의 대상이었다.

얼마 뒤에 나는 황윤덕 초대 문화원장에게 좋은 일에 쓸테이니 돈 1백만원만 달라고 했고, 황윤덕 원장은 이유를 묻지 않고 선뜻 1백만원을 주었다.

나는 그 돈으로 창죽 사람들을 동원해 일당을 지불하며 검룡소를 준설하기 시작했다.

당시 준설에는 박명순씨, 이해담씨 3형제, 또 이름이 기억나지 않은 몇 사람이 참여했는데 내가 하는 일이 황당하다고 여겼는지 반신반의하며 작업에 임했다.



(준설이 거의 끝나갈 무렵)

나는 하얀 한복으로 갈아입고 먼저 용신에게 고사를 지냈으며 곡괭이, 썰매, 삽을 준비해 삽에 줄을 연결시켜 가래로 만들어서 검룡소의 돌과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변변찮은 일당을 주기에 내가 직접 물에 들어가 작업을 독려하며 자부심을 일깨우길 1주일, 돌 무더기였던 검룡소가 드디어 웅장하고 신비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검룡소의 물은 연평균 9℃로 변함이 없는데, 바깥 날씨가 더우면 더울수록 더 차게 느껴지는 것이기에 오랜 시간 작업을 하게되면 하체에 마비가 오며 뼈마디가 아려서 오래 버티지 못하게 되므로 잠깐 작업하고 쉬고 하기를 반복해야 하였다.

마지막으로 검룡소 안에 커다란 바위 하나가 남게 되어 그 바위만 끄집어내면 검룡소 밑의 수굴(水窟)이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바위를 끄집어 내야하느냐 그냥 두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냥 두자는 쪽과 끄집어 내자는 쪽의 의견이 있었는데 결정은 내가 할 수밖에 없었다. 나의 결정은 그냥 두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 바위를 끄집어내면 검룡소 속에 있는 물이 솟는 바위굴이 보일 것인데 그냥 두면 그 구멍이 바위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나는 검룡소를 처녀에 비유하여 마지막 속옷 같은 그 바위를 그냥 둬으로써 신비한 이면을 남겨두려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 바위를 거북바위라고 명명하였으니 지금도 그 바위는 검룡소 물속에서 신비한 물구멍을 보일 듯 말 듯 가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흙과 돌을 파낸 검룡소는 주변 바위벽이 너무 황량하여 보기에 좋지 않았다. 그래서 진흙에 이끼를 섞어 바위벽에 매질을 하였더니 얼마 뒤 바위벽에 파란 이끼가 살아났다.

검룡소를 준설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뜻 있는 사람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격려하여 주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작고한 전 농촌지도소장 김원준씨를 비롯하여 박용찬씨 김시돈씨 등이었다.

드디어 준설작업이 끝나고 주변을 정리한 다음 그 해 8월 12일에 검룡소에서 준설을 기념하는 용왕제를 올리게 되었다. 관내 유지 및 기관 단체장들과 우리 태백문화원 이사 및 회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황윤덕 원

장이 제주(祭主)로 성대한 제례를 봉행 하였다.



(준설 뒤에 용신제를 지내는 광경)

검룡소를 준설하고 용왕제까지 올리며 각종 메스컴을 통해 한강발원지가 태백시 창죽동에 있는 검룡소라고 대내외에 홍보하였으나, 정작 태백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없었고 아직도 뭐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았다.

신문과 방송에 한강발원지 검룡소에 대한 보도가 나가자 검룡소가 어디인지 어디로 어떻게 가야하는지 문의가 쇄도하였다. 그래서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바깥 창죽에서 안창죽으로 들어가는 갈림길인 35번 국도변에 표지판 하나 세워 달라고 해도 콧등으로만 들었는지 감감 무소식이었다.

하는 수 없이 나의 친구인 대우전자 대리점을 하던 이현직씨에게 부탁하여 기부금 20만원을 얻어 원주철공소 이영근씨에게 의뢰, 철재로된 검룡소 이정표를 제작하여 안창죽으로 들어가는 길가에 세우기도 하였다.

그때 인력이 없어 이정표를 세울 때 직접 땅을 파고 노력봉사를 한 것은 제작비를 깎은 대가였다.

검룡소의 이끼를 보호하자는 팻말과 곳곳에 검룡소로 들어가는 길을 안내하는 화살표를 그린 팻말을 제작해 세우고 검룡소 유래를 설명하는 커다란 안내판도 제작하여 가져다 세웠는데, 그 모든 것을 내가 지게로 지고 가서 세웠다.



(초기의 검룡소 이정표)

검룡소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며 방송사에서 촬영을 하러 많이 왔다. 이때 우성조씨, 김장형씨, 김소희씨 등이 검룡소 촬영 제작에 출연하기도 하였다. 우리 태백문화원에서는 관내 유적지 순례지로 검룡소를 택해서 버스를 대절하여 안창죽까지 와서 걸어서 검룡소를 탐방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가운데 검룡소에 관심을 갖는 시장이 부임하였으니, 나기정 시장이었다.

어느 날 나시장이 나를 보자고 해서 시장실로 갔더니 태백의 현안에 대해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다. 나는 말하길 태백은 앞으로 관광으로 가야된다고 하고 검룡소와 태백산, 구문소 등을 관광지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나시장은 내 말을 금방 알아듣고 나와 함께 이튿날 먼저 한강발원지 검

룡소를 찾아갔다. 그는 검룡소를 보는 순간 감탄하였고 공사비 100만원에 노력봉사로 일구어 낸 검룡소의 준설공사에 대해 경의를 표하더니 주변이 너무 초라하다고 하는 등 관심을 보였지만 검룡소가 한강의 발원지라고 하는데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한강대제 봉행 광경]

그 후 며칠 뒤 다시 나를 부르기에 시장실로 갔더니 나름대로 알아보고 확인하였음인지 확신에 찬 어조로 검룡소를 개발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시에서 1억5000여 만원을 들여 검룡정(儉龍亭)을 짓고 내가 파낸 검룡소를 좀 더 파내고 주변에 자연스런 축대와 장마 때 우수관로 등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대덕산으로 가는 분주밭골과 금대봉골의 합수지점에서 서낭폭포와 세집모테를 거쳐 검룡소로 이어지는 하천을 따라 산책길을 개설 하기도 하였다.

시장으로 재직한지 6개월만에 떠나간 시장이지만 그의 미래를 보는 시각은 대단했다.

그가 떠난 뒤 검룡정은 남아있지만 개천을 따라 개설했던 산책로는 그

후 장마에 유실되고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하지만 그때 내가 건의하여 김동교씨 땅이던 현재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였고 세집모테의 땅도 매입하라 하였으나 공무원들이 듣지 않았다. 그 뒤 어떤 시장도 검룡소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검룡소를 발견한지 10여 년이 넘도록 주변이 달라진 것은 없었다.

1차선 비포장 도로의 창죽마을 길은 여전히 다니기 불편한 곳이었고 대형 관광버스 한 대도 들어오지 못하는 오지였다. 다만 비포장 1차선 끝에는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는 기이한 현상의 도로였다.

그래도 검룡소를 살려 보려고 나는 단기 4330년(서기1997년) 한강 발원지 검룡소에서 제1회 한강대제(漢江大祭)를 개최하게 되었다.



(물먹기 대회에 참여한 기관장들)

주변에서 한강대제를 펴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청정한 물과 신비한 경관의 검룡소야말로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유일무이한 신령한 장소이자 때마침 검룡소 일대가 환경부에서 지정한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고시되

면서 이 엄청난 관광자원을 묵힐수는 없다는 나의 신념을 꺾지는 못했다.

그래서 검룡소에서 용신제를 지내고 물을 주제로 물먹기대회를 열어 오염되지 않은 검룡소 물로 물많이 먹기, 물빨리 먹기, 물속에서 숨오래참기 대회를 열었다.

그러나 길이 나빠 오고 싶은 사람도 잘 오지 못하기에 그 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두면을 무료로 시식케하는 등 한번 찾아온 사람들이 다시 오도록 노력하였다.

매년마다 한강대제 때 1000그릇이 넘게 나간 유두면을 만들고 용신제를 지낼 때 김순달 회장부부, 홍순남씨, 이숙영씨, 전영숙씨 등 태백문화원 명심회원과 태백문화학교 동문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1차선 비포장 도로에 차 한대 겨우 지나갈 수 있었던 안창죽 마을이 변



(현재의 검룡소 광경)

하고 있다. 2차선 포장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중장비들이 부산하게 움직이

는가 하면 시에서 용역을 주어 검룡소 생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하는 등 관광개발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검룡소를 발견한지 어언 20년.

이제사 검룡소의 중요성을 알았는가, 만시지탄이나 그나마 다행이다.

수도권 2000만명의 생명수요, 삼한 삼국의 요충이며 조선 500년의 찬란한 문화를 낳게한 강, 세계속에 한강의 기적을 낳게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강 한강, 그 발원지 검룡소야말로 태백의 상징이자 자랑이며 대한민국의 국보이다.



시 · 시조 · 산문



제18회 남 · 녀 백일장 수상작



-제18회 남·녀 백일장 수상작품-

시 · 시조 · 산문 수상작

♣ 중등부 부문

시-추억

남원당

유월은

비상

편견의그네

♣ 고등부 부문

시 - 내마음을 싣고

신이주신희망

붉은색그네

그네

내마음의 희망

시조-아프리카,아프리카

그네

향수그네

우물안이 슬픈 메아리

추천사

시조-내꿈담은그네

춘화향기

그네

동아줄 끊어지기 전에

수업중의 몸부림

산문-사라져가는 정

우리집 희망

그네를타면엄마를 만날..

우리가족의 희망

도약

산문-사랑을 이어주는 메신저

추억

담쟁이

하늘위로날아올라

언덕을 넘어서

제18회 태백시 남·녀 백일장 중등부
시 부문 Ⅱ 장원작

추 억

김 현 지
함 태 중 학 교

고마 치위뿌라
고 핸드폰이라는거
그게 어디
귀여운 우리 손녀 목소린겨

휴대전화로
안부를 여쭙 때마다
구수한 사투리로
호통을 치시던 할아버지

정겨운 손녀의 목소리가
차가운 플라스틱에서
플라스틱으로
전해오는 모양이
할아버지는 싫었나보다

오늘은 할아버지 돌아 가신지
1년 되는 날

차가운 플라스틱으로도
따뜻한 마음으로도
하늘나라에서는
안부를 여쭙 수 없지만

휴대전화에 저장된
호탕하게 웃으시는 모습
단 하나의 기억만으로
할아버지를 더듬어본다



제18회 태백시 남·녀 백일장 중등부
시 부문 Ⅱ 차상작

남원 땅

윤 수 지
철암중학교

남원 땅에
춘향이가 있듯이

춘향이가
그네를 타듯이

그네 타는
춘향이의 뒷모습

그네에
몸을 맡겨
꼬꼬리가 날 듯

하나의
새가
되어 날아간듯이

그네 타는
이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도
같이 새가 되어 날아간다

제18회 태백시 남·녀 백일장 중등부

시 부문 Ⅱ 차상작

유 월 은

김 보 연
상 장 중 학 교

유월 하늘이 이처럼 푸른 것은
푸른 청춘을 조국에 바친
선열들의 함성 때문입니다

유월 햇살이 이처럼 따스한 것은
온몸을 내던져 나라를 구한
선열들의 정신 때문입니다

유월 밤하늘이 이렇게 빛나는 것은
후손들에게 나라사랑 부탁하는
선열들의 애절한 눈빛 때문입니다

유월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마다
선열들의 희망이 묻어 나옵니다

그들의 빛을 받아
먼 훗날 유월 하늘아래
나의 작은 빛이 발하길 소망합니다

제18회 태백시 남·녀 백일장 중등부

시 부문 Ⅱ 차하작

비 상

전 아 름
장성여자중학교

푸르른 창포물에 고이 잠겨
깊게 울렁이는 흑포를
신주 마냥 소중히 들어 올리네

과악- 둥여 맨 둥앗줄을
두 손 고이 잡아
무한한 창공을 향해 비상해 보자

황금빛 영광의 가호를 받들어
반짝임을 그득 머금은 흑포가
질은 흑단나비 마냥 우아스럽구나

자유의 청빛 숨결이
고운 치맛자락을 흐트리는 것조차
산들거리는 미풍 마냥 즐겁네

만개하는 지상에의 낙원이
신기루처럼
내게 와 닿아 싱긋- 미소짓네

나는 창공을 노니는
꼬꼬리가 되어
하늘거리는 구나



제18회 태백시 남·녀 백일장 중등부
시 부문 Ⅱ 차하작

편견의 그네

양 윤 영
상장중학교

우주하늘빛 만큼이나
넓고 푸른 그들의 마음은
2고리에 매어진 편견의 그네속에
점점 작아질 뿐입니다

바람과 손길없인 움직일 수 없다는
생각이 그들을 더욱 작게 만듭니다

흐르는 바다같이
무한한 용기와 희망은 그들이
이제는 편견의 그네들에게
바람과 손길을 줍니다

매어진 그네들을 움직여
큰 세상 보며
편견에서 벗어나 넓은 마음 가지라고
오히려 토닥거려 줍니다

제18회 태백시 남·녀 백일장 중등부

시조 부문 Ⅱ 장원작

아프리카, 아프리카

임 은 경

황지여자중학교

흐릿한 눈빛에는, 말라버린 입술에는
자그마한 나비조차 쉬어가려 않고
오로지 절망만이 그들을 지배한다

흙먼지 안개 끼인 드넓은 황무지
그 곳엔 나무 한 그루 움트지 못하나
가녀린 꽃 한송이 피어나고 있다



제18회 태백시 남·녀 백일장 중등부

시조 부문 Ⅱ 차상작

그 네

김 유 희
황지여자중학교

명절에 칼대인냥 휘어도 꺾일소냐
 거칠은 머리칼에 창포물 스민다
 땅거죽 위로 힘차게 창공 가르는 그네

여인네들 갈라진 발바닥이 즐거이
 여인네들 짓무른 손바닥이 즐거이
 청포꽃 흐트러지는 오월을 휘감네



제18회 태백시 남·녀 백일장 중등부

시조 부문 Ⅱ 차상작

향수 그네

박진영
상장중학교

긴치마 나풀대던 추억의 단오그네
 옛 생각 되짚으며 그리워 어루만지고
 어머니 다시 뵈오면 기쁘고야 말텐데

사모한 옆집 누나 노다지 벚꽃그네
 어찌면 말을 걸까 조심히 다가서던
 그네를 잡아보며는 웃음박이 터진다

멀리온 외지사람 신기한 시골그네
 달콤한 양초콜릿 하나 둘 처음 먹던
 씹쓸한 후회감들이 머릿속에 짝 찬다

죄송한 울어머니 슬픔의 상처그네
매달린 어머니 팔 뿌리쳐 떠나가던
그때가 회상되며는 고통 속에 울부짖는다

민었던 외지사람 후회의 향수그네
뭐든지 직선일 듯 당당히 떠나가던
바보인 나 때문인지 모든 것이 절망였다

결국엔 다시 찾은 미안한 나의 그네
슬픔의 그 시간을 모두다 지워주는
사랑한 나의 추억들 다신 절대 안 떠나리



제18회 태백시 남·녀 백일장 중등부

시조 부문 Ⅱ 차하작

우울만의 슬픈 메아리

강 석 희
철암중학교

슬프디 슬프도다 내 마음 슬프도다
어두운 우물에서 들리는 저 메아리
어둠의 미로를 헤쳐 빛을발할 한탄이

가엾디 가엾도다 그 마음 가엾도다
나가지를 못해서 헐어버린 그 혈손
세상 밖 구경하고픈 희망의 그 소리



제18회 태백시 남·녀 백일장 중등부

시조 부문 Ⅱ 차하작

추 천 사

이 지 연
황지여자중학교

젊은 날 아낙네의 땀방울 흘날리네
 행주치마 벗어놓고 창공을 훨훨날아
 푸르른 치마자락과 하나되는 하늘빛

마음을 던져봐라 하루를 잊어봐라
 바람에 몸을 맡겨 두손을 의지한채
 찰나를 그네에 맡겨 허물벗는 자유로



사라져가는 정

이 수 연
황지여자중학교

현란하고 요란한 휴대전화의 벨소리는 시계 소리처럼 이제 우리에게 일상화가 되었다.

길거리를 거닐면서도 대화중에도 밥을 먹다가도 심지어 수업중 선생님의 말씀중에서도 휴대전화의 벨소리와 진동은 우리의 귓전을 울린다.

이미 현대인들에게 몸의 일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휴대전화. 어디를 가도 어느 누구를 만나도 모두들 휴대전화 한 대쯤은 기본이 되었다.

휴대전화가 곧 주인을 나타내고 그 속에 갇혀 사는 현대인들.

보물 1호로 휴대전화를 꼽은 이 시대의 학생들.

휴대전화 보급률 1위라는 언론의 보고가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실태를 잘 나타내 준다.

그 조그마한 기계 속에 우리를 담고 살면서 보낸이의 애뜻함과 정이 묻어나는 편지와 쪽지는 핸드폰 액정의 문자 속에 점점 묻혀져 간다.

그 옛날 몇 달을 걸려가며 편지를 주고받던 이들이 깊은 정과 애뜻한 마음 앞에 지금의 전화 한 통화와 문자 하나에 견줄 수나 있을까?

그리운 이의 목소리가 듣고 싶으면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고 안부가 궁금하면 언제나 물을 수 있는 편리함 속에 사람들과의 더 깊고 끈끈한 정과 애뜻함은 점점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스럽다.

작은 상점 앞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던 소란스러움 옆에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서있던 빨간 우체통의 자리를 우리는 얼마나 잊고 살아왔던지...

발전된 고학의 문명 속에 묻혀져 빨간 우체통의 추억 하나도 우리 후손들에게 제대로 물려줄 수나 있을까?

사라지는 우리의 추억 하나 하나가 안타깝기만 하다.

각박하고 힘든 생활에 지치는 요즘 초여름 나무가 전해주는 싱그러움 바람과 함께 그리운 마음을 담아 잊고 살던 누군가에게 편지 한 장 보내는 하루는 어떨런지...



우리집의 희망

이 지 연
함태중학교

"응애응애"한 산부인과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축하합니다 예쁜 공주님 입니다." 이씨 가문에 가족이 하나 더 생겼다.

바로 우리 집의 막내동이 '이지민'이다. 2001년 12월19일 4시37분에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목련아파트 202동403호에 얼굴도 안보고 데려간다는 셋째딸로 태어났다. 2001년12월20일 나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

학교 갈 준비를 하고있던 나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지연아,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있어." 할머니의 전화였다.

"엄마가?엄마가 어디가 아파?" "엄마가...엄마가..." 할머니가 말을 잊지 못한다.

"엄마가 병원에서 아기를 낳았어." 할머니의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학교에 가는 동안에도 학교에 가서도 한동안 멍하게 있었다. 정말로 믿을 수 없는 말이었다. 나에게 14살 터울 동생이 생기다니...

엄마는 그동안 나에게 어떻게 비밀로 할 수가 있어. 10달 동안 엄마 혼

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를 도와 주지도 못했으니... 엄마에 대한 미안함과 배신감이 한순간에 들었다.

학교가 끝나고 엄마의 병원에 찾아갔다. 엄마의 모습은 너무 힘들고 아파 보였다.

처음으로 갓 태어난 아기를 만져보았다. 느낌이 너무 좋았다. 너무 작아서 만지는 것도 겁났다.

내 동생...예뻤다.

내 동생이라는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예쁘고 귀여웠다. 그 동생이 지금 우리가족에게는 얼마나 소중한고 우리의 희망이 될지 몰랐다.

아빠 엄마의 많은 다툼도 작은 생명 하나로 사라지고 어둡던 가족의 분위기 밝고 환하게 바뀌어 주었다.

우리 집의 희망! 우리 집의 희망! 지민이... 정말로 착하고 귀여운 내 동생...

우리 집을 변화시켜준 동생을 생각해서 나에게...우리가족 모두에게 희망을 심어준 지민이를 생각해서 앞으로는 동생을 예뻐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우리 집의 희망 '이지민' 에게 너무 고맙다고 말해주어야겠다.



그네를 타면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요?

김 윤 희
상장중학교

오늘은 소년의 엄마가 하늘나라로 여행을 가신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소년은 새벽부터 일어나 십리 밖까지 나와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소년의 이모는 소년에게 엄마는 100번만 자면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꼭 오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소년은 그 말을 계속 곧 씹으며 해가 동쪽에서 태어나 서쪽으로 기울도록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소년은 북두칠성이 한 뼘이나 기울어 졌을 즈음에야 집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소년의 얼굴은 실망감과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소년은 얼굴이 반짝였습니다. 소년은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는 아프시거나 사정이 생겨서 못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없습니다.

소년은 얼른 마을에서 가장 높은 산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산은 너무 높아서 하늘과 맞닿아 보입니다. 소년은 마음속으로부터 기쁨이 끓어 올랐습니다.

소년은 사물은 분간하기 어려운 어두컴컴한 밤임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욕감으로 전신을 지탱해 올라갔습니다.

팔다리가 모두 굵히고 피가 흐르고 정신도 몽롱해졌습니다. 그럴수록 있는 힘을 다해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하늘은 이미 저만치 도망갔습니다. 이제 힘도 완전히 빠져 버렸습니다. 소년은 겨우겨우 집을 향해 갑니다. 그저 잠자리에 누어 눈을 감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또 한편 소년은 이 생각을 계속 합니다. 엄마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 소년은 너무 힘이 들어 그네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아! 생각을 더듬어 보니 이 그네는 엄마가 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소년과 함께 탔던 그네입니다.

소년은 그네에 코를 대고 크게 숨을 돌이 마셨습니다. 엄마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소년은 엄마가 더욱 보고파집니다. 그런데 소년의 머릿속에 한줄기 빛이 지나갑니다.

"이 큰 그네를 타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거야."

소년은 젖 먹던 힘을 다해 그네를 탑니다. 그네가 움직입니다. 그네는 어느덧 한계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하늘에 손이 닿을 법도 합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납은 동아줄 그네는 툭 끊어졌습니다.

소년은 하늘로 날아갑니다. 저편에 엄마가 보입니다.

"엄마!"

"그래, 우리아가! 엄마가 미안해 많이 기다렸지?"

소년은 엄마를 따라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꿈으려 하지만 꿈을 수 없는 높이 하늘로 비상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었던
소년은 끝내 그 끈을 끊고 하늘로 갔습니다.

어슴푸레 밝아오는 새벽, 소년은 없고 끊어진 그네만 남아 있습니다.



제18회 태백시 남·녀 백일장 중등부

산문 부문 Ⅱ 차하작

우리 가족의 희망

임 은 빈
장성여자중학교

우리가족은 아빠, 엄마, 언니, 남동생, 나 이렇게 다섯 식구이다.
다섯으로 가득 찼던 우리 집이 셋으로 허전함을 느끼게 된 것은 작년부터이다.

언니는 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외지로 나가게 되었고 아빠께서는 회사를 옮기시면서 서울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는 걸 쉽게 결정한 건 아니다.

우리는 가족회의를 소집하게 되었다.

언니는 공부를 위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엄마의 말에 외지로 가기로 하였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빠의 문제였다. 아빠 혼자서 울로 가실 건지 가족 모두가 갈 것인지 엄마께서는 태백에서 할 일이 남아 계셨고 나 또한 우리 학교의 학생회장이라는 이름 때문에 내가 회장으로서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없었다.

결국, 아빠 혼자 서울로 가기로 하였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우리가족의 미래의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내년에는 같은 집에서 다섯이 웃을 수 있도록 하자는 아빠의 말씀이다.

이러한 가족 계획을 가지고 다섯 달 정도가 지났다. 항상 곁에서 힘이 되

어 주고 도움을 줬던 언니의 빈자리가 허전함으로 가득 찼다.

아빠의 빈자리 또한 너무 크게 느껴진다. 그럴수록 남아서 함께 지내고 있는 엄마와 남동생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일년 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가 맡은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가족이 다시 만날 날 동안 한 가지씩 꼭 이루기를 약속하였다.

그 약속은 이러하다.

아빠는 계급 승진을 목표로 하였다. 더불어 건강관리에도 주력하기로 하시고 내년을 위해 희망의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고 하셨다. 아빠에게 우리 가족이 희망이라고...

그리고 엄마의 목표는 나와 남동생을 열심히 뒷바라지 하시기로 하였다. 우리 때문에 사신다며 오늘도 직장에서 힘들여 돈을 벌고 계신다.

언니와 나와 동생은 학생인 만큼 공부하는데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아빠의 희망이고 엄마의 꿈이기에 오늘도 희망의 하루를 보내고 있다.

우리가족은 모두 동일한 꿈을 가지고 일년 후를 기약하며 지내고 있다.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밝은 희망을 안고...



제18회 태백시 남·녀 백일장 중등부

산문 부문 Ⅱ 차하작

도 약

최 윤 빈
상장중학교

그네를 타고 신나게 놀아본 적이 있는가? 어린 시절 그네를 타며 힘껏 날아 친구들과 멀리뛰기를 하던 기억이 남아있다.

발을 구르며 힘껏 내딛었던 그네는 어린 시절 최고의 추억으로 자리 잡아 있다. 그러나 지금 주위를 둘러보자! 과연 이런 행복한 추억을 가지지 못한 아이가 있을까?

우리와는 다른 억눌린 사회의 고아가 그들이다.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그네가 지신의 힘으로는 넘지 못하게 하는 잘 못된 시선과 편견의 끈이 그것이다. 끈에 잡혀 채 한바퀴를 돌지 못하는 그네처럼 그들 또한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산다.

어린 시절 자신의 사소한 추억하나 만들 수 없었던 장애인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팔 없는 아저씨를 보고 한 아이가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난다.

"엄마 저 아저씨는 왜 저래?"

나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 아이의 엄마의 대답이었다.

"엄마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돼."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아이는 그럼 저런 사람은 엄마 말을 듣지 않은 아
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사소한 대답이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시선을 심어주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이런 식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정확한 인식
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장애인은 다르지 않다고 지내
온 일본의 한 청년의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다.

'오체불만족'이라는 책을 지어 화제가 되었던 자신이하고 싶었던 일을 부
족한 신체조건 속에서 하고야마는 멋진 장애인, 오토다케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장애인을 대하는 거짓 없는 행동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고마워한다. 그리고 그의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오토다케는 멋진 친구입니다. 녀석은 우리와 똑같아요. 친구로써 서로를
대하는데 장애가 무슨 소용인가요."

그네를 타며 꼭 쥐었던 끈을 서서히 풀어야 한다. 꼭 묶여진 마음의 끈도 풀
어야 한다. 장애인들을 주변사람들이 거짓 없고 솔직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 매
듭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방법이다. 장애인은 신체나 정신이 다를 뿐이다.

장애를 가졌다고 꿈을 꾸지 않는가? 우리와 다르다고 하늘을 보지 못하
는가? 한 하늘아래 단지 무엇인가가 다를 뿐이다.

세상에 시달려 앞만 보고 걸어가는 현대인들이여! 언젠가 놀이터 그네에
앉아 마음속 그네를 타게 된다면 꼭 쥐고 있던 끈을 놓고 힘차게 도약하자!

편견과 차별 없는 저 곳을 향하여!



제18회 태백시 남·녀 백일장 고등부

시 부문 Ⅱ 장원작

내 마음을 싣고

홍 현 주
장성여자고등학교

서방님, 오늘도 아니 오시려나요?
수없이 눈물로 지새운 밤
벌써 몇 해 던가요?

그네를 타면
버들 나무 사이로
행여 보일까?
동구 밖 저 너머로
행여 보일까?
뜬구름 새로 높이높이
올라갑니다.

그네를 타면
저멀리 보이는것도 같은데
저멀리 돌리는것도 같은데
바람에 전해오는
알싸한 추억의 향기뿐...

서방님, 오늘은 돌아오시겠지요?

눈물로 맺은 언약

사랑의 징표 반지

잊지 않으셨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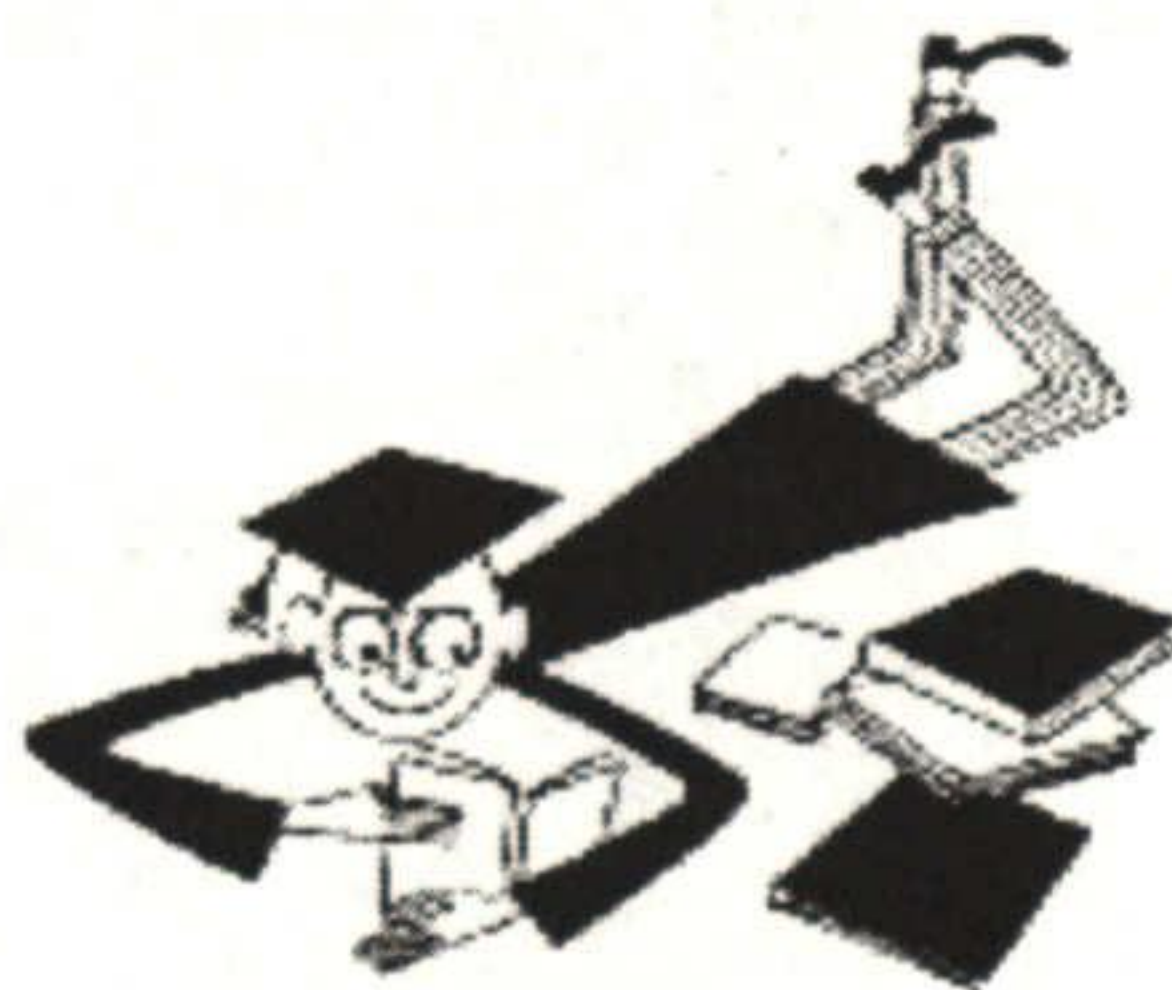
그네를 타면

서방님 모습

행여 보일까?

오늘도 높이높이

그네를 뽐니다.



제18회 태백시 남·녀 백일장 고등부
시 부문 Ⅱ 차상작

신이 주신 희망

김 은 혜
철암고등학교

사랑을 달라고 하니
그는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셨다

지식을 달라고 하니
그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셨다

행복을 달라고 하니
그는 웃음을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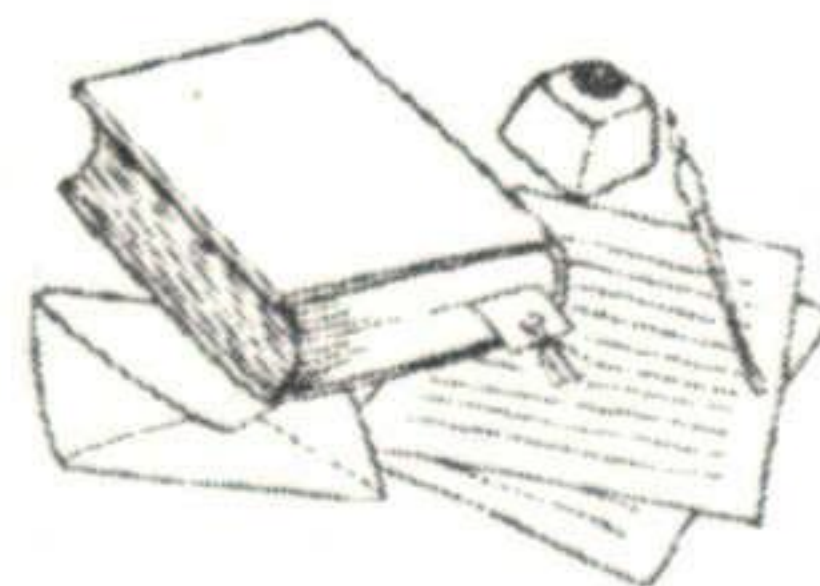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달라고 하였다

그는 자만치 말라고
미움이라는 병을 주셨다

상처받는 마음을 주셨다
내게 쓴 눈물을 주셨다
회계의 눈물을...

이 많은 것들을 원하는 사이에
그는 내게 소중한
무언가를 선물 하셨다

지금 내가 품고왔던
희망이라는 것...



제18회 태백시 남·녀 백일장 고등부
시 부문 Ⅱ 차상작

붉은색 그네

양 지 현
장성여자고등학교

창포물에 머리를 감자
올커니, 오늘이 단오구나
동네 아낙들과 처녀들이
그네를 뛰는구나, 아낙들 틈에
펼럭이는 저 붉은 것이 무엇이냐?

춘향이가 그네로 하늘에
오를 때 펼럭이는
이몽룡의 그 두 눈을 멀게 한
흘날리는 치맛자락이더냐?

동네 처녀들 그네타는
그 옆에 살포시 핀
새색시 마냥
빠알간 얼굴을 하고
향기를 뽐는 꽃이더냐?

아! 설레어서 설레어서
가슴이 벅차오는
그네타고 저 하늘을
날아오르는 처녀들이
마냥 선녀 같구나

저 붉은 치맛자락에
내 꿈 희망 싣고
새색시 같은 꽃에
내 님과 사랑 실어
저 하늘로 띄워 보내고 싶다

아니, 내가 가리라
꿈과 희망과 내 사랑을 싣고
자유로이 푸른 저 하늘을
날고 싶구나
마치 내가 새가 된 것처럼....

그네야 날자꾸나
우리 새가되어 날아보자
붉은 치맛자락에
붉은 저 꽃잎에
마음을 싣고 함께 날아보자

제18회 태백시 남·녀 백일장 고등부

시 부문 Ⅱ 차하작

그

네

신 근 명
장성여자고등학교

하루는 웃어주는
하늘에게
보답하고자
함박웃음 지어 오르면 말없이 저어주고

하루는 슬피우는
하늘의
눈물을 닦아주고자
손을 뻗어 오르면 힘차게 올려주고

하루는 성내는
하늘을
달래주고자
미소지며 오르면 말없이 올려주고

하루는 찡그리고 고민하는
하늘에게
충고해주고자
그네에 오르면 안부를 묻고 올려주고

오늘은 님을 뒤로하고
그네를 벗삼아 앉아있으면
그 슬픔 날려주고자
장단 맞추고

오늘도 말없이 앉으면
기쁨이던
슬픔이던 같이
나누며 장단 맞춘다



제18회 태백시 남·녀 백일장 고등부

시 부문 Ⅱ 차하작

내 마음의 희망

우 지 은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

하늘아래 누워 살며시
내 마음에 귀기울여 본다

아무리 바라고 내려어 보지만
끝내 이루어지지 않을 듯
아쉬움만 더해져 가버리는
나의 희망!

저 하늘 위의 새가
나의 친구되면
간절한 이내 희망을
말하여 볼텐데

새야 나의 작고 간절한
희망을 함께 기도해 주련

나의 얘기를 들은 듯
새는 저 하늘위로
고이 가져가 버린다

제18회 태백시 남·녀 백일장 고등부

시 부문 Ⅱ 차하작

내 꿈담은 그네

최 미 선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

푸르른 하늘위로 내 꿈을 펼쳐보세
넓은들 가로질러 시원한 바람불면
나의 꿈 바람 타고 하늘위로 날아가네



제18회 태백시 남·녀 백일장 고등부
시 부문 Ⅱ 차상작

춘화향기

최 용
황지고등학교

상처가 깊다해도 새 살은 돋아나고
쓰라린 계절에도 춘화향기 가득하니
어두운 인생에도 밝은 날은 오리라



제18회 태백시 남·녀 백일장 고등부

시 부문 Ⅱ 차상작

그

네

이 영 신
장성여자고등학교

향단아 밀어다오 저 하늘에 가보자꾸나
 그네를 멈추지 마라 저곳에 닿을 수가 없구나
 내려져 죽기는 서럽지 않아도 님 못 볼까 하노라

오월을 기다려 단오를 맞이하니
 그네한번 뛰어넘어 님 계신데 이르고저
 저님이 보신 뒤에야 내려오면 어찌리

내 마음 그네에 실어 저 하늘에 이르고저
 아득히 먼 곳까지 닿게하고 싶구나
 도련님 계신 곳에가 내 마음을 알리리

제18회 태백시 남·녀 백일장 고등부

시 부문 Ⅱ 차하작

동아줄 끊어지기 전에

김 나 리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

갑갑한 이내마음 어떻게든 풀어보려
썩을대로 썩어버린 우리님네 동아줄
날아라 우리 님 보게 더 높이 날아가라

날두고 길떠나 가신 우리님네
언제쯤 돌아오시려나 원망스런 우리 님
동아줄 끊어지기 전에 어서어서 돌아와요

하늘보고 땅보고 저녁 해가 떨어지면
고운 색동옷은 흙에 젖어 닳아버리고
차려논 진수성찬은 식어빠져 못 먹게 되고

기다느라 말라버린 눈물샘도 없겠지만
우리 님 돌아오시길 동아줄에 바래본다
동아줄아 끊어지지 마라 우리 님 못 본다

새벽녘 앞산 넘어 아침해 동트면
치맛자락 찢어지고 이내 맘도 찢어지니
동아줄아 끊어지지 마라 우리 님 못 본다



제18회 태백시 남·녀 백일장 고등부
시 부문 Ⅱ 차상작

수업중의 몸부림

윤 관 용
황지고등학교

따르릉 선생님 들을라 조심해라
이번에 선생님께 걸리면 끝장이다
조용히 안걸리게 조심조심 받아보자

타타타 소리 안 나게 조심히 날려보자
친구와 오고가며 조심히 날려보자
조용히 안걸리게 조심조심 날려보자

살며시 꺼내놓고 재미있게 한판하자
한판이 끝나갈 때 선생님께 걸렸구나
너와의 긴 시간들 어떻게 잊으랴

사랑을 이어주는 메신저

신 지 혜
장성여자고등학교

"아빠, 무서워...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아빠 오지마...오지마...사랑해요..."
올 1월에 일어났던 참혹했던 참사 사건에서 한 여자 아이의 아빠에게 걸
었던 마지막 통화 내용이다. 얼마 지나지 않은 사건이지만 우리 내 기억속
에선 벌써 잊혀져 가는 듯... 만물은 푸르고 사람들은 분주하다.

이 여자아이의 육신은 타서 재가 되었겠지만 영혼만은 맑고 순수하다.
아빠가 위험할까봐 오지 말라는 말을 남겨 놓고 떠나 버린 착한 딸의 목
소리를 들은 아빠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더 숨이 막혔을까?

그 때 휴대전화가 없었다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조차 남기지 못하고 떠
났을 것이다.

그럼 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부모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생각만으로
도 코끝이 찡해진다.

휴대전화가 있었기에 비록 떠나는 거지만 알릴 수 있었다는 게 다행스럽
다. 휴대전화가 이어준 부녀의 사랑이 아름답다.

현재 우리나라는 휴대전화 사용율이 세계 1위이다.

일본을 이기고 1위인만큼 휴대전화의 기능과 종류도 많다.

IT산업이 더욱 눈부신 발전함에 따라 놀라울 만큼의 기능을 가진 휴대전화도 속속히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휴대전화 없는 사람은 원시인이라고 불릴 지경이다.

나도 원시인에서 해방 된지가 얼마 되지 않아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다. 그래도 휴대전화의 많은 기능들 특히, 문자 기능은 나의 생활의 행복이다.

최신가요를 다운받아 벨소리를 뽐내고 귀여운 컬러링을 다운받아 전화 거는 사람에게 웃음을 준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의 생신이 코앞에 닥쳤다.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서먹함을 주체할 수 없었다.

아빠의 생신이었던 3월 3일 아침.

그냥 이려고 집을 나섰다. 마음이 천근만근 무겁기만 했다. 아빠가 얼마나 서운해 하실까 생각하니 0교시 수업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난 아빠에게 문자를 보내기로 했다.

0교시 수업이 끝난 즉시 꺼던 휴대전화를 켜고 문자를 써 내려갔다.

"사랑하는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직접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구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사랑해요" 문자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1교시 수업을 하고, 2교시 수업을 했다.

3교시 수업을 시작할 무렵, 내게 한 통의 문자가 왔다. 아침에 누굴까 하는 생각에 기대 반, 설레임 반으로 문자를 확인했다.

"사랑하는 큰 딸, 축하해 줘서 고맙구나 너도 즐거운 하루 되렴" 아빠였다.

갑자기 나도 모르게 가슴이 막히면서 떨렸다. 눈에선 투명한 이슬이 반짝였고 3교시는 눈물로 반을 보냈다. 이렇게 큰 감동을 선물해 주신 아빠에

게 큰 감사함을 느끼며 야간자율학습까지 마쳤다. 즐겁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도착했다.

난 그저 웃었다. "지혜야! 고맙다."

"나두...그런데 아빠 문자 쓰는거 모르잖아요." 아빠는 흐뭇한 미소를 띄우시더니

"배웠어 회사 동료한테"

그냥 써 달라고 해도 되었들텐데 굳이 쓰는 방법을 배우셨단다. 그래서 더 감동이 크지 않았을까! 말로는 쑥스럽고 편지로는 어색했던 우리 사이에 문자 하나로 더 친해질 수 있어 너무 기분이 좋았다.

그 후로 가끔 우리는 문자로 대화한다. 아빠의 어깨가 쳐져 있거나 술을 드시고 오신 날은 꼭 문자를 쓰곤 한다.

"아빠, 힘내세요."

"술 조금씩 드세요. 건강하셔야죠."

그럴 때마다 아빠도 꼭 답 문자를 주셨고 힘이 나신다고 하셨다.

아빠와의 사랑을 이어준 휴대전화를 난 아마도 계속 사용할 것이다.

형편을 알기에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아빠가 바라시는 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꿈을 이룰 것이다.

"우리 딸 잘하고 있지?."

"네 아빠"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문자 대화...



제18회 태백시 남·녀 백일장 고등부

산문 부문 Ⅱ 차상작

추 억

장 혜 선
장성여자고등학교

나에게는 지금도 정말 보고싶은 사람이 있다. 나에게 그리움이란 걸 준 사람...

내가 어릴 적 부모님이 모두 일하러 가시는 바람에 잠시 시골 할머니 댁에서 산 적이 있다. 할머니 댁은 여기보다 더한 산골이지만 울긋불긋한 앞산의 풍경과, 많은 시냇물, 마루에서 장기를 두시는 어른들, 줄넘기를 하고 노는 아이들, 좋은 경치만큼이나 한가롭고 평화로운 곳 이었다.

할머니 댁은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 집이었다. 마당 바로 앞엔 언제나 향긋한 향이 풍기는 아카시아 나무가 지키고서 있다. 그 앞에는 놀이터가 있다. 그네며, 미끄럼틀이며, 시소며,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건 '뱅뱅이' 였다.

'뱅뱅이'라는 이름은 그냥 내가 일시적으로 붙인 이름이다.

그 위에 타고 세게 돌리면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이 정말 재미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7살짜리 꼬마에게는 너무 지루한 것 이었다. 한창 부모님의 손이 필요한 나이에 할머니 밑에서 큰다는 것...

그리고 텔레비전 하나밖에 놀거리가 없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친구가 없다는 것.

항상 나에게 친구가 없었다. 다른 곳에서 살다와서 그런지 내 또래 아이들은 나를 낯설게만 대했다. 그래서 나는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물끄러미 그네 타는 아이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러는 나를 안타깝게 생각하셨는지 할머니는 나를 데리고 앞산이며 밭이며 데리고 다니셨다.

"아가야! 이 꽃이 뭔지 안 다냐?"

"아니, 잘 모르겠는데... 할머니 이 꽃이 무슨 꽃인데?"

"이건 할미꽃이라는 거여."

"할미꽃? 그럼 애기꽃도 있어?"

"애기꽃이 어딴다냐? 우리 혜선이가 애기꽃이지." 하며 웃으시는 할머니 그렇게 할머니는 냉이며, 숙이며, 머루며, 다래며, 하나하나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동네 아이들에게도 "아그들아! 여기 아가가 다른데서 왔으니께 다 같이 친하게 놀아줘라 잉" 하며 나를 소개시켜 주셨다. 그렇게 동네 아이들과도 서먹하지 않게 지내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아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요 애틍의 대상이었다.

뱅뱅이는 여럿이도 탈수 있지만 '그네'는 여럿이 타지 못하는 것이기에 내 차례가 올때까지 기다리고 있자면 내 마음을 아셨는지 먼발치서 지켜보시 다가도 그네타는 아이에게 "아야! 우리 아가 한번만 타보자." 하시며 그네를 뺏아 주시곤 하셨다.

밤이면 아무도 없는 놀이터에서 그네를 태워주시면서 엄마 보고싶다고 보채는 나에게 옛날 얘기를 해주시던 할머니...

그곳에서 몇 년을 보낸 후 부모님은 지금의 우리 집으로 할머니를 모시고 왔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병세가 심해지시는 할머니 그런 할머니를 잘 보살펴 드려야한다며 아버지가 모시고 온 것이다.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할머니는 좀처럼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으셨다.

그런 할머니에게 기분전환을 시켜드리고 싶은 나는 "할머니, 우리 옛날에 살던 집 가보자"며 아버지께 부탁해 예전 할머니 댁이 있던 시골을 찾았다.

울긋불긋 물든 앞산이며 맑은 시냇물이며 평화로운 마을 분위기이며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다. 다만 한가지 변한 것이 있다면 뛰어 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대신 허전함이 녹슨 놀이터가 그리고 어느새 할머니 이마에 자리잡은 주름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할머니, 생각나? 예전에 할머니가 나 그네 뺏아줬잖아. 그리고 밤마다 그네 태워주면서 옛날 얘기도 해줬잖아. 그때가 좋았지?" "그려, 그때가 좋았지" 어느새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다.

그 후로 할머니는 병세가 더 이상 호전되지 못하고 그렇게... 그렇게 돌아가셨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해, 참 많이 울었던 것 같다.

"할머니, 생각나? 할머니가 나 그네 태워줬잖아. 옛날 얘기도 해줬잖아 할머니. 나 가끔 예전 할머니 집 가서 할머니가 태워주던 그네도 타보고 할머니랑 갔었던 앞산도 가보고 할머니 생각도 하고 그래."

나에게 엄마의 자리를 채워주신 할머니 '그네'

나에게 어린 시절 너무 나도 많은 그리움을 심어준 사람. 나에게 엄마 이상의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 "할머니...보고 싶어요"

담쟁이

강 성 희
장성여자고등학교

산을 오르거나 먼 길을 걷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하지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힘든 것은 자신이 뜻하는 바, 즉 소망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만큼 소망을 이루는 것은 힘겨운 고난과도 같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소망을 하나, 돌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가 소망을 이루기까지의 힘든 점들을 해소하고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닌 희망 때문일 것이다.

희망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고, 일의 성립에 부여되는 큰 힘이다. 희망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유는 이것이 공기와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음을 느끼게 된다.

정치나 경제상황에 대해서 비판은 무성하나 뾰족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 더러는 이제 생각조차 하기 싫고 아무 일도 하기 싫은 체념 상태에 이르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삶의 매듭이 갈수록 얽히는 상황일수록 마라톤 주자와 같은 인내와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나도 예전에 아무 희망 없이 체념 상태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여 꿈도 없이 유예하며 지냈다.

어느 날 오빠가 왜일인지 책을 읽고 있길래 나도 한번 펼쳐 보았다. 그 펼쳐 본 곳에는 정말 가슴이 저리고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슬픈 구절이 있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어떤이가 그토록 바라는 내일' 이 구절을 보며 난 10년 전에 너무나도 빨리 천사가 되버린 큰오빠를 생각하며 울어버리고 말았다.

내가 이렇게 사는 오늘조차 오빠는 얼마나 갖고 싶을까? 내 비뚤어진 생각을 고친 건 그때였다.

'진정한 자유란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심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나도 내가 원하는 헛된 자유를 고쳤다. 내가 보는 세상 또한 마치 하루살이가 된 듯이 세심하고 아름답게 보였다.

처음엔 오빠를 생각하며 대신 사는 듯이 살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내 주위와 나는 변해갔다.

내 성적은 평균30이 올랐고 피아노나 미술 쪽으로도 나는 몰라보게 실력파가 되었다. 나는 즐거움을 느꼈다. 그리고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듯이 기쁜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꿈이 있다는 것이었다.

내 꿈은 영어교수이다.

영어 알파벳에 대해 묘한 신비감을 느꼈다. 지금 그 꿈을 정한지 3년이 다 되가는데 조금도 다른 생각은 하지 않는다. 내게 꿈이 있는 것은 내가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근본적인 기초가 되었다.

수많은 네잎클로버가 있지만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클로버는 드물다. 사람들은 행운만 뒤쫓으며 네잎클로버를 하찮게 넘겨 버리겠지만 나는 네잎클로버의 깊은 뜻을 안다. 네잎클로버는 행복을 뜻한다.

즉, 우리는 행복 속에서 행운을 갈구한다는 것이다.

나는 내 꿈을 찾고부터 작은 일 하나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넘어져도 무릎만 깨진걸 감사하고 내가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건강,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부모님과 친구들이 있는 모든 것이 내겐 너무나도 큰 행복이다.

갈매기의 꿈에서 조나단은 꿈을 이루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며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다.

조나단이 내게 알려 주고 싶었던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포기는 김장을 할 때 쓰는 말일뿐이라며 내게 알려주던 도덕 선생님도, '네가 포기하면 달라질건 없어 하지만 노력한다면 세상이 바뀔 수도 있지'라며 말한 친구들도, 엮질러진 물은 다시 길러오면 된다고 날 안으며 위로해준 부모님도 날 절 때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다.

내가 힘든 벽에 부딪혔을 때 마치 담쟁이처럼 인내하며 계속 올라가 담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주위의 사랑과 뚜렷한 꿈을 갈구하는 작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 아직 비록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시간은 내게 충분히 주어졌고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기에 나 자신은 이미 꿈을 성립했다고 본다.

마라톤 경주자는 미래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달렸기 때문에 목표점을 넘었던 것이다.

중간중간 배가 쓰리고 땀이 온몸을 씻더라도 그들이 희망을 가짐으로 성공했던 것처럼, 내 인생의 길을 끊임없이 알려 갈 것이다.

촛불이 작지만 온방을 환히 비춰 주듯이 작은 희망을 가슴에 담고 내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



하늘 위로 날아 올라

오 민 환
황지고등학교

저 하늘 위 우리는 그 곳에 지금 갈 수 없지만 가까이 닿을 수는 있다.

하늘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이다. 그런 하늘에 가까이 닿은 것만으로 순간만큼은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진다. 그네는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이다.

그네를 타면 이 세상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다. 그 것을 타고 하늘에 점점 가까이 닿은 순간이면 정말 세상 무엇보다 행복해진다.

그런데 이런 행복을 주는 그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네는 하늘에 닿으려고 높이높이 올라가지만 그 것도 잠시일 뿐 그네는 다시 하늘을 멀리한다. 그래서 그네를 타고 있으면 행복과 안타까움을 모두 가진다.

그러나 나는 그네를 좋아한다.

그 이유는 그네가 우리 일상생활과 유사점이 많은 것 같다.

우리 인생에 기회는 3번 온다고 들었다. 그러나 3번의 각각의 기회 바로

전에는 실패와 고통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점이 그네와 같은 것이다.

3번의 성공은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고 실패와 고통 안타까움은 그네가 하늘과 멀어지는 것과 유사하다.

나는 인생의 절반도 안 되는 18년을 살아왔다. 이런 나의 인생에서 기회는 아직 한 번 남은 것 같다. 이 기회란 내가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준 고등학교를 인문계로 왔다는 것이다.

내가 지금 말한 것이 "무슨 기회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 기회를 활용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 것을 기회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나의 주변에도 가정환경이 어려워서 또는 친구들을 잘 못 만나 장애를 가지고 있어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

이런 환경 속에 있는 나는 당연하게도 고등학교를 다니는 것이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2번, 3번의 기회가 오도록 열심히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사이사이에는 그네와 같이 실패도 있을 것이며, 슬픔 안타까움도 있을 것이지만 나는 결코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꼭 그네를 타고 저 하늘 위를 향해서 행복만이 가득하게 성공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주변사람,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그네의 행복을 깨닫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 하늘을 향해 꿈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강대국이 될 수 있음을 나는 확신 할 수 있다.



언덕을 넘어서

전 명 란
장성여자고등학교

지금 우리 가족의 앞에는 거대한 암흑의 언덕이 놓여 있다. 이 암흑의 언덕을 넘어 밝은 태양을 보기 위해 서로를 격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있다.

그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한 이대로 무너지지는 않을거라는 아버지의 말에 의지한 채 오늘도 힘겨운 발걸음을 떼어 놓는다.

작년 남은 가족에게 빚만을 남기고 엄마는 떠났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는데도 매정하게 뿌리치고 가족을 버리셨다. 우리가 의지할 사람은... 아버지라는 사람! 단 한 사람뿐이었다. 정말 힘들고 견딜 수 없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아침에는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했다. 그래도 말이인 언니가 아버지를 도와 아침을 했지만, 동생들은 내가 챙겨야 했다.

새벽 1시가 거의 다 되어서 들어오는 나에게는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렇다고 불평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이렇게 아침에 전쟁을 치르고 나면 또 다시 힘든 하루가 시작된다.

교실에 들어서자 밝은 아이들의 표정과 활기찬 몸짓이 눈에 먼저 들어온다. 모두 행복해 보인다. 친구들을 보면 처음으로 부럽다는 생각을 했다.

오늘도 역시 애들이 다가와 장난을 치지만 받아줄 기분이 아니다. 전에 나라면 그 장난을 그냥 넘길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면 갑자기 변한 내 모습이 견딜 수 없도록 처량해진다.

오늘 담임선생님 시간에 멍하게 앉아 있다가 지적을 받았다. 요즘 들어서 왜 그러냐는 선생님의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 순간 내 마음은 고요한 어둠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식사 시간이 시작되고 학교는 다시 시끌벅적해진다.

오늘의 메뉴는 남동생인 용운이가 좋아하는 비빔밥이다. 비빔밥을 먹으면서 지금 아버지와 동생들은 무엇을 먹고 있을까? 또, 며칠전 장에서 산 맛 없는 반찬을 먹고 있는 건 아닐까? 편식이 심한 용운이는 저녁을 먹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펼쳐 버릴 수 없었다.

미안한 생각과 함께 가슴이 저려왔다. 가슴이 저리도록 아픈 느낌! 슬픔, 눈물, 어둠... 엄마가 마지막으로 내게 준 선물이다. 그 선물을 거부할 권리가 없었기에 엄마가 더 미워진다.

6시 50분! 조용해진 교실과 함께 야자가 시작됐다.

공부벌레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열성적이었던 내가 처음으로 공부해서 뭐 하나라는 생각을 했다. 친구들도 이런 나의 변화를 느꼈는지 어디 아프냐는 말을 수십 번도 넘게 들었다. 그때마다 나는 어색한 미소로 답을 회피했다.

오늘도 학원이 끝나고 새벽 1시가 거의 다 되어서 집에 들어왔다. 안방의 문을 열어 아버지께 갔다왔다는 말을 했다. 아버지는 오늘도 빗을 해결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바쁘게 전화를 걸고 계셨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고 살아온 아버지였기에 가슴이 아팠다.

고1 마지막 기말고사를 치고 평소와 달리 일찍 오게 되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주머니에 있는 열쇠를 꺼내려고 하는데 누가 달려와서 나에게 안겼다. 용운이가 울면서 처음으로 엄마가 보고싶다는 말을 했다.

어리지만 눈치 있게 행동해준 동생이었는데... 그렇게 한참을 용운이를 안고 울었다.

나중이야 그 시간동안이나 용운이는 열쇠를 잃어버려 밖에서 떨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날 저녁 아버지가 술에 취해 돌아오셨다.

아버지는 우리를 거실에 모두 불러 앉히셨다. 그리고는 미안하다고, 너희에게 내가 못 할 짓을 한다고 이 못난 아빠를 용서하지 말라고 하시며 우셨다.

우리 앞에서 처음으로 보이는 아버지의 눈물 약한 모습이었다. 할말이 없었다. 우리 모두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아버지가 눈물을 닦고 말씀하셨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흘리는 눈물이다. 앞으로 더 힘든 일 슬픈 일이 많을거야, 그때마다 아빠가 너희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줄게. 절대로 희망을 잃지마라. 너희가 희망을 잃는다면 아빠도 희망을 잃게 되는 거야, 아빠에게는 너희 사남매가 유일한 희망이다. 우리 서로 위하며 격려해주며 잘 살아보자."

말을 마치고 아버지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보여 주셨다.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희망을 잃고 있다는 것이 가슴이 아프신 것이다.

아버지의 말이 옳았다. 나는 희망을 잃고 산 것이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게 희망은 있는 것이라고... 나는 희미하게 꺼져가는 우리 가족의 마지막 불씨를 지키기 위해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태백문화원 연혁

- 1984. 1 황윤덕씨 등 19명이 태백문화원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 1984. 8. 17 문화공보부 법인 설립허가, 황윤덕씨 초대원장 취임
- 1984. 10. 1 태백시 장성동 69-2번지에 태백문화원 개원
- 1985. 7. 18 문화원 활성화를 위해 이진호씨 등 12명을 운영위원으로 위촉
- 1985. 12. 31 민속놀이 '태백갈풀썰이' 등 12개 사업완료
- 1986. 2. 27 제2차 정기총회 개최
- 1986. 7. 21 문공부로부터 정관변경허가. 부원장제도 신설
- 1986. 12. 31 청소년 백일장 및 사상대회 등 15개 사업 완료
- 1987. 2. 24 제3차 정기총회 개최
- 1987. 12. 31 창간호 '태백문화지'발간 등 13개 사업 완료
- 1988. 3. 24 제4차 정기총회 개최
- 1988. 8. 16 임시총회 개최- 신임원장 장인원 원장 선출
- 1988. 12. 31 웅변대회 및 사시랭이 발굴 사업 등 10개 사업완료
- 1989. 3. 24 제5차 정기총회 개최
- 1990. 3. 6 제6차 정기총회 개최 - 정관개정
- 1990. 6. 13 문화부로부터 90년도 시범문화원으로 선정
- 1990. 10. 16 임시총회 개최 - 부원장 선출 (김영훈 이사)
- 1990. 12. 31 불우소년소녀가장돕기 통기타콘서트 등 14개 사업 완료
- 1991. 2. 26 제7차 정기총회 개최
- 1991. 12. 31 폐광기록사진집 「막장사람들」 발간 등 12개 사업 완료
- 1992. 2. 27 제8차 정기총회 개최
- 1992. 12. 31 전통향토음식솜씨자랑대회 등 13개 사업 완료

1993. 8. 17 제3대 원장으로 우성조씨 취임
1993. 12. 31 효자비건립 등 15개 사업완료
1994. 4. 18 문화체육부로부터 한국문화학교 태백문화학교 설립인가
1994. 12. 31 문화학교 운영 등 16개 사업 완료
1995. 2. 25 제11차 정기총회 개최
1995. 12. 31 태백문화 제9집 발간 등 15개 사업 완료
1996. 2. 25 제12차 정기총회 개최
1996. 10. 25 신축문화원 원사 이전
1996. 12. 9 문화원사 준공식
1996. 12. 31 백일장 등 12개 사업 완료
1997. 3. 11 제13차 정기총회 개최
1997. 12. 31 한강대제 등 12개 사업 완료
1998. 2. 24 제14차 정기총회 개최
1998. 12. 31 숫대복원사업 등 14개 사업 완료
1999. 3. 5 제15차 정기총회 개최
1999. 4. 23 임시총회 개최- 우성조원장 연임
1999. 12. 31 태백학술대회 등 22개 사업 완료
2000. 2. 29 제16차 정기총회 개최
2000. 12. 31 천제 등 23개 사업완료
2001. 2. 27 제17차 정기총회 개최
2001. 12. 31 전통음식솜씨자랑대회 등 23개 사업완료
2002. 2. 26 제18차 정기총회 개최
2002. 12. 31 초금연주회 등 21개 사업완료
2003. 2. 28 제19차 정기총회 개최
2003. 4. 15 임시총회개최-제6대 태백문화원 원장 선출
2003. 5. 1 제6대 김강산원장 취임
2003. 12. 31 낙동강발원제 등 22개 사업 완료

태백문화원 이사

▲제1대 원장 황윤덕

▲제2대 원장 장인원

▲제3, 4, 5대 원장 우성조

직 위	성 명	주 소
원 장	김강산	태백시 황지동 38-46번지
부원장	주양식	태백시 상장동 422번지 10/4 (귀뚜라미보일러)
부원장	장성일	태백시 황지동 79-13 (성일주유소)
이 사	장화윤	태백시 황지동 78-3 6/2 (보헤미안)
이 사	권명섭	태백시 상사미동 22/3
이 사	전명수	태백시 황지동 1/4 (선진토건)
이 사	문상근	태백시 황지동 87-8 14/8 2주공A 204-302 (초가)
이 사	신원철	태백시 황지동 58번지 2/2 (태백철물)
이 사	권규숙	태백시 장성동 1/2 (대창금방)
이 사	최선희	태백시 황지동 남청아파트 1007호 (성가미용실)
이 사	이동형	태백시 황지동 산 172-1 (윙레미콘)
이 사	장기춘	태백시 상장동 3147 (유한킴벌리태백대리점)
이 사	김소현	태백시 황연동 621-91번지 (태백어린이집)
이 사	선연순	태백시 상장동 621-281번지 (새마을운동중앙회)
이 사	김형돈	태백시 장성동 144-5 (스카이여행사)
이 사	이민형	태백시 철암동 449번지 철암농공단지 (주)태서식품
이 사	김용욱	태백시 황지동 (강원관광대학 인터넷경영학과 교수)
이 사	이장섭	태백시 화전동 11-3 트윈스 한식당내
이 사	김상수	태백시 상장동 현대아파트 102동1203호
감 사	임규선	태백시 황지동 67-7 (태백제일상사)
감 사	지종호	태백시 상장동 10/2 국민주택 37호

문화원 사무국

직 위	성 명	주 소	비 고
사무국장	박 상 기	강원도 태백시 상사미동 22/3	
간 사	김 경 진	강원도 태백시 구문소동 6/4반	

문화학교 강사진

직위	성 명	주 소	비 고
강사	이숙명	태백시 장성동 174번지	국악교실
강사	이경옥	태백시 화전동 팔마A 1408호	테디베어교실
강사	공선녀	태백시 문곡동 고원APT 4동101호	칼라믹스교실
강사	김강산	태백시 황지동 38-46번지	한문교실
강사	조미영	태백시 황지1동 대운아파트 2-506	도자기교실
강사	이지연	태백시 황지3동 3/3 270-21	스포츠댄스교실
강사	박순자	태백시 장성동 54-41 1/1	중국어교실
강사	전영숙	태백시 상장동 시명A 104- 403호	칠보공예교실
강사	김지선	태백시 문곡아파트 104-507호	토들러교실
강사	김만식	태백시 황연동 선명1차A 1105호	주부노래교실

태백문화학교 총동문회 회원 명단

성명	주소	비고
이금주	태백시 유진 1차 아파트 807호	회장
유명자	태백시 황지동 1동 7통 5반	부회장
박용문	태백시 황지동 시민연립 다동 101호	부회장
정태연	태백시 문곡동 문곡아파트 5동 308호	감사
유희자	태백시 황지동 4대림 407호	감사
남명자	태백시 황지동 대산아파트 509호	총무
이동명	태백시 상장동 유진2차 101-703호	회원
김인숙	태백시 상장동 1주공 8동 307호	회원
권인자	태백시 황지동	회원
이원향	태백시 황지1동 5통 2반	회원
추점선	태백시 통동 164-1 14/1반	회원
심정자	태백시 황연동 14/1반	회원
한영숙	태백시 황지동 무궁화연립 나동 103호	회원
김분택	태백시 황지동 7통 6반	회원
권영희	태백시 문곡동 문곡아파트 104동 204호	회원
정해숙	태백시 문곡동 문곡아파트 103동 303호	회원
김일연	태백시 황지동 13-7번지	회원
최은희	태백시 황지동	회원
송상미	태백시 화전동 팔마 아파트 112호	회원
이경옥	태백시 화전동 팔마 아파트 1408호	회원
이복희	태백시 황지동	회원
김수연	태백시 황지동 2대림 203동 301호	회원
이인식	태백시 황지동	회원
방금자	태백시 상장동 2/3 1001-번지	회원
권영자	태백시 황지동	회원
이옥주	태백시 상장동 2/3	회원
류소자	태백시 문곡동 태양빌라 B동 102	회원
유영숙	태백시 황지동	회원

성명	주소	비고
심관옥	태백시 화공동 9/6	회원
우민숙	태백시 황지동 선명아파트	회원
안경희	태백시 소소동 1/5	회원
우분자	태백시 동점동 2/4	회원
손정임	태백시 철암동	회원
전명숙	태백시 상장동 9/2	회원
김홍숙	태백시 상장동 10/2	회원
백옥화	태백시 황지동 4대림아파트 502호	회원
이복남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185번지	회원
배금순	태백시 황지동 49-208	회원
이금순	태백시 소도동 1-3 1/1	회원
박상희	태백시 상장동 2주공 태백건축사	회원
김귀돈	태백시 소도동 10번지 46호	회원
황순옥	태백시 금천동 16-27	회원
박철성	태백시 철암동 349	회원
윤정숙	태백시 소도동 1/5	회원
박재옥	태백시 황지동 2/1	회원
박훈남	태백시 황지1동 20-1	회원
엄순자	태백시 장성동 8/7	회원
박종순	태백시 철암동 철암고관사	회원
임미순	태백시 소도동 3/4	회원
이창식	태백시 동점동 1/1	회원
정종선	태백시 철암2동 3/2	회원
김순달	태백시 황지3동 1/1	회원
송남득	태백시 철암2동 남동상가 206	회원
김태선	태백시 화공동 8/5	회원
김정녀	태백시 계산동 2/5	회원

성명	주소	비고
문정자	태백시 황지동 7/3	회원
이숙희	태백시 황지동	회원
이상연	태백시 황지동	회원
권순자	태백시 황지동	회원
김진애	태백시 동점동 1/1	회원
김순자	태백시 화전2동 10/6	회원
김근순	태백시 황지동	회원
안희덕	태백시 황연동 7-4	회원
홍계춘	태백시 황지동	회원
곽명자	태백시 소도동	회원
권옥주	태백시 구문소동	회원
최숙자	태백시 상장동	회원
홍정임	태백시 상장동	회원
박말옥	태백시 장성2동	회원
김경자	태백시 구문소동 동점아파트 305호	회원
박화숙	태백시 장성동 협심아파트 9동 408호	회원
박금자	태백시 상장동	회원
이해숙	봉화군 석포면 484-29	회원
안연금	태백시 황지동 2주공아파트 9-104	회원
이순조	태백시 상장동	회원
김연옥	태백시 황지동 남청아파트 1204호	회원
이경옥	태백시 삼수동 팔마아파트 1408호	회원
유소자	태백시 황지동	회원
김홍숙	태백시 상장동 10/2	회원
고명례	태백시 상장동 9/4	회원
김재옥	태백시 상장동 10/5 310-5	회원
권명옥	태백시 삼수동 6/3	회원
최금자	태백시 장성동 15-16	회원

● 명심회 회원명단 ●

성명	주소	비고
심금량	태백시 백산동 79번지 4/1	회장
장석녀	태백시 철암동 283-2 2/1	부회장
이옥희	태백시 철암동 상철암A 2동 203호	부회장
김옥성	태백시 상장동 유진아파트 1101호	총무
이희숙	태백시 상장동 시명아파트 나동 201호	회원
정춘자	태백시 황지동 남청아파트 1108호	회원
권영옥	태백시 삼수동 6/3반	회원
한갑순	태백시 장성동 3/4반	회원
엄재순	태백시 문곡동 태양빌라 B동 107호	회원
홍순남	태백시 황지1동 4/4	회원
황점순	태백시 문곡 광원아파트 201-306	회원
이연화	태백시 철암1동 상철암A 15-302호	회원
손인자	태백시 청솔아파트 110동-907호	회원
김연옥	태백시 황지동 솔바람 빌리지 401호	회원
박희선	태백시 삼수동 5/5	회원
권길자	태백시 상장동 6/2반	회원
노정희	태백시 백산동 19	회원
박순자	태백시 백산동 17/2반	회원
김월성	태백시 상철암 중학교 교사	회원
박선민	삼척시 도계읍 도계 2리6반	회원
천혜숙	삼척시 도계읍 도계 2리5반	회원
주순난	삼척시 도계읍 도계 2리4반	회원
박말분	삼척시 도계읍 도계 2리	회원
곽옥녀	태백시 장성동 화광A 42동 203호	회원
김계향	태백시 상장동 2주공A 204-101호	회원

중 국 어 회 원 명 단

성 명	주 소	비 고
권 명 옥	태백시 삼수동 6/3반	회 장
이 희 숙	태백시 시명아파트 나동 201호	회 원
김 명 옥	태백시 시명아파트 101-105호	회 원
우 기 진	태백시 상장동 1주공아파트 1동 105호	회 원
전 명 숙	태백시 상장동 시명아파트 101-403호	회 원
이 양 미	태백시 상장동 2주공아파트 209-104호	회 원
정 순 란	태백시 장성동 1/4 170-137호	회 원
최 미 선	태백시 통동 경동아파트 306-106호	회 원
김 옥 희	태백시 황지동1동 3/3반	회 원
김 옥 경	태백시 황지동 19-151	회 원
김 윤 희	태백시 황지동 대산하이츠빌 1001호	회 원
정 남 숙	태백시 황지동 74-3 남청A 506호	회 원
김 연 옥	태백시 황지동 솔바람 빌리지 401호	회 원
권 계 선	태백시 상장동 현대A 104-4103호	회 원
박 은 숙	태백시 상장동 현대A 103-206호	회 원
이 계 련	태백시 장성동 195-5 매화동 302호	회 원
백 계 화	태백시 황지동 남청아파트 104호	회 원
김 수 자	태백시 황지동 남청아파트 508호	회 원
고 후 자	태백시 황지동 무궁화연립 나동 105호	회 원
최 경 자	태백시 상장동 유진2차 101-1110호	회 원
길 은 선	태백시 화전동 팔마아파트 106호	회 원
박 정	태백시 상장동 2주공아파트 208-104호	회 원
권 순 애	태백시 현대아파트 103-1103호	회 원

테디베어 회원명단

성명	주소	비고
윤화영	태백시 선명3차 아파트㉠ 1205호	회원
이영근	태백시 상장동 현대㉠ 104동 106호	회원
장윤경	태백시 화전동 선명2차㉠ 904호	회원
배명옥	태백시 황지동 선명3차㉠ 403호	회원
이은경	태백시 황지동 유진2차㉠ 103-1406호	회원
한지윤	태백시 황지동 유진2차㉠ 103-405호	회원
홍성희	태백시 황지동 선명 3차㉠ 706호	회원
김정숙	태백시 선명3차 ㉠-801호	회원
조숙자	태백시 상장동 101-2	회원
김명숙	태백시 상장동 192-14 4/3	회원
송상미	태백시 상장동	회원
김명순	태백시 선명3차 B동 809호	회원
권용희	태백시 황지동 청솔㉠ 110/702호	회원
홍윤경	태백시 상장동 1주공㉠ 1-205호	회원

●
●
●
●
●
●

太 白 文 化 (제17집)

발행일 : 단군기원 4336년 12월 30일

발행인 : 김 강 산

편집인 : 박 상 기

발행처 : 태백문화원

인쇄처 : 문 성 사

태백시 황지동 36-9

전화 552-2318

■ 본 지는 국비와 지방비 일부 보조로 발간함
